

국립국어원 2010-01-4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28-14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03

- 연구책임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위 진(전남대학교)
- 조사 주제 : 염전
- 조사 지역 : 서해안 중남부(부안)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 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위 진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5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2. 조사 지침	6
2.1. 현장 조사 지침_7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10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5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8
2.1. 제보자	18
2.2. 조사 기간 및 방법	19
2.3. 조사 지역	19
2.3.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2.3.2.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 2.4. 조사 장소_20
- 2.5. 조사 내용_20
- 2.6. 조사 결과물_21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구술 발화	25
1. 자염의 제염 과정 및 설비	25
1.1. 이정근의 발화_25	
1.2. 최대수, 이시성의 발화_44	
2. 천일엽의 제염 과정 및 설비	61
2.1. 이정근의 발화_61	
2.2. 최대수, 이시성의 발화_77	
3. 자염의 제염 도구	85
4. 천일엽의 제염 도구	95
5. 소금의 종류	103
6. 영광 굴비	105
제4장 조사된 어휘	119
1. 명칭과 행위자	119
1.1. 소금_119	
1.2. 염전_119	
1.3. 여맹이/염부_120	
1.4. 염부장_120	
2. 제염 설비	120
2.1. 자염의 설비	120
2.1.1. 솟등	2.1.2. 염구멍이
2.1.3. 해주	2.1.4. 벌막/벗집
2.1.5. 윗집	2.1.6. 영
2.1.7. 철판	2.1.8. 부석
2.1.9. 기뚝	

2.2. 천일염의 설비_124	
2.2.1. 난치	2.2.2. 누테/느티
2.2.3. 결정지	2.2.4. 물꼬
2.2.5. 또랑	2.2.6. 뚝
2.2.7. 판	2.2.8. 가넉
2.2.9. 배미	2.2.10. 단
2.2.11. 칠전낙차	2.2.12. 염전머리
2.2.13. 소금해주	2.2.14. 뒷물해주
2.2.15. 수리차/수차	2.2.16. 소금창고
2.2.17. 호무때	
3. 제염 도구131	
3.1. 자염의 제염 도구_131	
3.1.1. 쟁기	3.1.2. 씨레
3.1.3. 밀지계	3.1.4. 질통
3.1.5. 바가지	3.1.6. 당그래
3.1.7. 주벽	3.1.8. 뽀메
3.2. 천일염의 제염 도구_134	
3.2.1. 대파/대패	3.2.2. 가넉솔
3.2.3. 염삼	3.2.3. 물꼬망치
4. 제염 과정136	
4.1. 자염의 제염 과정_136	
4.1.1. 갯벌	4.1.2. 개흙
4.1.3. 갯물	4.1.4. 소금물
4.1.4. 조금	4.1.5. 산짐
4.1.6. 사릿발	4.1.7. 감이 나다
4.1.8. 분이 피다	4.1.9. 섯등갈다
4.1.10. 면을 잡다	4.1.11. 간수가 빠지다
4.1.12. 간수(물) 지르다	4.1.13. 불을 때다
4.1.14. 등 나다	4.1.15. 덧물 주다
4.1.16. 물 뉘어주다	4.1.17. 버쿰
4.1.18. 소금 영키다	4.1.19. 물 빠지다
4.2. 천일염의 제염 과정_142	
4.2.1. 물 내리다	4.2.2. 깔깔이
4.2.3. 소금 뜨다	4.2.4. 소금이 오다
4.2.5. 소금발	4.2.6. (물을) 잡아 놓다
4.2.7. 소금 걷다	

5. 소금의 종류	145
5.1. 식염_145	
5.2. 화염_145	
5.3. 육염_146	
5.4. 빨소금_146	
5.5. 천일염_146	
5.6. 재제염_147	
5.7. 사염_147	
5.8. 송화가루 소금_147	
6.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 영광 굴비	148
6.1. 재료_148	
6.1.1. (참)조기	6.1.2. 반어
6.1.3. 백조기	6.1.4. 황시리
6.2. 어로장소 및 도구_149	
6.2.1. 칠산어장	6.2.2. 삼마이 그물
6.3. 제작 과정_150	
6.3.1. 선별을 하다	6.3.2. 염하다
6.3.3. 삶간	6.3.4. 독간
6.3.5. 역걸이	6.3.6. 걸대에 걸다
6.4. 굴비의 종류_151	
6.4.1. 굴비	6.4.2. 보리굴비
6.4.3. 장줄	6.4.4. 오가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57
참고문헌	160
부 록	161
찾아보기	179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언어의 생성,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언어가 담고 있는 것은 다양한 우리의 모습의 표상이므로 언어의 소멸을 손 놓고 보기만 하기는 그 가치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것과는 다른 형태로 바꾸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속도를 기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촌 지역의 생활어는 모습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어촌 지역의 기층 생활어, 이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

기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조사를 통해 생활어의 문서화가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단순히 그러 모으기 식의 과제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하나의 언어를 영구적으로 그러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학자 조지 스타이너는 “모든 것은 잊는다. 그러나 언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촌 생활어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촌 생활어 조사를 통해 사라져 가는 어촌생활의 문화 일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를 생활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안 지역에는 다양한 어촌 생활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어촌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다. 이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구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벉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

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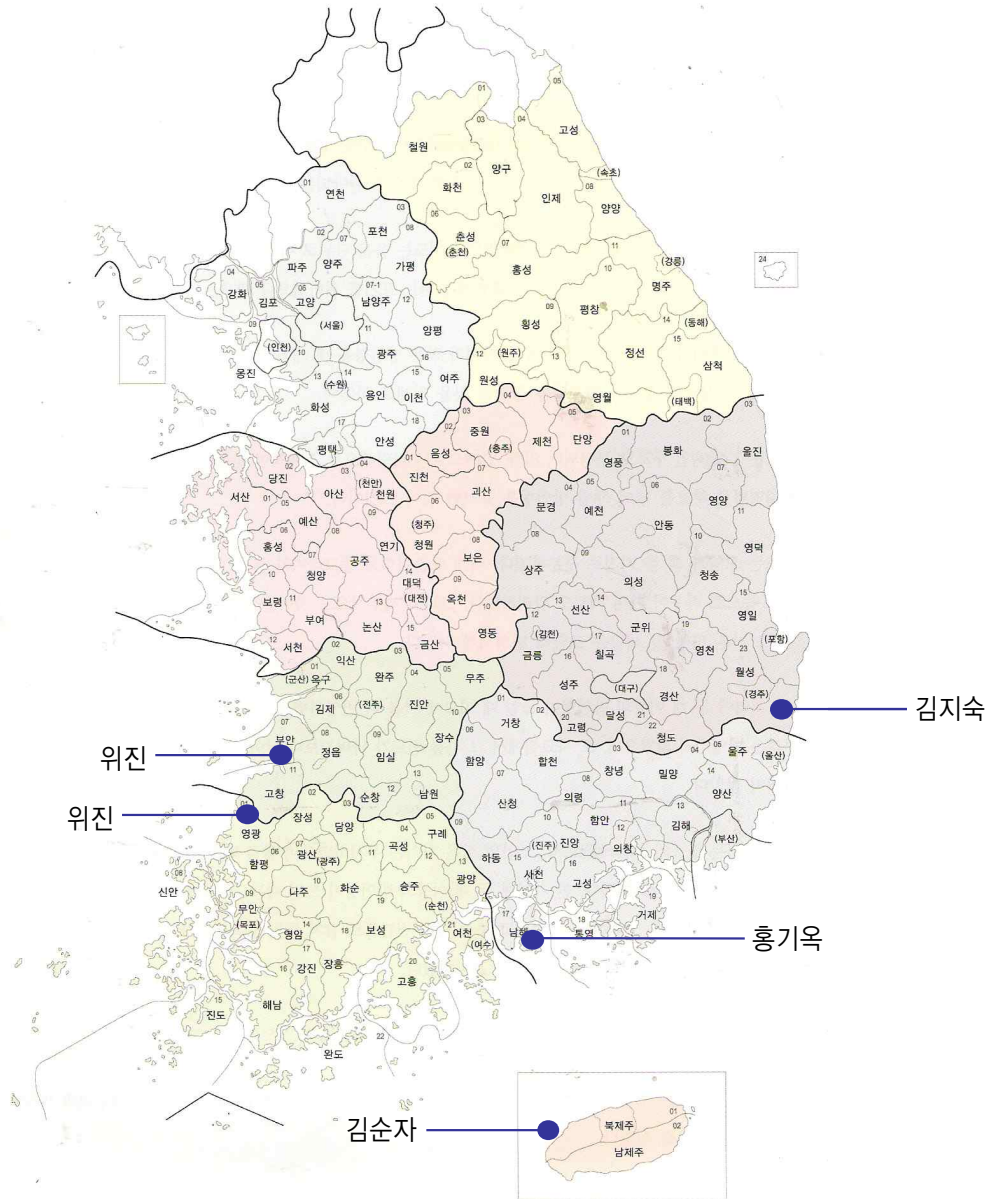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한반도 남쪽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조사, 수집하기 위해서 제주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지역을 우선 광역으로 나누고, 다시 이 지역 중 언어, 생활 문화 차가 예상되는 어촌 지역을 중간 크기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독특한 어촌 생활어를 수집할 수 있는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조사원 간의 조사 지점을 지역 간 거리차를 두어 정하도록 한다. 이는 해당 어휘에 대한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로 어촌 지역을 나누어 지역별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조사 지점 간의 거리차를 두어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다음은 2010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 를 위하여 선정된 지역이다.

● 2010년 조사지역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간장 → 양념간장, 서울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니’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니’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니’가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ㅞ’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해성 → 해성
- ⑨ 단모음 ‘ㅞ’나 ‘ㅟ’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ㅞ’이면 ‘ㅞ’, ‘ㅟ’이면 ‘ㅟ’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ㅡ’나 ‘ㅣ’가 [ɪ]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ㅡ’이면 ‘ㅡ’, ‘ㅣ’이면 ‘ㅣ’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ㅅ’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람 → 사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ㅈ, ㅊ’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동기다, 안기다>양기다, 암캐>양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

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 (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깨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홍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ㅏ’와 ‘ㅑ’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썸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ㅑ>ㅓ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ㅓ>ㅓ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혜푸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ㅡ’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ㅓ’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물(馬), (팔), 다(밟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ㅈ>ㅉ’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ㄷ>ㄸ’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불(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깁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바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벙이다(배우다)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ㅏ>ㅘ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ㅓ>ㅚ : 구석>구삭, 흘청>홀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ㅣ>ㅝ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췌(할머니), 개비>게베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ㄹ. ㅓ>ㅜ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꾀, 꼬랑>피랑(도랑), 고>괘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ㅁ. ㅜ>ㅞ : 괴기>게기, 괴비>게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뵈시다>메시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ㅂ. ㅓ>ㅕ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뚝>궂뚝,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ㅅ. ㅞ>ㅟ : 꿩이>꿩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펙이>산토펙이, 께>궂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ㄱ. ㅂ>ㅍ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㉝.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접(버집)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㉞. ㄱ>ㅂ : 주걱>주벽, 옹구럭대기>옹구럽대기(미꾸라지)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㉟.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꿩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꿩사리(송사리), 등

㉞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㊀. ㄱ>ㅎ : 아곱>아흡, >, 숙->-(雄), 군지>훈지(그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⑩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양기다, 암캐>양캐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⑪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기다>앙그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⑫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㉞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⑬ ‘봉’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풀~소불(부추), 장팡~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㉞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⑭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물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⑮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팽풍(병풍), 팸나(밤낮), 풀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문차(먼저), 클씨(글세)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⑯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꾀(꾀), 웃(웃), 빗(빗)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⑰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다(걷다), 다(긴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소금생산은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바닷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였는데, 주요 제염법은 자염법(전오제염법)이었다. 갯벌을 이용하여 염전을 조성하고, 소금물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 가마솥에 소금물을 굽는 단계를 거쳐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먼저 소금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염전을 조성해야 하는데, 서남해안 지방에서는 따로 염전을 만들지 않고 높은 지대의 갯벌을 이용하였다.¹⁾ 염분 함량이 높은 개흙을 얻기 위해 조금 때를 이용하여 갯벌을 소가 끄는 씨레로 몇 차례 간다. 그리고 번지로 개흙 덩어리를 잘게 분쇄한 다음, 갯벌 근처 웅덩이에 저장해 둔 바닷물을 뿌린다. 이와 같은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여 개흙의 염분 함량을 높인다. 염분 함량이 높아진 개흙을 섯등으로 운반하여 소금물을 뽑아내어 벌막으로 옮긴다. 벌막 속에 장치된 소금가마솥에 소금물(간수)을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소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만든 소금을 자염이라 한다.

특히 서남해안, 전라도의 해안가는 매우 복잡한 굴곡이 있어 염전을 조성하기에 유리하다. 변산반도를 비롯한 도서해안 지역에 빨감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법성포·줄포(옛 곱소만) 등 각 포구에서 소금의 사용과 판매가 활발하여 제염업이 크게 번창할 수 있었다. 법성포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조기 파시가 형성되어 대량의 자염을 소비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잡힌 조기의 대부분은 법성포·줄포 등 인근 포구로 반입되어 굴비로 가공 처리된 뒤 전국 각지로 판매되었다. 특히 양질의 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순도가 높고, 맛이 좋은 자염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1910년 전후의 우리나라 자염 생산 현황을 도별로 파악해 보면, 전남 지역이 가장 많은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1억 4백만 근의 자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제염고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로 월등히 높았다.(유승훈 2008, 49~52)

그러나 1907년 인천 주안에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킨 뒤 소금 결정을 얻어내는 천일제염법이 소개되면서, 자염법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천

1) 동해안 지역에서는 갯벌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성이 적은 사구의 바다 쪽에 염전을 조성하고, 야산에서 적색의 찰흙을 운반하여 염전 바다에 깔았다.(김일기 2006, 47~53) 그 다음의 소금물 채취 과정은 서해안과 거의 유사하다.

일제염법은 불을 지피 소금을 구워내던 전통적인 자염법과 한동안 공존했으나 연료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생산량도 상대적으로 많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김일기 2006, 27~34) 1950년대까지도 자염법으로 소금을 생산한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제까지 염전 또는 제염법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고문헌에 기록된 지역별 제염법을 찾고, 전통적 자염법이 변화하는 모습과 추이, 소금에 얽힌 여러 민속을 고찰하였다. 이는 염전의 생활방식과 관련한 어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염방식은 자염법에서 천일제염법으로 변화하였고, 그에 따른 어휘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1950년대까지 자염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던 사람들이 거의 사망해 가는 시점인 현재, 우리 전통의 제염방식인 자염법에 관한 기초어휘 조사는 매우 시급하다. 또한 새로운 제염법인 천일제염법에 대한 것도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자염법과 천일제염법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는 민속생활어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금의 대표적 가공식품인 굴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 1] 염전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연번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1	염전	이정근	남	75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곶소리	전남 영광군 출신. 어렸을 때 영광에서 자염을 생산했으며, 30대 초반에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곶소리로 이사하여 천일염을 생산함. 지금도 염전을 소유하고, 염전일을 하고 있음.
2		이시성	남	83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전남 영광군 출신. 자염과 천일염을 생산한 경험이 있음. 염전에서 염부장으로 일함.
3		최대수	남	72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전남 영광군 출신. 자염과 천일염을 생산한 경험이 있음. 염전에서 염부장으로 일함.
4		김현웅	남	69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전남 영광군 출신. 영광굴비를 만들어, 청와대(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에 납품한 이력이 있음.



[사진 2] 이정근



[사진 3] 최대수



[사진 4] 이시성



[사진 5] 김현웅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10년 4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염전에 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염전에 관련한 문헌을 읽으면서, 염전에서 쓰는 어휘를 선정하여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6차례 진행하였다. 현지조사 방법은 제보자와 일정 기간(1박 2일 또는 2박 3일)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제보자가 염전에 대해 설명할 때, 조사자는 준비한 질문지 항목을 조사함은 물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지의 하위 항목 어휘도 조사하였다. 특히 사라진 제염 방법인 자염법에 대해 자세히 조사·수집하고자 하였다.

조사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세 부 추 진 계 획(월,일)	비고
1	문헌조사(4. 26. ~ 7. 1.)	
2	염전(전북 부안)에 관한 현지조사(7. 2. ~ 8. 3.)	
3	염전(전남 영광)에 관한 현지조사(8. 4. ~ 8. 18.)	
4	영광 굴비에 관한 현지조사(8. 19. ~ 8. 20.)	
5	염전에 관한 보충조사(8. 21. ~ 10. 1.)	
6	염전에 관한 동영상 촬영(10. 23.)	
7	조사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10. 2. ~ 11. 25.)	

2.3. 조사 지역

조사 지역은 예부터 소금 생산지로 유명한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로 선정하였다.

2.3.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있는 곰소만(옛 줄포만)은 지리적 입지조건이 좋아서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주요한 소금 생산지였다. 이곳에 자염이 많이 생산된 것은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고,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염전 조성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에 쌍선봉, 경수산, 옥녀봉 등의 산지가 발달해 있어서 연료 조달이 비교적 쉬웠다. 또한 소금 생산이 활발한 시기는 5~6월인데, 이 시기에 강수량이 적고 증발이 왕성하여 소금을 채취하기에 적당했다. 이곳 사람들은 이곳의 기후를 “초여름에 비를 쫓고 겨울에는 눈을 붙든다”라고 표현한다. 이 지역에서 자염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3백여 년 전으

로 추정한다.

곰소만의 어전이나 주목망에서 잡힌 조기는 굴비로 가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양의 소금이 필요한데, 만돌 부근의 넓은 갯벌과 풍부한 연료는 자염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김일기 2006, 27~31 참고)

2.3.2.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예로부터 삼백(三白)의 고장이라 하여 쌀, 소금이 많이 생산되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 염산면, 백수면의 해안과 현재의 해안 평야 지대는 조선시대부터 넓은 갯벌이 발달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어전어업과 염전이 크게 발달했다. 이곳에 자염 제염장이 많았던 것은 지형적 조건뿐만 아니라 부근에 수리봉, 갯봉, 봉덕산 등의 산지가 접해 있어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칠산어장의 중심지인 법성포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조기 파시가 형성되어, 대량의 자염을 소비했다.(김일기 2006, 31~34 참고)

2.4. 조사 장소

조사는 제보자가 일하는 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정근의 조사는 그의 염전과 집(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147)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시성과 최대수의 조사는 야월리 노인회관(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야월1구 553)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굴비의 제보자인 김현웅에 관한 조사는 그의 가게(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690)에서 진행하였다.

2.5.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명칭과 행위자, 제염 설비, 제염 도구, 제염 과정, 소금의 종류, 소금을 이용한 가공 식품인 영광굴비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	세부 조사 항목
명칭과 행위자	염전과 행위자 명칭
제염 설비	자염의 제염 설비와 천일염의 제염 설비
제염 도구	자염의 제염 도구와 천일염의 제염 도구
제염 과정	자염의 제염 과정과 천일염의 제염 과정
소금의 종류	자염과 천일염의 종류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영광 굴비)	굴비의 재료, 어로 도구, 제작 과정, 굴비의 종류

2.6. 조사 결과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가 직접 소금을 채취하는 과정은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염전의 조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염전		100	69	7/6	100	43	1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구술 발화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구술 발화

1. 자염의 제염 과정 및 설비

1.1. 이정근의 발화²⁾

@ 어르신 이렇게 흠에 있는 염분을 뽑아다 가마솥에다 구워가지고 소금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소금 이름이 뭐라구요?

#1 화렴.

@ 화렴. 화렴하고 발음하셨죠?

#1 예.

@ 근데 그 화렴을 만드는 방법을 뭐라 그러셨어요?

#1 그 과정이.

@ 그 과정은 말구요. 일단은 화렴 만든다 그러셨어요?

#1 그랬죠.

@ 그럼 이거는?

#1 천일염.

@ 천일염?

#1 네, 두 가지로 분류.

2) #1은 이정근의 발화 내용이다.

@ 어르신 그러믄 일단 제가 화렴에 관한 얘기부터 천천히 물어볼게요. 화렴이면 그 어르신 그것도 이렇게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고 허니. 바다 가에다 허거든요. 바다 가에 가서 조금 이 닥치믄 물이 거까지 다 안 들어와요.

@ 근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니 안 들어오는데. 그 속에다 구멍, 이 통을 팠어요. 바다 이 구멍을 파고, 땅을 잉~. 파고 그 데다가 나무를 이렇게 걸쳐서 다 해서 이 속에 움막을 만들었어요. 땅 속에다 굴이 들어 있어.

@ 예. 어르신 잠깐만요.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1 바다죠.

@ 그냥 바다? 바다 바다밭에 소금 만든다 그러셨어요?

#1 바다에서 화렴 굴 때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인자 그것보다 셋등이라 그래요. 셋등.

@ 예. 셋등.

#1 셋등인데 말하믄 그놈을 인자 굴을 파서 옥에다 인자 나무로 전부 집을 지어가지고 딱 덮어버리지, 흙으로 잉~. 싹 덮어버려. 안 보이게.

@ 예.

#1 그리고 안 보이게 딱 해 노믄. 이 조금 때 이렇게 뺨을, 저저 바다를 갈아 놔.

@ 뭘루요?

#1 소로.

@ 소 뭘로?

#1 쟁기로.

@ 쟁기로?

#1 예. 쟁기로 싹 갈아놨다가 인자 물이 또 많이 들면은 물 적실 거 아닌가요? 적시면 흙에 소금 분발이 펴요. 그러면 인자 그놈을 또 조금이 닳치잖아요. 그뎨 고놈 딱 몰랐을 때 그놈을 갖다가 셋등 우에다 올려놔. 구덩이 판 자리 우에다. 여 딱 싹 노면은.

@ 그걸 뭐라 그래요?

#1 셋등.

@ 궁께 셋등 우에 올려논 거는?.

#1 그냥 모으는 거. 흙을 그때 증발시켜 논 걸.

@ 모으는 작업을 뭐라고 하셨어요?

#1 그냥 굽어 모으는 거. 씨레로 그냥 굽어모으는 거죠. 소로 인제 모터 달아서. 모타서 싹 싹 노면은 물이 많이 들면은 그놈이 우리나라서 딱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여. 땅 속으로잉~. 빠져 들어가면 그것이 한 야튼 심도는 나와. 그것을 짚물이 들어왔으니깐. 하얀 놈 빠져서 들어갔으니깐. 그래서 고 놈을 질러다가 인자 이 솥을 만들어서 걸어. 걸어놓고 거다 부서놓고.

@ 거기를 뭐라 그래요?

#1 말하자면 그거가 철로 만들어서 천상 가마솥이라 그러죠. 가마솥에다 물을 부어서 불을 때는 거요.

@ 그러니깐 그 장소를 아까 별막이라 그러셨잖아요?

#1 예. 별막. 별막인데 가마솥에 인제 만들어서 딱 걸어서 인자 딱 해서 철판을 해가지고 가마솥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물을 질러다 부서서 불을 때요. 불을 때면 인자 도수가 인자 이십오도가 되어야 그것도 소용허는 거여. 때 가지고 막 불 때면 이십오 되고. 소금 앵개. 앙키게 되면 불 딱 꺼버려요. 꺼버리면 완전히 소금 되야 버려, 전부 물이. 그래서 육렴이 되어. 육렴이라고도 그러고. 쉽게 육렴이라고, 옛날에 육렴이라 허죠.

@ 화렴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1 화렴이고 육렴. 그놈이 인자 먹을 때 육렴이라 해. 우리 전라도 말로 육렴 그래.

육럼.

@ 육럼?

#1 화럼인데 육럼이라고도 해.

@ 음~ 그러시구나.

#1 육럼. 천일염.

@ 육럼, 천일염?

#1 그 재제럼. 재제럼이란 거는 소금을 녹혀서 허는 것이 재제럼이고.

@ 예. 재제럼이고 어르신 근데 그러면 바다에다 인제 땅을 갈았잖아요. 소로, 쟁기로 이리저리 땅을 갈았네요. 그럼 그거를 그때 그런 거는 염전이라고 안 불렀어요? 염밭이라고 부르거나?

#1 아~니요. 염밭이 그렇게 안 불렀어요. 섯등이라 부르죠.

@ 섯등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다른 명칭은 하나도 없고. 어르신 그러믄 인제 쟁기로 갈았어요. 쟁기로 갈고 그 다음에 인제 쟁기로 갈면 갯벌에 흙이 있잖아요. 그 흙을 뭐라고 불러요?

#1 그냥 천상 흙이죠.

@ 그냥 흙이요?

#1 흙인데. 그것이 인자 물이 들어왔다 썼다 하면은 인자 거서 짚물이 자꾸 흙이 배겨 있잖아요.

@ 그걸 그 흙을 뭐라 그러는데요?

#1 천상 흙은 흙이죠.

@ 따른 명칭이 좀.....

#1 명칭은 없어요. 흙을 인자. 개흙을, 갯벌이라고 쉽게 말하믄. 갯벌을 갖다가 놔 두면은 조금 딱치믄 흐켜게 분이 퍼, 인제 조금 때 물이 안 들어오니까, 높으니까 지형이. 물 많이 들 때만 들어오지. 조금 때는 여까지 못 덮어.

@ 그러믄 분이 핀다구요?

#1 예. 분이 퍼. 하얗게.

@ 하얗게 분이 핀다구요?

#1 예예. 그 소금 염분이 핀다는 거지. 소금 가루가 하얗게 피어요. 그럼 조금 때 인제 땅이 모를 것 아니여? 그니깐 물이 안 들어오니깐 그때 그 흙을 갖다가 딱 섯등에 다 모아요.

@ 그 어떻게 모아요. 뭘로 모아요?

#1 소로.

@ 소로? 그것도 소로 쟁기로는 뭐.....

#1 씨레. 씨레를 달아가지고 판자를 여다 붙이잖아요. 판자를 요렇게. 소 멩에 입혀서 이렇게 낚고 가서 올리는 거예요.

@ 소가 올리는 거예요?

#1 소가 끌어서.

@ 소가 끌어서? 이렇게 쓱쓱 끌어서 이제 올려논 거예요?

#1 그래서 싹 싹 놔 버려.

@ 다시 또 조금 때가 되면?

#1 아 인자 싸 노면은 거그서 물이 많이 들게 되믄. 그놈이 인자 소금물이 염분이 내려간다는 것이지. 땅 것, 거가 염분이 많이 섞여있지, 흙에가 잉~. 고놈 인자 까랑져, 바닥으로. 그믄 밑에가 굴이 있으니깐 그리 물이, 짠물이 들어간단 얘기지. 걸러서 들어가죠잉~. 그 놈을 물 안 들었을 때 통으로 길러다가 소금을 내는 거요.

@ 어르신 그러믄 섯등은 얼마 만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어요?

#1 삼백, 드물게 있었죠. 배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믄 한, 예를 들어서 말하믄 근방에 세 개 있드래도 땅은 저쪽에 널롭죠. 바다가 따로따로 있죠.

@ 그러믄 셋등 사이에 벌막이 있는 거예요?

#1 아니쵸. 가에로. 이 물 안 드는 데로 와야지.

@ 물 안 드는 데로.

#1 육지로 올라와야쵸. 물 쥐 불믄 베려 버링께 육지로 올라와야 거다 나무도 싸 놓고 고놈을 궁께 옛날 통으로 길러다가. 물지게로. 길러서 부서서 하는 거여.

@ 어르신 일단은 소로 쟁기로 갈았잖아요. 그 답에 그 흙을 다시 더 잘게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더 그냥 소로 쟁기로만 갈아?

#1 같고. 물이 다 형클어버리지.

@ 아니 그 더 잘게.

#1 빵구들 안 해요.

@ 빵구진 안 해?

#1 안 빵구, 안 빵가도 물이 출렁출렁 다 다시.

@ 뭐 번지로 갈았다거나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번지로 가는 건 안 그러셨어요?

#1 아니 쟁기, 쟁기.

@ 쟁기로요?

#1 쟁기로 갈아 노면은 물이 들랑날랑 도로 합산해서 이래 민들해져 버려. 쉽게 말해 염분 끼면서. 그러믄 인자 고놈을 갖다 올리는 거지. 갈아 났으니 떠 갖고 있으니깐.

@ 어르신 소금물이 잘 드는 셋등을 두 개를 놓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1 하나 앞에 한 개도 힘들쵸.

@ 하나도 힘들어요?

#1 지형이 좀 널뤄야 많이 흙을 모타다 많이 또 갈아났다 많이 모으고 그러니깐 벌막 이라는 거는 그 옆에 있고 그 옆에 있고 그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 물만 다 파서 길러

오니까. 여그도 있고 여그도 있고 조금 내는 데는 상관없단 말이야, 옆에가 있어도. 그러나 그 셋등은 좀 띠여 있어야, 다 지금 구역으로 요러게 있으니까. 최소한 한 천 평 그 정도 같아야 되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있어야 돼.

@ 그럼 셋등도 상당히 크겠네요.

#1 아~ 넓롭죠.

@ 셋등은 얼마 정도 만드는 거예요?

#1 셋등 만드는 거. 속은 얼마 안 크지, 그른게 한 조금 때마다 하니까. 계속 해서 조금 구니까 셋등 아마 평으로 말하자면 한 이십 평 가지면 될라나?

@ 셋등도 그렇게 커요?

#1 바다에 속에가 많이 커야 물이 좀 차지. 그놈 길러다 계속 구니까. 계속 물 쓰면 열고. 뚜껑 열고. 그럼 거 입구를 딱 막아버리니까. 물 안 들어가요. 흠으로.

@ 그러면 셋등 아래 구멍이를 따로 뭐라고 부르진 않으셨습니까?

#1 그렇게. 그런.

@ 그러니까 물 질러. 어디서 물 질러 와서.

#1 천상 셋등 속~에서 물 질러 오니까 그까이 에 몰라요, 우리는. 천상 셋등에서 이렇게 등에서 지금 등 속~에서 물 빼오니까.

@ 등이요?

#1 등.

@ 등에서?

#1 속에가 그러니까 옛날에 시방 속에다 전~부 나무들 딱 짜서 인자 소나무로 딱 움 집을 해갖고 그 놈을 덮어 놔, 흠으로 움막 덮어놔니까. 구멍, 물을 빼올 때면 반대로 놓고. 거그도 딱 덮어버려라, 안 차면.

@ 평상시는.

#1 예. 물 그래가 맹물 들어가니깐. 딱 물 못 들게 딱 막아 놓는 거여. 그리고 육에서 스며 들어서 짠물만 들어가는 것이지. 흠이 스며들어서.

@ 어르신 그담에 인제 그러믄 물지계를 지고 셋등에서 인제 소금물을 뭐라 그러ندا구요? 그 안에 있는 소금물을?

#1 간수라고 그러쥬. 소금물이라고 부르던가.

@ 평상시에 소금물이라고 그러셨어요? 간수라 그러셨어요?

#1 그거 뭐라 했는지, 펜야 소금 만드니깐 소금물이쥬.

@ 그러니깐 소금물 푸라 그랬어요. 아니믄 간수 퍼라 뭐.

#1 간수라 안 했지. 소금물 퍼오라고 그래야쥬.

@ 소금물 퍼오라 그러셨어요? 소금물 퍼가지고 인제 어르신 이거 벌막으로 가면 가마솥에 물을 직접 붓는 게 아니잖아요.

#1 그 옆에 가마솥 옆에 물이 구덩이가 또 있어요. 물 구덩이.

@ 물 구덩이 그걸 뭐라 불렀어요?

#1 천상 저장고쥬.

@ 저장고요?

#1 해주.

@ 해주.

#1 물 모으는 자리, 해주.

@ 예. 거기다 인자 물을 모아요?

#1 모아 났다가.

@ 그러믄 벌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1 이 가마솥 옆에가 바로 있어요. 그럼 고놈 떠서 차꾸 덧물을 줘야 혀, 또. 끓을 때 요놈만 끓으면 써서 못 먹잖아요. 그 이 물을 써 가, 자꾸 줘, 물이 닳아지는 족족.

@ 잠깐만요 어르신 그러니깐 벌막 안에 있는 해준가 하는 부분에다가 어르신 물을 물을 붓는 거예요? 옮겨서?

#1 부어놨다가.

@ 예, 부어놨다가.

#1 그놈이 막 까랑지면은 고놈을 인자 덧물 준다 그러죠.

@ 처음에는 가마솥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그러죠.

@ 처음에 비어 있으면?

#1 그놈을 갖다가.

@ 그 놈을 갖다가 불을 부어서 불을 때요? 불을 댈 다음에?

#1 때면 물을 더 줘야 돼.

@ 그거 무슨 물?

#1 덧물 준다고. 덧물.

@ 덧물을 줘요?

#1 여그도 덧물 줘야 험다 안 해? 여그 소금 내는 것도 덧물 줘야 돼. 등 나면 바로 좋은 물 넣어줘야 돼.

@ 등 나는 게 뭐예요?

#1 땅이 별거나 소금이 별리면, 그것이 오면은 소금도 안 오지만은. 등 나붙은 소금도 안 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이 나쁘면 사람이 와요. 못 먹는 사람, 그것은.

@ 사렘?

#1 소금 사렘이라 그러. 니가리라고 그러고, 일본말로. 우리는 사렘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와요. 물 나쁠 때, 등 나쁜. 전라남도는 그냥 와서 못 먹어. 미역 공장로나 들어가지. 미역 공장 그거 있어야 좋다 험디다. 사렘은 있어야, 쓰니깐.

@ 어르신 그러믄 인제 해주 있고 가미술. 그거는 흙으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어졌어요?

#1 철이요.

@ 철로요?

#1 철술이쥬. 철가마.

@ 철가마를 쓰면 그 가마는 이렇게 들 수 있는? 고정되쥬?

#1 고정되쥬. 끈 달아서 상당히 널으니깐. 한 네 평. 한 여섯 평 가량 돼.

@ 가마가요?

#1 가마가 여섯 평만한 놈에다가. 옥에는 옷집을 다 해놔으니깐. 옷집으로 이어서. 영으로 엮어서 이어서 나무도 다 걸쳐서잉~ 다 이어놔어. 비 못 들어가게. 그러면 이렇게 다 쇠로 연결되야 딱 묶어서 달아 매 놓는 거지. 그래갖고 옆에는 싸지, 흙을.

@ 예. 흙을 거기다 싸놓는 거기를?

#1 술을 만들어야지. 술을 거는 거여. 쉽게 말 하믄.

@ 그럼 그거 뭐라 불렀어요? 불 때는 데를?

#1 가마. 아궁지라 하믄 되쥬, 그러믄. 나무 있는 곳이니깐 가마, 아궁지.

@ 그 답에 인제 불을 때면 연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요?

#1 연기는 바로 나갔거든요, 만들믄 되지.

@ 만들어진 데 있었어요?

#1 아 그러쥬. 불 때믄 연기를 뽑아내야 현계 굴뚝으로 나가게 되야 있지, 그것이.

@ 굴뚝이라고 안 하셨죠, 옛날에는?

#1 옛날에 굴뚝이라 했죠.

@ 귀뚝이나 이런 표현.

#1 귀뚝이라 그래. 귀뚝이라 혀. 굴뚝. 사투리는 귀뚝이고.

@ 어르신 저는 어르신 예전에 썼던 말이 좋아요. 요즘 쓰는 말 말고.

#1 보통 귀뚝이라 그러지. 시골양반들 귀뚝이다 뭐 아궁이다 하고 부엌이다 그랬지.

@ 아궁이 안 하고 부엌이다. 부삭이다 부엌이다.

#1 부삭이다.

@ 뭐라 그러셨어요?

#1 부석이라기도 하고 막 그랬죠. 우리는 인자 예려서부터 학교를 대녘기 때문에 표준말 많이 썼죠. 옛날 어르신들 사투리 많이 쓰고 우리는 표준말 많이 썼고.

@ 어르신 그래갖고 인제 소금을 이렇게 가마솥에 구웠어요. 가마솥에 구웠는데 갖 구워 낸 것도 수분이 좀 있잖아요.

#1 인자 그놈을 구웠으면은 그놈을 인자 식혀요, 불을 안 때.

@ 아 근데 어르신 며칠이나 구워요?

#1 하루든 돼.

@ 하루 이십사 시간?

#1 네. 때야 돼.

@ 이십사 시간 내내 때요?

#1 예. 그래야 오늘부터 때듬 내일 아침에 와서 불을 꺼요. 끄서 물이 식으면 굵는 거 있어. 당그래.

@ 응.

#1 그 놈 굶어서.

@ 당그래 안 하셨죠?

#1 당그래.

@ 옛날에.

#1 당그래라 했어요.

@ 그러셨어요?

#1 당그래로 굶어서 그놈을 담어서 한 테다 놔요. 물 빠지라고 싸놔.

@ 예. 그거 거기를 싸논 테를 어따 시논다 그래요?

#1 땅에다 기냥 땅에다 싸놔요. 소금 모으는 곳이죠. 거다 인자 싸노믄 물이 빠지면 거기서 파는 거죠.

@ 그거 싸놓는 테도 벌막 안에 있는 거예요?

#1 벌막 한 테 옆에. 바로 옆에가 있지.

@ 바로 옆에 가마솥 옆에?

#1 예예. 그 바로 끄내 났다가 물이 빠지믄 파는 거죠.

@ 근데 거기서도 물이 많이 빠져요?

#1 그 침에 물 속에 건졌으니깐 물이 빠지죠. 물을 빼야 팔아먹지.

@ 응. 어르신 그러면 가래를 가지고 뭘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1 가래는 그땐 안 썼어요.

@ 가래는 아예 안 써보셨어요?

#1 안 썼지.

@ 어르신 그럼 쟁기하고 씨레하고?

#1 예. 그 두 가지 허고 물통하고.

@ 물통?

#1 그래갖고 인자 그 쓰는 용도는 인자 부엌. 나무 많이 필요허고. 나무는 계속 많이 들어가요. 그래 산에다 많이 비는 거여. 소나무 한 뭇이든 한 두어 번이면 다 끝나요. 두 번 뉘어 버리든 다 끝내, 아궁이가 크니깐.

@ 아궁이가 크니깐.

#1 너롭고 화력이 좋아야 빨리 빨리 증발되지. 그런 식으로 허죠. 우리 그런데 가서 많이 사왔어요. 우리 지게 지고 가서. 옛날에 지게 지고 가서. 쌀도 갖고 가고잉~. 그 전에는 그렇게 갖고 와서 사오는 거요.

@ 어르신 이거 그 물을 펴야 되잖아요. 섯등에서 물을.

#1 예.

@ 뭘로 펴요?

#1 바가지요.

@ 바가지로 푸셨어요? 가지로 펴가지고 어디에다 물통에다 담아요?

#1 예. 물통에다.

@ 물통에다 담아가지고 그래 옮기셨다 그랬죠?

#1 바가지 인자 지드란허게 저걸 담어. 나무 자루를 달아가지고 바가지에다, 짚은 데서 꺼내는 거예요. 구멍 열고 담어다가 붓고. 또 여그 술에다 부술 때도 그 바가지 글로 떠서 부서, 담아서 찾고 증발시키는 거여, 그래야 많이 남어. 부술 때랑 늘어남게. 예전 한 번 해서 땀다 허든 쪼끔 에 없지, 다 가버리고. 그렇게 자꾸 물을 부어줘야 돼. 자꾸 쫄아지게 자꾸.

@ 그 답에 어르신 인제 소금을 팔라 그러믄 어따 답아서 팔아요?

#1 거기서는 말로 되아서 팔았어요.

@ 말로 되아서?

#1 한 말.

@ 여기는 그럼?

#1 여기는 저울로 달죠.

@ 저울로 달아서.

#1 이십키로, 포장.

@ 어르신 그러믄 인제 소금물이 몇 돈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깐 이십오도 되야야 소금이 뜬다는 것이여.

@ 근데 그거는 뭘로 알아요?

#1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알지만은 뽀메로 달아봐요.

@ 비중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비중기 없을 때는?

#1 옛날에는 진짜 없을 때는 이 밥풀로 말레 가지고 고놈 가지고 딱 묶어서 노면은 몇 돈지 알 수 있어요.

@ 어떻게요?

#1 까라 앉으고 뜨고. 앉으믄 소금물이 좀 뜬다는 거요.

@ 아 이십오도가 되니깐?

#1 예예. 까라앉으믄 뭇이든지 다 떠요. 그것은 가라앉으믄 안해. 쉽게 말하믄 나락 종자 당굴 때 그 전 사람들 소금물 하거든요. 소금물 타가지고 거 다 침수를 시켰어요. 그럼 계란이 떠야 돼. 그럼 도수가 맞는다는 거여. 계란 떠야. 옛날엔 그랬다 험디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앉고 우리 있을 때는 뽀메가 생겼으니깐, 우리 배울 때는.

@ 어르신 근데 가마솥에 막 끓이다 보든 거품이 날 거 아니에요.

#1 예, 그러죠.

@ 거품 나쁜?

#1 거품 건져 버려야죠.

@ 뭘로 건져요?

#1 젓는 거 있잖아요. 주걱 같이 젓는 거. 가마솥 젓는 거. 젓어줘야 허니깐. 물을 흔들흔들, 주걱날로.

@ 계속 저어줘야 돼요?

#1 저야죠. 늘어 버리게. 언능 소금 다 될 때는 자꾸 젓어서, 뜨면 글로 떠서 내버리면 되지.

@ 어르신 그 담에 장작은 어서 구해와요?

#1 산에서 인자 딱 팔죠.

@ 산에서?

#1 산에서 나무 해다가 막 팔아서 먹고 살았죠. 모다들.

@ 그러든 인제 어르신 과정을 한 번 물어볼게요. 켈 먼저 이렇게 갯벌을 쟁기로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 뭐한다 그래요?

#1 쟁기로 갈아서.

@ 그거 뭐한다 그래요?

#1 섯등을 간다 그러죠.

@ 섯등 간다 그러셨어요. 아니든 밭을 간다? 바다를 간다 그래요.

#1 바다지. 섯등 옆에서 허니깐 섯등을 갈잖아. 섯등 우에도 갈아야 허니깐 바다도 갈아야죠. 바다를 갈아가지고.

@ 그러니깐 너 어디 가냐 그러믄 나 지금 뭐 하러 간다?

#1 그거 참 소 가지고 어드 가냐 하믄은 소금 내는 디 간다 하던가, 바다 셋등 갈러 간다 그러던가. 그러믄 말 나오기 쉽죠.

@ 그 다음 인제.

#1 셋등이라 소금 내는 자린지 아니깐, 옛날 사람들은.

@ 셋등. 그러믄 셋등 갈러 갔어요. 셋등을 가는데 쟁기로 갈았잖아요. 그 쟁기질이란 표현은 안하셨어요? 오늘 뭐하고 왔더니 되게 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 아니 선일했다 했죠. 선일.

@ 선일? 선일.

#1 소로 가는 거 보다 선일이라고 그래요. 선일.

@ 소로 가는 거 보다.

#1 옛날 말로 논 가는 것도 선일한다 그래요. 선일.

@ 논 가는 거 뭐예요?

#1 천양 논도 소로 갈았잖아요. 그러니 못 해? 선일했어 그러지.

@ 소로 가는 걸 “선일했어” 이렇게 표현해요?

#1 예. 사투리말로 허는 거죠. 쟁기질이라 얹고 선일한다 그러지.

@ 그 답에 인제 일단은 했으면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니예요. 그거를 뭐 한다 그래요?

#1 밀물.

@ 밀물 들어온다 그래요?

#1 밀물이라고 허죠. 물 들어온다 허죠. 물 들어온다 그러믄 되죠, 조금 인자 산짐. 산짐 조금 그랬어요. 물이 많이 들 때는 산짐. 조금 때는 조금. 옛날말로 지금은 그렇게 안 쓰지만.

@ 그니깐 물이 정말 많이 들어올 때는 산짐. 그럼 산짐 때 물이 들어오는 거네요.

#1 많이 들어오죠.

@ 인제 조금 때는 나가는 거고?

#1 나가서 인자 가까이 못 들어오는 거고.

@ 못 들어오는 거고.

#1 물이 적어지니깐.

@ 그럼 바다가 상당히 높았겠네요.

#1 높은 편이죠. 높은 곳에 있으니, 바다 가에가 있으니깐.

@ 어르신 그답에 이렇게 인제 밭을 갈아서 이렇게 산짐 때 물 들어온다 그래요? 물이 들어와서 인제 조금 때는 지가 나가불고 못 들어오는 거니깐.

#1 계속 들랑 달랑 들랑 달랑 허다가 조금 때는 못 들어오니깐, 그것을 인자 감이 나죠.

@ 감이 나다?

#1 염분이 생기는 거요, 하얗게. 그렇게 되믄은 조금 때 물이 못 올라 오믄은 난중에 모를 거 아니에요, 흙이. 말리면은 그것을 크게 분이 펴요. 염분이.

@ 그러니깐 감이 난다는 것은.

#1 말랐단 소리지.

@ 개흙이?

#1 개흙이 말랐단 소리지. 감이 났다는 소리.

@ 감이 났다는 소리는 개흙이 말랐단 소리고. 그답에 하얗게 인제 소금기 입힌 것을 분.

#1 염분.

@ 분이 찢다고요?

#1 분발 찢다.

@ 분발 찢다구요?

#1 염분이 찢다는 거죠.

@ 그런걸 뭐라 그런다구요?

#1 그것보다가 인제 염분이 찢다 그러죠.

@ 아니 평상시 예전에 옛날에.

#1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 했지요.

@ 분발 찢다는 게 어떤?

#1 분발이나 저저 염분이나 찢다는 게 그 하얀, 성애가 켜다는 거나 그렇게도 허고 그렸어요.

@ 그 답에 인제 구멍에서 이렇게 물을 올렸잖아요. 그거 뭐 한다 그랬어요?

#1 간수 질러온다 그래야 돼.

@ 간수 질러온다고.

#1 예.

@ 그러면 일단은 간수를 질러오면 어디서 부력은 측정해요?

#1 천상 그 솔. 뭔가 솔에서 구워야죠.

@ 그때 하는 거예요?

#1 질러다가.

@ 그러면 인제 별막에 크게 해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1 예예.

@ 해조에다가 해조에 물을.

#1 물을 저장해야죠.

@ 저장했고 그 담에 인제 불을 때면 불을 때면 인제 소금이 이렇게 거. 거품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버쿰이라 했을텐데, 전라도는.

#1 거품이라. 천상. 거품이죠.

@ 버쿰이라 그랬죠?

#1 버쿰이라도 그러기도 하고. 저기 버쿰 있네.

@ 어르신 그러면 불을 뺐으면 이렇게 물은 다 날라가고 하얗게 됐잖아요. 그거 뭘 한다 그래요? 소금이 하얗게. 소금은 하얗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마솥에.

#1 소금 다 되 다 그래야죠.

@ 소금 다 되었다고.

#1 옛날말 그냥 정제가 다 되었다 해야 되는데. 그때 말이 소금 다 되었다. 불 꺼라. 그러면 불 꺼버리면 그것이 인제 물이 식게 되면 소금만 건져 내는 거죠.

@ 물이 식어요?

#1 뜨거우면 못 끄집어 내니까.

@ 어 솔이.

#1 식어야지.

@ 솔이 식으면 인제 꺼냈어요 인제 당그래로 이렇게. 당그래로 해가지고 빼. 꺼냈어요. 옆에다가. 근데 어르신 그러면 인제 그게 아까 어르신 그러셨잖아요. 이게 수분이 많으니깐 아무리 구워냈어도 뭘 해야 된다고요?

#1 물을 빼야 되죠. 따로 모타야서. 굽어서 땅에다 모타서. 땅에다 모타. 땅에다 모든

자리가 있어요. 그 옆에다 모타 놔두고 물이 다 빠지면 말로 되어서 파는 거죠.

@ 그담에 어르신 그러면 인제 우리 염밭 셋등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죠.

@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1 쥘~이라 그래. 소금 현께 쥘~이라 그래야죠.

@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1 아. 천상 그 사람하고 인제 일 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야. 혼자 해도 다 하니깐.

@ 아 그래요?

#1 물 길어다 놓기도 하고. 또 하나 시키믄 저기 또 잡부도 있고 그래야죠, 있기는.

@ 뭐 따름?

#1 판 거는 별로 없어.

@ 쟁기로. 소로 쟁기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1 샅을 주어서 하니깐.

@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은 따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1 아무나 데려다 하니깐, 소 톱 나는데.

1.2. 최대수, 이시성의 발화³⁾

#2 염전 허기 전에 옛날엔 여기가 화렘으로 했었어, 화렘.

@ 화렘이요? 화렘이란 게 있었어요?

#3 화렘.

3) #2는 최대수의 발화 내용이며, #3은 이시성의 발화 내용이다.

@ 화렘. 그리고 인제 햇빛에 말리는 것이?

#3 응?

@ 햇빛에 말리는 것이 천일염?

#3 그것이 천일염이지. 우리가 불 때서 거 화렘이고.

@ 어르신 계절에 따라서 바닷물, 갯물 염도가 다르잖아요.

#3 아 그래. 그거는 어쭙구하나든 평소에 인자 바닥에 들은 물이 육지까지 와서 딱 염도가 두도.

@ 두도?

#3 그래 갓고 염전에 빠지게 만들어갓고 장판 깔고 그래갓고 그 두도짜리를 깔아. 그러믄 열광이 나믄 내일은 석도가 되고. 모레는 녁도가 되고. 그러면 이십오도까지 만들어, 물을. 날마다 허는 것이. 이십일 만들라믄 한 이십일 만들어. 그래갓고 이십오도 되믄 그 물을 갖다 염판에다 깔아. 그러믄 이십칠도 되믄 그날 소금이 와 부러.

@ 예.

#3 소금 건지지.

@ 그러면 계절별로 언제 만든 소금이 제일 좋아요?

#3 우리가 알기론 거시기. 제일 좋은 소금은 음력 유월까지.

@ 음력 유월까지. 몇 월부터?

#3 여름에 난 소금 제일 좋지.

@ 거기 소금을 따로 뭐라고 부르고 그러진 않아요?

#3 어?

@ 음력 유월까지 난 소금 제일 좋은 소금을 따로 뭐라고 부르진 않아요?

#3 유월달에 난 것이 젤 좋다고 그러지. 찬바람 나믄 인제 맛이 떨어진다고 그래, 우

리가 알기로.

@ 그 답에 인제 어르신 옛날에 그 갯벌에서 이렇게 소금 만든 거 그거 인제 제가 여쭙보게요. 일단은 갯벌에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들어올 건데. 갯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3 아~ 그것은 어쭙게 하나든 음력 조수가 한 달이든 거시기 두 번씩 바까져. 보름 여섯물 그믐 여섯물. 그럼 조금 때는 그거 갯벌을 모아서 놓을 데가 조금에는 물이 안 들어. 그런게 그때 갈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화렴을 만들어.

@ 어르신 그러면 그 갯벌을 우리가 갯벌이라고 안하고, 소금 만드는 갯벌이라 그래서 따로 명칭을 붙이진 않았어요?

#3 아. 그런 것이 없제.

@ 그냥 갯벌 그러면.

#3 그냥 화렴 만들을 때에는 갯벌을 인자 물이 안 드니까. 빨땅에 물이 안 들고 간판에 딱 뜨니깐 그걸 갈아가지고 말려갖고 염전 물을 만들어서 화렴을 만들지.

@ 잠깐만 그러면 어르신 인제 갯벌을 어떻게 갈아요?

#3 응?

@ 갯벌을 어떻게 갈아?

#3 거시기 씨레 같은 것으로 뒤집어 영고 살살 가든

@ 뭘로? 씨레. 씨레로? 사람이 뒤집어요?

#2 아이 소.

#3 아이, 소. 사람은 안 되지.

@ 소로 이렇게 씨레?

#3 씨레 같은 것으로 응용.

@ 쟁기로 뒤집어요? 씨레로 뒤집어요?

#3 쟁기론 안 돼. 씨레 같은 거 있어. 뒤집는 거. 채 갖고 그러믄 원래 흙을 몰려 갖고. 소금을 인제 딱 몰려 갖고. 그럼 염도가 많이 나가. 그레 모아갖고 물을 거그다가 딱 만들어. 물을 뒤 잔물을 흘려, 밑으로. 그럼 그거 떠다가.

@ 어르신 그러면 인제 물을 모으는 데 뭐라 그래요?

#3 셋등. 셋등.

@ 어르신 그러면 셋등은 얼마나 하게 만들어요?

#3 그거 셋등은 한 오십평씩 되지. 크게 일렬로 거그다 물 떠 부시믄.

@ 그럼 셋등은 어따 만들어?

#3 어?

@ 셋등은 어따.

#3 그 자리 그 거 있어. 셋등, 빨 가는데 그 자리 다 있어. 그 전에는 여러 개여. 뒤에도 있고, 화렘 구운 디는 다 있어.

@ 그러믄 셋등을 만들 때 한 오십평 정도 되게 크게 파요?

#3 파잖애. 흙을 이러쿵 몰린 놈을 굽어 모아갖고 딱 눈에 물 실테끼 여기다 실으믄 밑에 물이 흘러내려.

@ 그러니깐 밑에 흘러 내릴라믄 구덩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 구덩이 있지.

@ 그 구덩이는 얼마만 해요.

#3 구덩이? 한 두어 평씩 되제.

@ 두평씩 돼요? 그럼 인제 구덩이 위에다 어떻게 해요?

#3 구덩이 그 놈을 물 파네다가 물 그놈을 데다 거기 화렘 굽는 디로 어지를 만들어. 집을 지어갖고.

@ 잠깐만요. 나는 지금 구멍이 있는데 흙 덮으면 구멍이가 막혀볼 거 아니에요?

#3 아이다. 뭐시 그런데 그냥 석반이 같은 거 나무로 짜지. 이러쿵.

@ 짜요?

#3 아,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면 거기서 뜨제.

@ 짝 짜요?

#3 쪽박 같은 거로 떠.

@ 잠깐만요. 짝 짤 다음에. 그 소나무로 나무를 짤어요.

#3 응 짜갓고.

@ 소나무로 나무를 짝 짜가지고 인제 덮었어. 그답에 인제 썬기 썬레로 흙을 뒤집었잖아요.

#3 응.

@ 썬레로 흙을 뒤집었으면.

#3 모아 영고, 요령고 셋등을 모아.

@ 셋등 위로 모아요?

#3 모아갓고 그 저 우에도 물 너른 밑에로 나무로 짜갓고 흘러서 어드로 안 가게 그 자리만 딱 이령고. 우리 물 부수든 수돗물 맹으로 떨어지테끼. 그러면 고놈 딱 질러다가 화렴하는 데로 가게. 그래 갓고 그거 그래 소금 되는 것이여.

@ 잠깐만요. 어르신 그러면 셋등이라는 표현 말구요. 내가 나 지금 그 갓벌 갈러가요?

#3 어 갓벌.

@ 나 갓벌 갈러가요 지금. 갓벌 갈러 가는데 “자네 어디 간가?” 그리고 물어보든 뭐라 그래요?

#3 어?

@ 자네 어디 간가 그러면? 뭐 하러 간가 그러면?

#3 거시기 화렴 일하러 간다 그러지.

@ 화렴 일하러 간다고?

#3 응.

#2 벗집이라 그래. 벗집이라 그러거든. 인제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사릿발 있 걸랑요. 그럼 사릿발은 이 바다가 등이 높은 데라. 사릿발은 물이 갯물이 다 떠요. 이 빨 빨바다에. 물이 다 썬. 조금에는 물이 안 썬. 물이 적게 드니까. 그럼 짠 기운이 든 그 바닥을 갈아. 소로 갈아가지고. 사릿발을 조금에 갈아. 그믐 그것이 갈아 뒤집어 노믐 하얀 태양빛에 물이 안 썬니까 인자 염꽃이 피어요. 그 간 그계. 그믐 그것을 씨레로 인자 모아. 그래갖고 셋등을 만들어. 등을 만드는데. 골을 파, 배수로틀. 그 우에 인자 흙이 안 묻히게. 물을 부면 빨리 내려 오것게. 인자 소나무 앞으로. 소로 캐갖고 썬서 그 우에다 갈아 옆으믐 제대로 썬 흙을 씨레로 인자 소로 해서 전부다 올려, 등을. 이렇게 셋등을 만들어. 이래 등을. 이거 편각에서 이렇게 만들어, 등을. 씨레로 올려갖고 등을 만들어가지고 물 지픈 데서 인자 물탱크가 있어. 바닷물 저장하는 데를. 인제 그 기계 놓고 그 씨레 소금발 하얗게 썬 흙을 모아서 셋등을 만들어서 통으로 질러다 거기다 부셔. 그러면 그 소금발 피었던 그 물이 소금물로 해서 인자 흙 속으로 빠져. 그믐 이렇게 부엌마냥으로 이쪽에 되겠지. 인자 소금 탱크가 밑으로 빠져. 지우러져 됐으니깐 그 물이 빠지고 빠진 놈 해서 여서 같이 저다 인자 벌막 안에. 인자 안에서 저 소금 붓는 철판 탱크가 있어갖고 거그다 화렴으로 하는데 철판으로 불을 때서 소금을 걸어내.

@ 응. 어르신 그러면 갯벌에 있는 소금꽃. 그 염꽃 썬 흙을 따로 뭐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2 따로 그 뭐라고는 부르진 않고. 그때는 씨레로.

#3 빨소금. 빨소금.

#2 그거 제일 먼저는.

#3 그때는 빨소금 씨레로 쓸어다 먹었어.

#2 제일 뭐시라고 빨소금이라 그러거든. 빨팡 안에 사릿발에 바닷물이 썬고 나면 조금에는 거기서 밑에서.

@ 예. 말씀하세요.

#2 빨소금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뼈끔뼈끔 그 염기가 올라오는 것이 있어. 하애. 그믄 이거 밀었다고 이렇게. 그거 빗자루로 싹싹 쓸면 그것이 모터져요. 그럼 그걸 갖다 소금 나기 전에는 옛날엔 그걸 소금 비싸니까 화렴은 비싸니까 그걸 쓸여다가.

#3 물론.

#2 물에다 담갔다 밑에 깔아주는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기만 떠서 쓰고 밑에 남은 것은 인자 흙이 있어. 저것이. 그렇게 해서 옛날에 썼어요.

@ 어르신 그러면 빨소금이라는 것도 있고잉~.

#2 예.

@ 그 답에 그러면 그 갯벌에서 소금끼 모든 흙을 따로 뭐라고 부르진 않으셨단 얘기네요? 그냥?

#2 그냥 빨이지 인자, 그것이.

@ 그냥 빨이고.

#2 거그서 새는 것이 빨소금이지, 인자.

#3 그거는 진짜 있제, 그 진짜. 옛날에 다 그거 먹었지.

@ 예. 그러니까 소금꽃이 정말 많아진 흙이 있고, 그냥 염 갈아논 빨도 있을텐데 그거 두 개를 구분해서 부르진 않았다는 거죠?

#2 구분은 없고.

@ 예. 그답에 인제 어르신 셋등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어르신 말씀한대로 해보면 여기가 땅이 있으면 일단 여기다 구덩이를 만들고요. 그답에 여기다 소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뭐라 그래요? 여기?

#2 그니까 셋등이라 이것이.

@ 이걸 그냥 다 모조리 셋등?

#2 요걸 셋등이라 그래.

@ 모조리 셋등, 그답에 이 위에 이렇게 이제 개흙을 올린다면서요.

#2 아 인자 써레로 인자 빨아야 이것이 인자.

#3 흙을 모아.

#2 흙을 모아서. 여기다 연겼으니깐. 연그믐 인자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그 흙을 모았으니까. 그 염도수로 빠지게 할라믐 여기다 물을 대면 뽅뽅하게 만들어, 우에를. 그럼 인자 이런 식으로 되었을 거 아니야.

@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2 그렇게 했으면 여 각목으로 이거 인자 셋등이여. 그럼 셋등 요 아래다가. 요렇게 해서 인자 나무를 쓴다고. 요렇게. 그래야 이 똑이 있지. 여기다 바닷물 탱크에다 담아논 질러다 부쉬. 조금에 해 뜬 그 물.

@ 예.

#2 염분 다 말랐던 그 염분. 갈아 뒤집어 얹은 그 빨이 소금물이 여 다 싸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껍게 싸져. 얇게 싸덜 않지. 두껍게 원래 흙을 전부다 그믐 그 육에다 물을 바닷물 부면 그 염기가 옴로 해서 싹 빨아서 켜켜로 내려와.

@ 그러니깐 이 구멍 전체를 뚫어논 게 아니라. 여기만 뚫어져 있어요?

#2 예. 요렇게만.

#3 한 가지만.

#2 요리서 흘러서 내린다 그말이여, 물이 인자.

@ 아~ 그니깐 소나무관 여기 관 자체가 어떻게 비슷하게 돼 있고.

#2 그렇지. 여 밑에 있고 여 짤 물이 이 흙에 먹었던 간수가 옴로해서 빠지믐 여가 탱크가 있지. 요렇게 인자 깊이 파서.

@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 데를.

#3 염구텅이지.

@ 따로 부르진 않으셨구요?

#2 염구텅이라 그래요. 그 인자 간수 빠지는 데 염구텅이라 근디.

@ 잠깐만요. 뭐라구요?

#3 염구텅이.

@ 그답에 인제 어르신. 그러면 아까 여기 염구텅이에다가 소금물을 갖다 일일이 다 붓는다면서요.

#2 바닷물을. 이 갈아엮은 요 인자 논같이 만들었으니까. 전부다 여 씨레로 해서, 이 툇을 만들어서 우리가 등지로 이렇게 집만치로 만들어서. 끝개로 요걸 전부다 인자 짠 물을 우에 염분 묶인 흙을 모타서 그럼 육에 가에가 물을 실어. 그 물을 빨라니까. 빨라픈 가에 툇을 만들어 둔께. 가운데가 요렇게 해갖고.

#3 짜게 만든단 말이여. 맹물을 짜게 만든단 말이여.

#2 여 우에다 인자 물을 붓는기라.

#3 물 짜게 나와. 짜.

@ 바닷물은 어서 질러 와요.

#2 바닷물은 사릿발 때 물 푸는데. 사릿발 때 그라픈 물 쟁여져 있어.

@ 잠깐만요. 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릿발 때 바닷물 쟁여놓는데 뭐라고 불러요?

#2 그때는 뭐라 그러지.

#3 어디?

#2 웅덩이라 그러지? 웅덩이?

#3 뭐 보고?

#2 아이 우리가 이 그 저 셋등에다 물 바닷물 저장하는 것을 그때.

@ 셋등에다가 부을 바닷물 저장해 논 데를 뭐라 불러요?

#3 그냥 거 저장. 저장하는 데는 거시기지.

@ 아니.

#2 벗집 말고.

@ 그 말고.

#2 셋등 만들어 질여 우에다가.

@ 바닷물 위에 셋등, 땅 평평하게 해놓고 바닷물 거기에 붓는대면서요.

#3 아 그거 보고 셋등이라 그래.

#2 요건 셋등이고, 그것을 그냥 그 저 가만 있어. 물 질러다 보통. 그거를 그냥 자연이 집중돼서 퍼다 부스니께. 퍼다 그 잔물 고인데서 집중돼가 있을 거 아니여. 이렇게 따로. 짙은 데를 퍼냈겠지.

#3 그 물을 잔물을 만들라고.

@ 잔물 만들라고. 그러니깐 그 따로 이름 부르진 않고 그냥.

#2 예예.

#3 아까 내 말 들어봐.

@ 예.

#3 아까 일도에서 이도 삼도 이십오도 되니, 근데 요물이 식은물이거든. 그로코롬 소금물이 된단게, 한 이십도나 되야. 그러믄 그거 갖고 소금 만들어야지.

@ 예. 그게 이게 그러면 이 안에 구멍이 있는 물이 한 이십도는 나와요?

#2 여기 여서도 이십도도 넘지. 여 탱크에서 만들면.

@ 어르신 그러면 셋등에다가 이렇게 써레로 흙을 갖다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뚝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러지.

#3 셋등 몰래 갖고 모아갖고 뚝을 딱 해서 물이 바깥으로 안 내려가게.

@ 안 내려가게.

#3 아무따 뚝을 만들지. 그래야 물을 담아 노면 그것이 염도가 일도물이 한 십도가 되갓고 밑으로 흘러 내릴 거 아니요. 그 말 그거 이해를 잘 해야 해.

@ 이해는 했어요. 어르신 그러면 우리가 쟁기 썬레로 이렇게 갓벌에 가는 거를 뭐 한다 그래요?

#3 썬레질.

@ 썬레질?

#2 모태는 것은 썬레한다 허고. 쟁기로 갖다, 바다를 저 흙을 뺄을 갈아 입히거든. 쟁기라고. 그니깐 썬레. 큰 요것을 굵어 모태 때도 인자 이 포크레인 같은 것도 포크레인. 저 미래 같이 그렇게 날라 모태던 그런 식이여. 나무로 만들어갓고 소가 끄집어. 그먼 물로서 흙을 갖다가 모은다고.

#3 모아. 모아.

@ 모았어요. 모아서 뚝을 만드는 거.

#2 셋등을 만들어.

#3 뚝으로 셋등을 만들어.

@ 그래서 셋등, 뚝을 만들어서 등을 만든다.

#3 그래 만들라고.

#2 뚝이 아니라. 등을 만든 게. 어떻게 쪽 여기를 갈아서.

#3 요식으로 하다가, 여식으로 해. 갓을 딱 뚝을 만들고. 뚝에다 나무 깔고 여그다 물 부시면 흘러내리면 짠물이 되야.

#2 여가 다섯평이면 한 오십평이 될 거 아니여. 오백평, 이백평이나. 이 강변 바로 바다가 널널허니까 싹 갈아. 염기를 인자 갈아서 그냥 바로 시켜서. 셋등을 여 중간에서 요걸 여기서 전부다 여기다. 사방에 동서남북 해서 여걸 모든 거라, 소로 해서. 이렇게 그때 포크레인 없고 그런게 지게질. 소로서 등을 만든 게. 그래 셋등을 그렇게. 등을 만들어서 젓다 물을 부어서 그 짠물 나온 놈을, 배수를 해서 나온 놈을 질러다. 인자 화렴.

#3 여기 젊은 사람들은 설명 못해.

@ 예예. 어르신 그럼 인제 혹시 어르신 이런 표현 안 들어보셨어요?

#3 어?

@ 셋등에 사릿대 도랑에 물 모아논 것을 둔병이나 외얏이나 메기라는 말 안 들어 보셨어요?

#3 자연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쓰고 들고.

@ 그니깐 해수. 바닷물 모아놔던 데를 둔병이나 외얏이나 이런 표현 한번도 안 써 보셨어요?

#3 그래 염구텅이지. 염구텅이.

@ 염구텅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르신 그담에 인제 염구텅이 안에 소금물이 짝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금물을 뭐라 불러요?

#2 어디 간수?

#3 간수.

#2 요쪽 빠진 것을 간수라 그래요.

@ 거기서 빠진 것을 간수?

#2 셋등에서 빠진 것을 간수라 그러.

#3 간수. 다 간수.

@ 어르신 그 담에 인제 간수예요. 그러면 인제 셋등에서 간수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2 꺼내지. 이렇게 물이 흘 으니 밑에가 탱크가 있으니까, 짚이 판게.

@ 그니깐 여기 어디 어디에서.

#2 그니깐 여기가 있지. 그래치면 여 밑에가 파져 갖고 있지, 지피.

@ 그러니깐. 거기 간수가 모아지기는 했는디.

#2 모아졌지.

#3 모아져야지.

#2 여그 간수를. 여 간수를.

@ 인제 그 간수를 저기 가서.

#2 인제 벗집으로.

@ 벗집? 벗집?

#2 벗집. 소금 굽는 소금 탱크가 철판으로 만들어서. 인자 부목으로 붙을 때.

@ 거길 뭐라 그래요?

#2 벗집이라니께 벗집.

@ 어르신 근데 벗집으로 갈라든 간수를 펴야 될 거 아니에요.

#2 간수를 통으로 질러다가.

#3 질통.

#2 질통으로 질러다가 갖다 부서.

@ 질통으로 갖다.

#2 물지게 저 다.

#3 물지게.

@ 어르신 근데 그러면 셋등이 이렇게 딱 막혀서 있는데 어서 간수를 질러요?

#2 여가 물이 요리 빠졌으니까, 손으로 물을 갖다.

#3 여다 부서지지.

#2 여다 간수가 인자.

@ 그러니깐 간수가 가뒀어요. 인제.

#2 응.

@ 간수가 가뒤편인데 어디 여기 구멍이 있어야지 뭘 꺼내지.

#2 여 밑에가 탱크를 만든다니께. 여 셋등.

@ 아니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인제 질통에다 물을 질러야죠. 간수를 질러야 돼죠.

#2 그리고 인제 거 빠진 거. 여 밑에 빠진 고여 있을 거 아니야. 물을 저장하면. 여걸 줘.

@ 어르신 그러면 여기 구멍이 어디 나 있어요?

#2 거 여 밑으로 뚫어놔야죠. 여 밑에 여기서.

#3 만들라고 해놓고 물 빠지잖게?

#2 이라니께 물을 여가 있을 거 아니여.

#3 그래 노면 안 되지.

#2 지금 소나무 해노면 옥에로 흙이 전부다 있어. 왜냐면 물을 빨라면 잔물을 빨랑께. 요것이 켈 밑에가 있어. 요것이.

@ 예예.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2 인자 나무로 해서 흙을 전부다 해갖고 요 물이, 인제 전부 다.

#3 한 테로 모아져.

#2 한 테로 모태갖고 여가 깊이. 그 간수 담는 통이. 그면 그 간수를 질러다가 인자 밑지게로 쳐다가 벗집으로 가. 벗집 탱크로 가서.

@ 벗집 탱크는 뭐라. 뭐예요?

#2 소금판이죠. 철판으로 그때 만들어. 그래 거기다 갖다 부어.

@ 부어요?

#2 그 물을. 응.

@ 부으면 인제 그냥 곧바로 물지게 해서 벗집 안에 들어가서 소금 소금판에다.

#2 부어.

#3 부어. 부어. 그리고 불 때.

@ 철판이라고 불렀어요?

#2 벗집 철판 거그다 부서.

@ 벗집 철판에다 부서요? 그래서?

#2 그라고 불 때. 밑에서 불 때서. 화목으로 때서 인자.

#3 거 화렴.

@ 화목으로 때는데 어르신 그거는 얼마나 때요? 일단은 간수니깐 때야지 소금이.

#2 그러지. 소금을 궁께. 인자 소금을 인자 하루정도 때. 하루정도 때면 소금이 와.

#3 물이 쫄아지면.

#2 쫄아지면 소금이 거기서 인자 그대로. 살살 한쪽으로 걷어.

#3 물이 어느 정도 소금이 오면 짝 주걱 같은 것으로 긁어서 이리쿵 모아.

#2 그래서 걷어. 그리고 딱 이렇게 걷어서도 큰 탱크니께. 그래서 여서도 걷어도 모태고, 찌서 잡아들이면 네 군데 등을 만들 거 아니여, 벗집에서도. 그믄 물 빠지면 그 소금을. 그렇게 해서 소금 인자 창고가, 벗집 아래가 인제 소금 쟁이는 데가 있어. 거그다 쟁이고. 또 물 걸르믄 요거 물이 닳아졌을 거 아니야 화목을 땀으니깐. 그믄 그 간수를 또 질러다 거기다 보충을 해. 십센치믄 십센치. 이십센치믄 이십센치 그렇게.

@ 어르신 잠깐만 그러면 완전히 빠짝 마른 것이 아니라.

#2 어 그렇게 안 해.

@ 빠짝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을 넣고 이렇게 소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걷어내고.

#2 걷어내고 전부다 말리고.

#3 또 또 그 물 갖다 또 또.

@ 어르신 그러면 벗집은 날마다 불 때고 있겠네요?

#3 어?

@ 벗집은 날마다 불 때고 있는 거?

#2 그 불이 있을 때는 때고.

#3 저기는 한 번 들어가면 확 몇 년이고 그 집이 있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 어르신 그 담에 그러면 벌막 안에도 물을, 그 벗집 안에도 인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 구덩이가 있어.

@ 구덩이 있죠.

#3 또 잔물.

@ 잔물 놔둔 구덩이가 있어야.

#3 거그다 붓어다 저장해갖고 비가 와도 비 안 맞게 해놓고. 날마다 불 때. 그 소금 만들어.

@ 어르신 그 간수 모아논 데를 뭐라 불러요?

#3 어?

@ 간수 모아놓은 구덩이를?

#3 염구덩이랑께.

@ 거기도 염구덩이?

#3 어. 그럼.

@ 아무데나 염구덩이?

#3 어?

@ 그 셋등 밑에도 염구텡이라면서요?

#3 아니 소금물 빠지니께. 펜야 그 물이 그 물이지.

@ 궁께 다 염구텡이라 그랬어요? 어르신 그담에 불을 열심히 땀어요. 불을 열심히 때 가지고. 때 는 데를 뭐라 그래요?

#3 불 땀다 그러지.

@ 불 땀다 그래요? 화목 가지고.

#3 응.

@ 화목 가지고 불을 때가지고. 그러면 불을 땀라면 굴뚝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 응?

@ 굴뚝.

#3 굴뚝도 있지. 굴뚝도 되고. 아 똑같애, 밥 해묵는 굴뚝이고. 또 냉기 나가는 데 있 고.

@ 여기서는 옛날에.

#3 기뚝이지, 펜야. 기뚝 연기 나간다고. 그 보면 알아. 소금 굽는데. 연기 나는데.

@ 어르신 그 담에 인제 우리가 인제 소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거 저장해논다고 그랬잖 아요. 저장해놓는 데를 뭐라 불러요?

#3 염창고.

@ 염창고?

#3 어.

@ 어~ 염창고에 근데 벗집이 그럼 상당히 컸나 봐요.

#2 아유 크지.

#3 크지.

#2 그 안에서 벨일을 다 허니께, 이 가마솥이 이보다 몇 배 더 크니께.

#3 이렇게 여~ 여 방만 해.

@ 가마솥이 방만 해요?

#2 가마솥이.

#3 가마솥이.

#2 가마솥이 가운데가 있고 인자 그 불 때는 곳 있고 그렇게, 상당히 그 안에 옥일을 전부다 허니께.

#3 그때는 그래서 소금이여. 여기서 소금을 고놈 끓어지고 서울까지 갔어. 밥 해 먹고 지게 지고 서울까지 가갔고. 소금 가매이로 한나씩 가져가서 한달 만에도 오기도 허고 그랬어, 그래 소금이여. 임금님한테 바치고.

2. 천일염의 제염 과정 및 설비

2.1. 이정근의 발화

@ 어르신 그담에 여기에 소금 있으믄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 바닷물이잖아요. 그럼 바닷물은 어떻게 들어와요?

#1 저기 양수로 해가지고. 저 상낙지로 해서 제 일 증발지, 제 이 증발지, 여가 결정 지어요. 즉 말하믄 명칭이 여섯 단은 제 일 증발지. 또 그 밑에 네 단은 누테, 제 이 증발지.

@ 일 증발지는 뭐라고 불러요?

#1 물 만드느 거. 젤 물이 먼저 들어왔다고 일 증발지.

@ 그 명칭은 뭐라고 불러요. 평상시에는?

#1 난치.

@ 난치?

#1 예. 그 담에 누테.

@ 누테, 이 증발지.

#1 예. 이 증발지.

@ 그건 네 단이에요?

#1 예. 그건 네 단.

@ 그 담에?

#1 여기는 결정지.

@ 결정지는 뭐라고 불러요?

#1 첨에 결정지죠, 저거는.

@ 그러니 난치?

#1 누테, 결정지.

@ 결정지 이렇게.

#1 왜그냐믄은 소금을 결정시킨다 그래서 결정지지, 이름이. 쉽게 말하믄 물도 다 결정되고 헨다 해서 결정지로 되야 있어요.

@ 난치는 예전부터 쓰던 그냥.

#1 난치, 누테, 결정지 인자. 우리가 수로 인자 남한테 시킬 때 알아듣는 명칭이여요, 즉 말하믄.

@ 그러니까요.

#1 누테, 난치 몇 발 가서 물 내려라. 누테 몇 단 물을 내려라. 결정지 몇 단에 가서 물을 내려라 이렇게 시킬 때 쓰는 용어여. 이름이 그렇게 되야 있고.

@ 그럼 어르신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러니까?

#1 바닷물이. 아! 우리는 양수를 해가지고 놔 뒀다가 거기서 거그서 물을 깔안쳐요. 쪼 양지가, 저 우에 가든 큰 저수지가 있어요. 거다 물을 막 이빠이 잡아 녀요. 까라앉어요, 물이 맑은 물로 변화되야. 맑은 물 올라 오지만서도 그거는 깔아. 쉬어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여서 물 쓰는 데로 내려다 써요. 그것을 어떻게 차근차근 올라. 그런게 이 배미 마다 도수가 다 틀려요. 씻겨가. 오늘 내론 놈, 널 내론 놈, 예를 들면 어저께 내론 놈 다 도수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런게 물이 여서 한 단 썼으면은 한 단만 내려와. 한 단씩만 다 섞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차근 가서 끝판에 가서 인제 급수통 열면은 물이 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인자 바닷물 경우라는 건 석도가 올라오는디. 날이 가물믄. 올라 올라오면은 인자 여그서 그 물이 다 증발 되어버리고 백 대 일 에 안 남아, 소금물이. 백 대 일. 백분지 일 에 안 나온다는 얘기에, 소금물이.

@ 그럼 어떻게.

#1 그 놈 가지고 소금을 내는.

@ 소금 내는 거예요?

#1 다 증발 되야 버리고 백 대 일 이. 백 대 일만 소금물이 되야 있어.

@ 그게 좋은 소금이에요?

#1 그것만 남은 거여. 쉽게 말하믄 소금물은. 거서 소금 오는 거지. 즉 말허자믄 석도가 증발되고 되고 되고 내롭서, 자꾸 올라갔고, 십오도, 십육도, 이십도, 이십사도까지 석고가 떨어져요. 돌가루가. 돌가루가 저렇게 하~얀 것이 떨어져, 인자. 돌가루 그럭 떨어지고 나면 석고가 돼, 석회. 저렇게~ 쪼갯고 있는 거여. 그 놈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오면은 이십오도 딱 되믄 거서부터 없어요, 그것이. 완전히 인자 소금. 소금만 뽀짝뽀짝뽀짝 그거이 소금 뜨는 거여. 그놈 물을 써 소금을 내야 깨끗헌 거고. 즉 말허자믄 예를 들어 소금물, 그 물 되기 전에 섞어 쓰는 거는, 거가 헝잡물이 들어 있단 얘기에, 내 생각은.

@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놈이 녹으믄은 녹혀 보믄 빨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여. 진짜 물이 안 들어갔다는 거여.

#1 지금부터 말 할게요잉~. 저 인자 옥에 저 물이 일 이 삼단이 물이 없어요.

@ 잠깐만요.

#1 일단 이단 삼단이 물이 없잖아요. 사단에가 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삼단으로 물을 내려주야 돼요. 예. 물꼬를 막고. 이거는 도랑 미는 거.

@ 도랑을 밀어요?

#1 예. 도랑 밀어 오잖아요, 저기서. 밀어모면 저기 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은 내리는 건 요렇게 막고. 여기서 여기가 차이가 칠전낙차가 있어요. 칠전낙차. 예 그러니깐 여그서 열면 내려가 버려요, 낮게. 여그 다 빠듯헌 거 같어도 다 그만치 차이 있는 거예요. 이 배미고, 이 배미고. 그렇게 이놈 열면 알로 내려가 버리죠. 거가 있어요.

@ 그것이 뭐라구요?

#1 석고, 돌가루. 이거 떨어진다. 이것이 사도까지 떨어지면 거즘 다 떨어져요, 이것이. 그러믄 이십오도 되야야 소금이 그때부터 이런 거 다 없어져 부리고 소금물만, 소금만 있는 거여. 이십오도 되면은.

@ 아까 석고 어땀었어요?

#1 아, 이거 다 석고죠.

@ 이런 게 석고라구요?

#1 예. 백해에서 그러케 다 겁나게 찌버려요 그양. 다 떨어지니라고. 다 벋게 내야 돼. 깨끗하게, 판을.

@ 판을?

#1 벋게다가 담어다 찌그다 내뿔어 버려, 그래야 깨끗해지지. 거 있으면 증발도 덜 되고. 해를 많이 받아줘야 증발이 더 되잖아요. 이것이 한 열 도나 많이 될랑가! 바닥에서 빨아버린 게. 계속 돌아. 꺼버려야 혀, 바로 꺼야 혀. 꺼도 쪽 빨아 올려버려. 쪽 다 쪽 빨아올리지. 뒤에도 훨씬 짙잖아, 앞턱이. 쪽 빨아 올려버려. 예 여 그래갖고 막고 이것이 힘으로 석도나 맞것네. 이놈 한 번 맛보세요. 이 아래치, 요놈 잡사봐요. 맛이

또 틀리지. 이거 한 서~ 두어도만 있으면 소금 떠요, 쉽게 말하면.

@ 어우 짜다.

#1 두도 더 올라야 짜는 소금 뜨는 거여.

@ 두도 더 올라야.

#1 예, 이 시물석 도.

@ 스물석 도.

#1 예. 그 스물다섯 도 돼야 소금물 되는 거여.

@ 어르신, 양수기로 물을 푼다 그랬잖아요? 어디, 짜 끝으로 퍼요?

#1 자기 옆에.

@ 자기 옆에?

#1 요놈 이 방치는 삼 방. 일 방치는 소금물인께 일 방, 이 방.

@ 어 근데 그러면 양수기로 뿔을 때는 바닷물 온도가, 도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1 아이 내나 도수가 다 틀려요. 잡어 놓은 구덩이마다 다 틀려요. 이십오도에서 이십삼도에서 이십도에서 십도 십오도 다섯도 석도 이렇게 다 틀려요. 구덩이마다 다 틀려요. 자기 구덩이 우게다 퍼갓고 자기 우게만 퍼주면 돼요. 나줄 때 내려 쓰면 되고. 그런식으로 되어요.

@ 날마다 소금을 생산하는 거예요, 지금?

#1 날만 좋으면은 오늘 못 내 잼아요, 비 온다 그러니까. 오늘 안 내요. 아침에까지 거뒀어요. 오늘 비온다허니까 못 내죠. 물 정리할라니까. 물 비 맞어버리면 소금 못 내는 거여.

@ 오늘하고 내일 비 온대면서요?

#1 예. 그래서 그냥 물 잡는 중이에요, 지금. 여그는 잡아놨잖아요, 벌써.

@ 어떻게 잡아봐요?

#1 해수 이거 잡아 던다는 거죠, 도수 맞추어서 이렇게. 그래서 다 이인 거여. 빗물 안 들어가게 허기 위해서. 이진 뒷물. 뒷물을 갖다 가다 났은께 비 끝나면 기계로 돌려서 인자 이렇게 푸는 거여.

@ 뒷물 가다났다 그래요? 이거 보고?

#1 예예. 그 안에 소금물.

@ 제가.

#1 그 밑에 치는 소금해주. 이진 뒷물해주. 쉽게 말하면. 그 담 뒷물. 그 담 물 그 담 물.

@ 그 다음물이라 그래요? 뒷물 다음 물이라 그래요?

#1 예예. 뒷물 다음 물.

@ 얘가 온도가 더 낮죠? 도수 낮죠?

#1 낮죠. 자꾸 올라갈수록 얇차지죠. 내룰수록 높고.

@ 물 다 내리셨죠?

#1 아니 여기 인자 노나놓고 갈라고, 갈라 놓고.

@ 아 여기 물을?

#1 야, 그랴 다 같이 같이 있어. 그러고 우리집 가게요. 금방 조금 만 더 내루면 막고 가요.

@ 어르신 그 아까 그 바닷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1 네.

@ 뭘로 끌어오세요?

#1 기계를.

@ 옛날에는 밀로 끌었어요?

#1 옛날에 양수기로 퍼올렸죠. 여기, 이 염전은.

@ 이 염전은.

#1 네.

@ 그러면 그 전에는 밀로 끌어왔을까요? 양수기 전에는?

#1 옛날에도 재무시 엔진.

@ 아.

#1 그래갖고 배에서도 쓰는 크다란 기 있잖아요. 두 개를 놓고 고놈을 불~ 엔진에서 이
러가지고 요 놈을 돌려주는 거여. 큰 군함 엔진을, 옛날에도.

@ 옛날에도?

#1 예. 여기.

@ 그래가지고 여기 끌어왔어요.

#1 끌어서 올려, 양수 해가지고 짜~ 송수로라고 물 버리는 곳. 그래가지고 송수로 보
내 가지고 뒤에 가서 염전머리. 머리 가서 예비 저수지가 있어. 저기 이빠시 채어 노면
은 여기서 필요한만치 끌어내리는 거여.

@ 끌어내리는 거요?

#1 급수통 마개, 통이 있어갖고, 열기만 하믄 나와, 물이. 쓸만치 딱 닫어 놓고.

@ 닫어놓고?

#1 그렇지.

@ 그러면 인제 쓸 만치 예비 저수지에서. 예비 저수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1 대양저수지.

@ 대양저수지.

#1 예.

@ 대양저수지였어요?

#1 대양저수지라 하지.

@ 그래갖고 이거 물마개, 마개라 그랬어요?

#1 예예.

@ 물마개를?

#1 열면은.

@ 열면 인제 물이.....

#1 나고.

@ 물이 염전으로 들어오는 거죠. 염전이라 그러시죠, 이거는.

#1 예.

@ 염밭 내지는 다른 표현.

#1 제 일 증발지로 제 일 증발지로. 빼는 거죠, 제 일 증발지로.

@ 제 일 증발지로.

#1 빼, 물을 빼.

@ 뺐어요. 뺐 다음에.

#1 뺐 다음에 인자 그 통을 딱 막어요, 급수통을.

@ 아! 급수통?

#1 그것보다 급수통이라 그래.

@ 아! 급수통.

#1 급수 쓴다 해서 물을 급히 낸다 해서.

@ 급수통에는 물을 막았어요. 그러면 인제 물이 들어왔죠, 염전으로.

#1 예.

@ 요쪽 염전으로 물이 들어왔으면 인제 어떡해요?

#1 인제 놔두죠. 증발되라고.

@ 어디다?

#1 그 자리다가.

@ 그 자리다가?

#1 놔두고 또 밑에서 소금물이 되어야 한 단 올라가 내려와서 또 열어, 그때 가서.

@ 그때 인제 그러니깐 여기서 소금이. 젤 끝에 있는 단이? 결정지가?

#1 예. 결정지에서.

@ 결정지에서 소금 이거 퍼 올리고.

#1 그 놈 내리고, 쉽게 말하면.

@ 내리고. 내리고.

#1 따고. 탄다 해야지. 소금을 탄다 해야지. 쉽게 말하면 따고 그 담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물이 층층이 틀린게, 도수가.

@ 그게 몇 도가 다르다 그랬죠? 염전이? 염전 높이가?

#1 칠전낙차.

@ 칠전낙차.

#1 요놈에서 요놈. 요놈에서 요놈. 보믄은 일반 얼른 보믄 똑같어도 다 차이가 있는 거라, 이렇게.

@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에서 인제 급수통에서 물 받았다가 얼마나 있다가 내려요?

#1 아니 밑에 물이 따라야 떨어져야 내료는 거여.

@ 그니깐 밑에 소금을 따면.

#1 따면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해갖고 다 내려오면 또 급수통을 열고. 또 거기서 잠 재워야제.

@ 근데 인제 아까 그면 급수통을 거기 물은 몇도나 돼요? 그러면.

#1 거그 물이 한 석 도는 나가쥬. 삼 도.

@ 석 도? 삼 도면 거의 짜단 느낌이 없겠네요.

#1 그냥 짠 느낌이 안 나요.

@ 안 나요?

#1 예. 그냥.

@ 그럼 인제 거기서 인제.

#1 바닷물이니깐.

@ 석도가 되면 한단 내려오면 몇 도까지 말려야 돼요.

#1 예전 거기서는 증발량이 적어요. 판이 안 짜니깐. 한 반도나 오를까, 하루 지나면. 그 밑에 내려와도. 그 밑에 내려올수록 판이 짜.

@ 판이 어떻게 짜요?

#1 도수가 있기 때문에 판이 짜지. 더.

@ 아.

#1 밑에는 소금물 되면 그거는 무지하게 짠 판이여. 소금판은 짜지만은 뒷물 떨어져도 뒷물 소금물로 떨어져도 소금판이거든. 짜거든. 그 우게 덜 짜고 덜 짜고 덜 짜고 덜 짜고. 내려올수록 짜, 판이.

@ 어르신 천천히 얘기 좀 해주세요.

#1 내려올수록 짜니깐 즉 말하자면 내려올수록 도수가 잘 올라가지. 짠 판이라.

@ 그러면 이제 어르신 물을 한 단 내리는 걸 뭐 한다 그래요?

#1 그냥 한 단 내린다 그래야지.

@ 아까 물 내린다 그러세요?

#1 물 그냥 채워. 우선은 우리가 볼 때는 판이 비었으니깐. 물 시킨다 시킨다 그믄 '가~ 물 내래' 그믄 내릴 줄 알아요.

@ 그럼 이제 물 내리고. 어르신 그러면 이제 빌 때마다 물을 내리잖아요. 글다가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석회가 영킨다 그랬잖아요. 거기 몇 도쯤 되면 석회가 끼나요?

#1 십오 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 석회가?

#1 예.

@ 근데 그 석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1 물에서 떨어져요.

@ 물에서 떨어진다는 게 결정에서?

#1 바닷물애가 마흔 몇 가진가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이 흙 같은 빨이 떨어져요. 빨흙. 흙을 처음에 맹물에서 즉 말하면 도수 약한 빨이 떨어져갔고 여 오다가, 십오도가 딱 되면은 석고가 생겨, 인자. 거서부터는 석고가 떨어져야 돼. 석고가 석회가 떨어. 석고가 떨어져가 석고잉. 즉 말해 고집이라 석고여. 석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그다 깔아도 되야. 깔깔이.

@ 깔깔이?

#1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깔깔이라고 그래. 우리가 쉽게잉~ 깔깔이 자꾸 보고 깔깔이 몰아내고 깔깔이가 떨어졌다 그래. 쉽게 말하면잉~. 그렇게 허고 고놈이 이십사 도까지 깔깔이가 많이 떨어져.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십오 도가 딱 되면은 소금물만 인자 남어. 소금물만 반짝반짝반짝반짝 소금물이 비치는 거여. 눈으로 봐도 비여. 소금물 확 깔려버려 기양.

@ 확 깔려요?

#1 깔리기 전에 빨리 떨어 내야지. 거서 소금 깔려버리면 손해지.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백대 일 에 소금물이 없다는 것만 알면 돼. 전부 증발되야 버리고. 백대 일만 소금물로 된다는 거.

@ 그래서 인제 소금물이 결정지로. 아까 그러면 맨 마지막 단이 결정지예요?

#1 예예.

@ 결정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던데?

#1 아이 소금을 결정시킨다 해서 결정지여, 이름이.

@ 그냥 그러니깐 거기서.

#1 소금 만든다는 거지. 물로 다 되어갔고.

@ 근데 인제 아까 어르신 그랬잖아요. 덧물 준다는 게 뭐예요?

#1 덧물 준다는 거는 소금판에 소금 오는 디다가 물을 더 준다 그래, 덧물이라고 그래. 덧물 준다고.

@ 아무 때나 덧물 계속 주는 거예요?

#1 아이. 소금판이 등이 날라할 때.

@ 등이 날라할 때?

#1 응. 등 날 때. 소금판이 소금이 보일 때. 등 나서 물이 없어졌을 때. 그때 막 뉘여

줘야 돼요. 물 등 안 나갓끄름. 그러면 물 주는 대로 소금이 오고 있어요.

@ 근데 등이 나면 뭐가 안 좋은데?

#1 아이 소금 안 와버리죠. 소금 안 오지. 물 나빠져 버리지.

@ 소금이 안 온다는 게 뭐예요?

#1 물 없으니깐 소금 못 오죠. 물에서 오니깐. 소금이 물에서 떨어지니까. 물이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 바닥이 등이 났다 허면 여기선 소금이 안 오는 거여. 물이 등을 댕혀줘야 그것을 소금 막 이렇게 돌아 댕기고 이런 거여. 떠 댕겨 소금이, 밑에서 크고. 그것도 커요. 소금이 커요. 사람맨키 더 커요.

@ 그래요?

#1 쪼까한 놈이 이틀되믄 요만치고, 사흘맨키 요만치 커 버려. 바다에 있는 놈도 요렇게 커. 물 좋은 놈 뉘여 주믄.

@ 뉘여 줘요?

#1 너 준다는 거지, 물 뉘여 주믄. 물을 더 준다는 거지. 뉘여주면, 덧물 주믄.

@ 덧물 주믄?

#1 예.

@ 어르신 그담에 아까 보니깐 우리 뒷물이라 그랬잖아요. 뒷물은 뭐예요?

#1 뒷물 소금물 다음 얘기를 뒷물이라고 그래.

@ 뒷물이라 그래요? 소금물 전 꺼?

#1 소금물 다음 꺼. 소금물 되얏다. 그 담 뒷물 따라온다 그 말이지. 소금물이 떨어져야 또 뒷물 또 내려오잖아요. 그거보다 뒷물이라고 그래.

@ 그것보다 뒷물이라 그래?

#1 예.

@ 소금물 그러니깐 그 뒷물이 내려오든 소금물이 되는 거죠.

#1 그 뒷물이 내려와야 뒷물이 소금물 되었다. 소금물 되야야 또 뒷물이 따라서 도려 소금물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든 소금 다음물이다 그래. 그 말을 니가 뒷물이다. 알아 듣기 쉽게 허는 거여, 그걸.

@ 응~ 뒷물이다. 어르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이렇게 별이 정말 좋은 날은 끝에서 물마 개 해서 급수통에서 급수마개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며칠 만에 소금이 모여요?

#1 계속 물이 뒤에 가서 증발 도수가 틀려 있으니깐. 그 놈이 밑에서 하루 하래 두 번도 떨고, 한 번도 떨어. 그럼 천상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되야야 오늘 열었다 하든 여 까지 오는 거여. 닷새 엿새 되야 여까지 오는 거여. 여까지 오든 거서 소금물이 되는 거고. 우것은 자꾸 또 뒤에서 내려오는 거고.

@ 그러면 어르신 오늘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을 얘기해봐요, 인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 가 갖고.

#1 가가지고 소금을 걷기 시작해요.

@ 소금을 근데 걷는다 그래요?

#1 예. 걷어요. 예. 소금을 모은다 아니고 걷는다고 사투리여. 모은다는 것은 저그지. 소금을 걷어라 그래야죠. 모아라 그래 안 해. 걷어가지고 인자 모으는 거지. 모으는 것이 똥글게 싸는 것이 모으는 거고.

@ 결정지에다 모으는 거예요?

#1 결정지 소금판에서. 소금판이라 그래야죠, 그때는.

@ 아 그러니깐 밑에 있는 건 소금판.

#1 예. 이름은 결정지지만은 소금 안쳤으니 소금판이 되야 버렸잖아요. 소금판에서 거 뒤가지고. 그때 발 넘어갔을 때 대파 있잖아. 고무 대파가. 한 번 넘어갔고 걷어갔잖아. 저쪽 길로. 글로 밀면 모아져. 모아지면은 인자 삼으로 모타, 똥그러게. 물 빠지라고. 그러면 인자 모아서 모아놓고 인자 리아카로 인자 삼으로 담아서 창고로 날려. 날려서

씩 뇌뒀다가 물 빠지른 건져 추워서 올려야 돼. 물 빠지라고.

@ 추위 올려요?

#1 똥그렇게 올려야 물이 빠지지. 창고 안에서도 빼가지고, 물 빠지면은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거지. 출고시키는 거지. 그거 임무여. 다 끝났어, 염전 얘기는.

@ 염전은 그러면 생각보다 작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1 아. 예를 들어서 말하면.

@ 단계가 많지 않네요.

#1 단계가 많죠. 숫자는 그렇게 생겼어도 소금을 몇 번 삼을 맞이하는 고 하니 모타서잉~ 삼으로 모타서 삼으로 떠서 리아카에다 담아서 또 부서서 또 소금을 또 삼으로 추워서 또 삼으로 도로 가매다 담아서 몇 번이야 삼질만 몇 번 맞냐 그거여. 하하.

@ 이게 어르신이.

#1 과정이 겁나잖아요. 고놈 가지고 노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삼이 얼마나 몇 번 맞어야, 소금이 우리 입에까지 들어오냐, 그거여. 또 순갈 떠서 먹을라고 그것도. 그런게 이 작업 그 하는 한도가 상당히 복잡해 많은 거여. 일이 많은 거고. 중노동이여, 중노동.

@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이 된다 그러고. 분 입힌다 그거는 뭐예요?

#1 천상 분은 염분이라니까.

@ 그리고 인제 감이 된다는 것은?

#1 감 났다는 소리. 감 났다 그러면 판이 말랐다. 판이 말린 것보다 감 났다 그러, 그냥.

@ 감 났으면 물을 대야겠네요.

#1 아이 그러죠. 이걸 사투리나 똑같네. 감 났다 말랐다. 그 소리가 판이 말랐다 그래 하는데 감 났다 그래 버려. 우리 알아 들은게, 염전 술어로.

@ 그래서 감이 나면 물 대고, 물 주고.

#1 물을 내려서.

@ 내리고. 그 담에 이렇게 하고 그 담에 인제 소금이 자라요? 소금이 자라는 걸 뭐라 그래요?

#1 소금이 인자 굵어지는 거죠.

@ 따로 뭐 소금이 어쨌네. 오늘은 소금이 진짜 많이 굵어졌네 이런.

#1 에에. 그러죠 일기에 따라서.

@ 일기에 따라서 굵어지면.

#1 그 일기에 따라 잘고 굵고 그래요.

@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1 다 똑같애, 내용.

@ 내용은 똑같은데 그럼 굵은 게 더 좋은 거예요?

#1 아~니여. 잘잘현 놈이 더 식렴에는 최고 좋은 거여. 젓 담는데 옹고. 굵으면 썩글 썩글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소금 같으면 굵게는 잘 안나요. 진물로만 좋은 물만 낸게. 뜬물이 물이 약한 놈이 들어가야 굵어지는 거여. 그것이 전라남도 소금을 보면 굵어진 놈 많죠잉~. 손 딱 비비면 부서져요. 부서져 부러. 우리 안 부서져요. 딱그르르 허지, 부스르르 안 부서져. 물이 안 들었어. 그 놈은 뜬물질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어요, 소금알에가.

@ 어르신 그러면 뜬물하고 진물이라는 게 뭐예요?

#1 뜬물이라는 거는 약허단 물.

@ 도수가 약한 거요.

#1 약허다. 떠단 얘기여. 못 되었다 뜻이지. 도수가 안 찻단 얘기고 진물은 진짜 물 도수가 찻단 얘기고.

@ 그러니깐 도수가 찻단 거는 몇 도 정도가.

#1 이십오도가.

@ 이십오도 되는 게.

#1 소금물이 뗏단 얘지요. 소금물 완전히 되얏단 얘기. 뜬물은 소금물 약한 물이 도수 안 찬 물이 뜬물이고. 그런 식으로 인제 얘기히는 염전 술어가.

@ 그러니깐 염전에서 그런 말 다 쓰나요? 뜬물이나 진물이나 이런 말을 다 쓰는 거예요?

#1 그러죠. 진짜물이다 뜬물이다 다 쓰는 거여. 뜬물질. 그런게 우리가 그래. 뜬물질에 소금에 녹아요.

2.2. 최대수, 이시성의 발화

@ 어르신 그 다음에 천일염 있죠.

#3 천일염 요새 천일염이라 그래.

@ 천일염은 어떻게 만들어요?

#3 요새 나는 펜야 염판에 나는 것은 천일염이여.

@ 어르신 그답에 그럼 천일염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3 어?

@ 천일염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3 어. 시방 전부 천일염.

@ 어르신 일단은 천일염을 이렇게 다 네모나게 판자로 네모나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데. 그 거를 거기러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3 거기다 인자 이십오도 물 깔은 열이 한 이십도 나가면 소금이 전알 되어 부러.

@ 어르신 그러니깐 인자 내가 궁금한 거는. 어르신도 조금만 봐주세요.

#2 여가 큰 철 있으면 여가 물이 들어있어. 여그를잉~ 난치라 해. 또 요렇게 요렇게

인자 칸이 적어.

@ 예. 칸이 적어요?

#2 적어. 가서 요것이 가운데도 네 배미른. 요거는 여섯 배미른 여섯 배미라 그래. 요거를 느티라 그래.

@ 느티?

#2 그리고 더 적어. 이렇게 인자. 여가 누워서 견적이라 그래요.

@ 어르신 근데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뭐에. 여기 공간은 그냥 비워놔요?

#2 요식이여, 전부다 요것이 요렇게 돼가 있다는 그 말. 되가 이렇게 난치. 여 제일 밑에는 난치. 그 답에가 느티. 그담 소금 굽는 데가 그러면 보통 여기서 그럼 영점 인자 이도. 안 그럼 영점이 도. 바닷물이 그렇게 가, 갯물이 삼도까지 그렇게 가. 이 도나 삼도나 그렇게 나와, 바닷물이.

@ 잠깐만요 어르신 그럼 갯물이 이도라는 게 영점 이도란 얘기에요?

#2 아니 그냥.

#3 이도.

@ 그냥 이도?

#2 그니깐 요렇게 나오면. 왜 요것이 그런야 치면은, 장마 후는 물이 바닷물이 좀 싱겨워. 비가 왔을 때를 그러니깐 이도나 이점 오도가 삼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 잠깐만요. 인제 여기서 또 질문할게요. 일단 저수지가 있잖아요.

#3 어.

@ 해수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바닷물을 여기다 저장해놓죠.

#3 저장을.

#2 사릿발 때.

@ 사릿발 때 저장해는 데. 이 사릿발 때 저장할 때도 뭘로 바닷물을 끌어올려요?

#2 아니 수문으로.

#3 수문으로.

@ 아 그럼 여기가 곧바로 바다예요?

#2 그러지. 사릿발이라고 침에 인자 저수지 좀 깊은데. 거기다 다.

#3 바닷물. 자연수가 안 들어오면 염전이 없어, 자연수지.

@ 응. 자연수로 이렇게 해서.

#3 들어와.

@ 저수지에다 두고. 그럼 인제 저수지에서 여기 공간이 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인제 다시, 이렇게.

#3 끌어 올려. 그때는 인제 옛날에는 자새로 했는데 지금 전부다 모다로 허지.

@ 옛날에는 뭘로 했다고?

#2 자새.

#3 자새. 물자새.

@ 물자새?

#3 수리차.

@ 음~ 옛날에는.

#3 수리차.

@ 수리차. 옛날에 수리차라 그랬어요? 물자새라 그랬어요?

#3 옛날에 수리차여 그것이. 자새란 것은.

#2 물자새라 그러고. 이쪽 염전에서는 수리차라고. 저 농터에서 쓸 때는 물자새라고

그랬어.

@ 그런데 수리차가 그거 얘기하죠. 물레방아 비슷하게 생긴 거.

#3 딱 이리고 차려 노면 남아있고. 물에다 딱 넣으면 거시게 수리차 사람 올라가서 으른 물레방아 질로 돌아가, 물이. 그것은 인자 난치로 올라가지.

@ 그러니깐 이렇게 인제 수리차로 난치로 올라가요? 난치로 올라가서 인제 난치가 인제.

#3 거기다 깔아줘, 이도 물을.

@ 이도 물을 짝 깔았어요.

#3 그믐 느티로.

@ 어르신 그 잠깐만요. 난치에서 여기 딱이 있고.

#3 다 있어.

@ 여기 여기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빠지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 요 가운데로 가 이렇게 구멍이가 걸리는 거. 배수로가 있어. 지~피 파졌어, 여가. 물 그렇게 여 틈을 쟁여져 있고. 비가 오면은 여그를 전부다 물꼬를 전부다 터 버려. 그래갖고 인자 여쪽으로 배수로만 이렇게 딱. 그리고 여그는 중간에 물탱크가 있어. 그것이 바닷물 탱크.

@ 물탱크를 뭐라 불러요?

#2 바닷물 탱크.

@ 이 바닷물 탱크를 뭐라 불러요?

#2 이거를 거시기라 허지라.

#3 거시기. 해주구당이.

#2 해주, 그니깐 해주라 그래, 요것을 다.

#3 뭘 말인지 잘 몰라.

#2 해주구덩이라 그러거든. 해주구덩이. 양쪽에 배수로. 물 해주 인자 배수로가 있어. 비 오면 여그서 찼라줘야 바다에 안 가고. 바다만 등등 뜨거든. 그러면 인제 루아식이 있고. 루아식은 여기서부터 사전차이. 큰 바다 여그는 사전. 밑은 삼전 오. 그니깐 그거는 틀레 인자. 며칠 동안 물이 갑자기 빠지라는 거. 여기서만 터주면 루아식이라는 것 터주면 요것이 이전 차이가 나. 이, 삼전차이던지 요놈이 높아. 그 답에 여가 또 저 짝 낙차가 있어. 발마다 루아식은 사전 차이가 나.

@ 약간씩 이렇게.

#2 요 바다 똑같은 면적 똑같아야, 높고 낮고. 근디 요 다음차가 요런 거는 사전이 낮차.

@ 응~ 사전이.

#2 사전 아니든 삼전반이든 삼이든 그렇게 나와. 그렇게 견수가 줄어. 그래서 깔고. 요것까지 와 갖고 폼어서 올린 데가 있어. 요것을 루아식이라 그래. 저서부터 내려서 잡은 것을.

@ 그러니깐 차근차근 내려오는 것은.

#2 루아식이고.

@ 예. 폼어서 올린 것은?

#2 느티서부터 인자 느티서 폼어서 올린 것은. 가만있어 거 뭐, 무슨 식이라 그러지?

#3 몰라.

#2 가만 있어.

#3 염부장들 박사들인디.

#2 지금 염부장들 몰라. 루아식.

#3 몰라.

#2 가만 있어. 허허. 이거.

@ 일단 그럼 인제 어르신 궁금한 거 제가 다시 여쭙볼게요. 이거 하나 난치잖아요.

#2 예.

@ 이게 난치면 이거 하나하나 뭐라고 불러요?

#2 그거 난치 똑같이 들어가요. 난치.

@ 아니 그러니깐. 난치를 몇 한 배미 두 배미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2 난치란 건 난치를 전부다 .

#3 난치. 느티. 결정지. 그렇고 불러.

@ 어르신 그담에 그러면 난치도 이게 인제 똑이 인제.

#2 아 똑이 있지.

@ 똑이 있는데 이 똑은.

#3 다 있어 똑.

@ 어르신 똑을 뭐라 불러요?

#2 똑이라고 해, 똑.

@ 똑은. 그 이 바닥은? 그냥 난치?

#2 고저 난치. 그 바닥이지. 바닥으로 다 들어가는 난치.

#3 난치라고 다 통일하는.

#2 바닥을 난치라고 하는 거여. 그 여그서부터 여그를 난치를 하든 전부다 통합적으로.

@ 통합적으로 다 난치가 되는 거예요?

#2 응.

@ 어르신 그담에 보니깐 바닷물이 짭 때는 처음에는 뭐 흙 같은 것이 떨어지고. 조금 더 더 짜지 니깐 하얀 것이 떨어지고 그런던데?

#2 그런 거는 뭐. 하얀 거 떨어지는 거.

@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깨끗한 바닷물이에요?

#2 그러지.

@ 어르신 그담에 인제 난치에서 소금 이거 물꼬를 터 가지고 인제 느티로 물을 내리고. 아니지. 난치에서 해주에다 물을 모아서.

#3 아이.

#2 아니. 비올 때 여기다 가두는 거여. 여기다 인자.

#3 비올 때 써먹지, 구덩이는.

#2 해주에다.

@ 예. 비올 때.

#2 비올 때 해주가 딱 가다 노면 비가 오면 물이 저 돌초가 낙차하고 짜고 그러니깐 요걸 인자 간수가 다 넘어서 빠져. 요거 통로를 버린다 그 말이여.

#3 짠물만 구덩이로 들어가지.

@ 짠물만. 어르신 그러면 느티에서는?

#2 인자 그런 식.

@ 난치 있는 물을 느티로?

#2 요걸 빼. 난치도. 요 저수 인자 오 도나 십 도 되면 요거를 올레. 그럼 여거서 십 오 도나 이십 도만 되면 결정지로 올리지, 거그다 다.

@ 어르신 그러면 난치에서 느티, 느티에서 인제 결정지가 되면 이 결정지에서 소금이 이렇게 저 는 몰랐는데 소금에 바짝 마른 게 아니라.

#2 물 우게서 소금 뜨는 거예요.

@ 물 우게서 소금 뜨는 걸 뭐라 그래요?

#3 물 가라야지 똑같지, 거시기나.

@ 응. 그러면.

#3 난치에서 결정지에서 이십오도 물을 깔아야 소금이 오지.

@ 그러면 인제 소금이 왔어요.

#3 암든.

@ 그러면 인제 뿔로.

#3 그저 시방은 그전 그거 없고. 시방 거시기로.

@ 뿔로?

#3 대패. 대패로 굽어 모아.

@ 대패로 굽어 모아요?

#3 응. 대패로. 그 당그래 같은 거 있어. 글로 굽어모아.

@ 대패라 그랬어요? 당그래라 그랬어요?

#3 대패.

@ 어르신 그러면 요즘 그러면 소금이 와요. 그러면 인제 소금이 와서 소금을 어디다 뒹요?

#3 거 똑같지. 인자 모아짓는 거시기 리아카로 깨끗하다. 염구덩이 딱 저장, 비 안 맞게 딱 저장하지.

@ 그럼 거기 소금 저장해 놓 걸 뭐라 불러요?

#3 창고 소금. 염창.

@ 염창?

#3 염창고.

@ 염창고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3 어?

@ 구조가? 그냥 판판한 창고?

#3 여그 창고하고 똑같어.

@ 그냥 맨바닥에?

#3 지금 나무로 만들어 놓은 크게 한 삼천 개나 사천 개나 들고. 서릿대로 이어갖고 거기다가 퍼갖고 인자 풀아.

@ 풀아요?

#3 응.

3. 자염의 제염 도구

@ 어르신 그담에 인제 셋등에서 하고 벗집에서 쓰는~ 도구들.

#3 도구?

@ 갯벌을 뒤엎은 것을 뭐라 그래요?

#3 씨레, 씨레.

@ 씨레. 그 담에 인제 셋등 위에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씨레예요?

#3 그것도 그 글로 쓸어 모아. 모은 것이라. 씨레야.

@ 그러면 씨레 하나로 밭도 뒤집고, 갯벌도 뒤집고, 셋등도 모으고 그래요?

#3 어 글로.

@ 씨레 하나로?

#3 어. 다.

@ 어르신 글고 인제 뭐 아까 미래는 뭐예요? 미래.

#3 어? 당그래. 소금 굽어 모태는 거. 시방 하는 그때 시방 쓰는 것이 대패도 있고 다 있어. 그때는 대패 같은 거 없고. 오직 그제 제일 장으로 화렴 때는.

#2 천일염은 그때 대패 그런 게 있었고, 그때는 당그래. 소금 굽는 데서 소금만 모태는 당그래. 인자 화렴할 때는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3 시방 달라졌지. 그쪽 화렴할 때허고는. 그것이 진짜제, 재료가.

@ 그러면 어르신 씨레하나로 셋등까지 다 작업이 끝나네요.

#3 뭐로 모으지.

#2 등을 만들어야지. 씨레 해서.

@ 그러니깐 소로 갯벌 가는 것도 씨레로 하고.

#2 아. 씨레는 안 돼고 쟁기로 갈지.

#3 쟁기는 안 하고 씨레라 그래.

#2 흙을 모태는 것을 씨레라 그래. 흙을 모태는 거.

@ 그러니깐 잠깐만요. 밭을 가는 것은.

#2 쟁기로 허고.

@ 쟁기로 허고.

#2 흙을 모태는 것을 씨레로 인자 올리고.

@ 그리고 다른 건 안 썼어요? 흑시? 가래나 이런 거 써본 적 없으세요?

#2 가래 그런 거.

@ 어르신 번지라는.

#2 첫등할 때 가래로 안 써? 형님 올릴 때? 지금 써레로 다 올리는데.

#3 써레로 다 올리제.

@ 어르신 그담에 인제 써레 우에. 써레 첫등 했을 때 이렇게 탄탄이 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다듬어요?

#2 인자 그때는 써레로 전부 다 삼으로 요리저리 옮겨서 면만 잡지.

#3 면만 잡제.

#2 잘 안 들어가. 안 들어갈라 그래. 왜냐하면 흙을 보실보실 만들어놨는디 거 가서 사람이 다져붙은 물이 안 빠지잖아, 물이.

@ 아! 그러구나.

#3 그래 가마이 밑에다가.

#2 짝 그래. 떡스리, 떡. 그 흙을 그런 거시기로 바꿔.

#3 콩노물 물 주듯기.

#2 그런 식이야.

#3 그렇게 해야. 콩노물 물 주듯기 밑에 빠져. 시리로 물이 빠진다고, 그것이지.

@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흙이 보슬보슬 하다고.

#2 그러지.

#3 아버리면 물이 안 내려와.

@ 그러면 미래나 나라나 이런 거 써보신 적 없으시겠네요? 그담에 인제 아까 물 질러야 되죠?

#3 어?

@ 물 질러야 되잖아요. 간수 질르잖아요. 간수는 어따 질러요. 뭘로 질러요?

#2 나무통.

@ 나무통?

#3 시방 똑같어. 그 전에도 나무통으로.

@ 근데 그러면 나무통.

#2 나무통 크지. 장사하는 데로 지고 대니지.

#3 물지게로 저다가 안에로 안에 염구덩이로 갖다 부수고.

@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인제 이렇게 간수를 펴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러죠.

@ 아까 말씀하신 질통으로 펴요?

#3 소통으로 소통.

#2 바가지로 펴야지.

#3 바가지로 펴.

@ 바가지로 펴요?

#2 응. 질통에다 그래가 답어.

@ 바가지로 펴서. 그 바가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3 바가지는 여기 있어.

#2 여 물바가지.

#3 물바가지.

#2 나무로 달아서.

#3 자리를 달아.

@ 그리고 인제 질통에다 담았어요. 그 답에 물지게라 그랬어요?

#3 어. 물지게. 시방도 물지게여.

@ 다른 말은 안 쓰시구요? 질통에다 물지게를 담아가지고.

#3 여기 안에 화렴 구운 데로 들여오지.

#2 벌막.

@ 아간 벗집이라면서요.

#2 벗집이라도 허고 벌막이라고도 허고 그래요, 말리는 게.

@ 어르신 그 답에 인제 불을 화목을 때는 구덩이를 뭐라고 불러요? 화목을 때려면 옛날에는 뭐 아궁이라고 안 부르고 부삭이라고 부른다던지. 부엌이라고 부른다던지.

#2 그 불을.

#3 부엌은 인제 밥 해 먹는 것 보고 부엌이라 하고. 그것은 짚물 가두는 것인데 펜야 염구덩이.

@ 어르신 그 답에 인제 이렇게 소금이 왔어요. 소금이 좀 왔어요.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인제 아까 뭘로 굶는대면서요.

#2 그래놓고 굶는당께, 당그래로.

#3 당그래 같은 것을 굶어 모으지. 당그래.

@ 당그래 같은 걸로 인제 굶어 모았어요. 그 답에 인제 당그래 같은 걸로 굶어 모은 다음에 퍼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3 거기서 인자 딱 물 속에서 건져. 물에 다 닳아져. 물이 있어. 그렇게 그놈을 한 쪽으로 당그래 그것을 모아 갖고 물 빠지른 인자 거시기다 담지.

@ 어르신 그답에 인제 그러면 아까 당그래로 이렇게 모았어요. 그럼 당그래가 어떻게 생겼어요?

#2 쪼그만 해, 이쪽에.

#3 쪼그만 해.

@ 요렇게.

#3 부엌, 가정에서 재 굶어낸 거 당그래 그거허고 같어.

@ 그러니깐요.

#3 요렇게 굵어 모아갖고.

@ 굵었는데 그럼 모아져 있으면 어떻게 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2 삽으로 푸지. 삽으로 푸고.

#3 삽으로 퍼서 인자 다 저장고에다 갖다 놓지.

@ 삽으로 해서 저장고에 너요?

#2 삽으로 퍼서 삼태기를 거쳐 담아서 저장고.

@ 삼태기에 담아서.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삽으로 퍼서?

#2 삼태기 담어 모태서. 모태진 놈 삼태기에 담아서 저장고나 소금창고로 가.

@ 그 답에 인제 소쿠리나 이런 거는 안 쓰셨어요?

#2 소쿠리 있지. 삼태기. 소금은.

#3 삼태기다 담아가 저장고에다 붓지, 몇 번.

@ 그 답에 인제 어르신 소금을 짠 염도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염도가 얼마나 되나 알아야 되겠죠. 그건 어떻게 했어요?

#2 그때는 저 그러니 별막장이지. 장이 인자 그니깐 지금 같으면 뽀메지.

#3 염도 재는.

#2 뽀메라 앓고.

#3 염도기.

#2 염도기라고 인자.

#3 뽀메란 말은 인자 일본말이고. 염도기.

#2 염도기로 잰어, 그 때 당시.

#3 우리 할 때 염도 염도기가 있어. 거 재보면 십도 이십도 삼십도까지 뽀메가 있어.

염도기가.

@ 염도기가 있어요?

#3 염도기. 그때는 염도기라. 뽕메란 것은 일본말이여.

@ 그 답에 인제 염도기가 있고. 어르신 이렇게 찌물을 끓이다보면 간수를 끓이다보면 거품이 난대면서요?

#3 어?

@ 거품이 난대면서?

#3 거품? 부글부글부글 거품이 나오죠.

#2 거품이 나도 걷어내들 않고.

#3 그대로 찾아져. 막 돼서 물 부수믄 부끄부끄부끄 막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막 끓어. 거자 되믄 불 꺼버리면 딱 소금만 남어.

@ 응. 어르신 그 답에 인제 장작 아까 화목, 화목은 어서 구해와요?

#3 화목은 뭐시여?

@ 화목?

#2 나무 여그는 나무가 귀한 데라, 외지서 저 분남 산두덩이서.

#3 그 나무, 화목? 어추구하냐 하믄 그때는 허가 내갓고. 산 허가 내갓고 별목해갓고. 산 실어와, 구루마로. 소구루마로 나무를 실어와. 이걸 산이 귀한 디라 산중가락에서 실어와, 소구루마로. 차도 없고.

@ 그 답에 어르신 뭐 아까 써레질하고 쟁기질한다 그랬잖아요.

#3 어.

@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3 어?

@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3 아니 그거 다 끝난 것이여.

@ 그담에 인제 셋등을 만든다 그러셨잖아요.

#3 어.

@ 셋등을 만들고 그 담에 이렇게 또 똑을 만들잖아요.

#3 셋등을 만든다 그 말이여.

@ 그거 자체가 다 셋등이란 얘기에요?

#3 어, 자체가.

@ 그담에 인제 어르신 혹시 뒷물이란 표현 안 쓰셨어요? 뒷물?

#3 뒷물?

@ 예.

#3 뒷물 보고 여기 어떡하냐면 뒷물보고 이십돈디 십도보고 뒷물이라 그래. 뒷물이 따라오니까. 이십도는 소금물이고.

@ 잠깐만요.

#3 뒤에 따르는 물 보고, 그 물 보고.

@ 어르신 뒷물이 뭐예요?

#3 뒷물이라는 것은 소금물이 인자. 이십도면 소금물이 된다고. 그 뒤에 따른 물이 십도. 십오도면 뒷물이라고 그래. 뒤에 따른 물잉게.

@ 뒤에 따라오는, 어디서 뒤로 따라와요? 뒷물이?

#3 소금을 이십도에 소금물을 만든다고. 이십도 물은 소금물. 소금을 직접 만들고 그 뒤에 뒷물이라는 것은 그 뒤에 십오도나 십도가 물이 오는 뭐 그거 보고 뒷물이라고 그래. 뒤에 따라옹게, 그 물.

@ 어르신 그러면 이십도 물만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 가마솥에?

#3 아우 가마솥에 그 물만 꼭 넣지.

@ 그면 십도물은 어디 있어요?

#3 십도물은 다른 저장고에서, 저장고에 담지. 섞어노면 안 된다.

@ 어르신 그래가지고 인제 소금이 이렇게 하얗게 불을 뺐으면 하얗게 오잖아요. 그럼 하얗게 온 것을 뭐 했다 그래요? 하얗게 온 것을.

#3 아이 소금이 온다. 소금이 된다 그 말이지.

@ 소금 온다 그래요? 그 답에 인제 소금 다 된 다음에는 이렇게 당그래로 밀어가지고.

#3 잡아 댕겨 모으죠.

@ 모았어요. 잡아 댕겨서 모은 다음에.

#3 물 빠지른 저장고 또 갖다 소쿠리 담아. 담아다 저장고 넣지.

@ 어르신 그른은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3 응?

@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역할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3 그때는.

@ 예.

#3 그때는 우리가 여맹이라 그래. 여맹이.

@ 여맹?

#3 그전 말로. 여맹이.

@ 여맹이.

#3 염부라고도 부르고.

#2 염부장이라고, 장 있고. 총 책임자 염부장.

#3 시방 염부장인디 그때는 여맹이라고.

@ 여맹이.

#3 그때 말로는.

@ 그러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3 그 일하지, 소금 내는.

@ 그러면 소금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여맹이라고 불러요?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

#3 어. 소금 만드는 사람보고 여맹이라고 그래.

@ 그 답에 인제 염전 소유주는.

#3 어?

@ 염전 소유주는.

#3 염전? 염전을 뭐시라고?

@ 염전을 그 셋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셋등 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어. 주인이 지퍼.

@ 그럴까요. 그답에 어르신 첩판 만드는 사람들도 따로 있었어요?

#3 첩판?

@ 그 첩판이 되게 중요할 거 같은데.

#3 첩판은 그때는 도라무깡을 짤라서 판을 썰어서 잇어갓고 솓을 만들었어.

@ 도라무깡이 뭐예요?

#3 철판 도라무. 지름 담는 도라무깡 안 있더라고.

@ 아아.

#3 글로 그전 것은 미제는 뚜껑째 글로 썰개갖고 산소를 해갖고 솟을 만들어. 그래 솟이 컸어. 그런 솟이.

@ 큰 솟이.

#3 응. 이따 이채가 있어. 여 우리 우리맨큼. 젊은 사람 해 노른 못 해.

@ 어르신 그러면 일단은 그럼 소금 해가지고 소금창고에 너났으믄 소금 인제 다 만든 거네.

#3 그래 소금 만들어갖고 풀제. 영광서도 다 사러 와.

4. 천일염의 제염 도구

@ 어르신 그 담에 여기. 염전에서 쓰는 도구에는 뭐 뭐들이 있어요?

#1 도구가 쉽게 말하믄 침에 대파.

@ 대파?

#1 응. 소금 걷는 대파. 대파 치는 거. 판 닦는 대파. 또 가넉하는 가넉솔.

@ 가넉솔?

#1 짝간해 갖고 간넉 깨끗이 몰아내야 허니깐, 딱 맞게.

@ 가넉? 가넉?

#1 가넉. 갓을.

@ 가넉에서 쓰는 솔? 글고?.

#1 그러고 인자 뭐 샅. 리아카. 소금샅.

@ 소금삽은 달라요?

#1 아니야. 플라스틱이야. 쓰는 거.

@ 아 플라스틱으로 된 거. 우리 눈 치울 때 쓰는 거?

#1 예. 눈. 녹도 안 나고, 좋잖아요.

@ 그렇죠. 그게.

#1 그걸 써야 돼요. 그거 인제 스텡. 소금 담을 때는 스텡삽. 그거 써야 하고. 뭐 좋으라고 뭐 그거 뿐이죠. 판 것 없어.

@ 도구는 필요 없고.

#1 소금 실는 거 그거 도구.

@ 그리고 인제 가마니는 거그서 갖다 주고잉~?

#1 예, 가마니 인자 회사에서 들여오고.

@ 그럼 어르신 일단 가서 내 지금 조금 있다 가서 도구들이랑 어르신 창고 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창고도 이렇게 따로 소금창고는 따로 부르나요? 뭐라고?

#1 그냥 소금창고라고 그래요.

@ 염창이라고 그런.

#1 아~. 그거 소금창고라 그러지, 뭐.

@ 소금창고는 그냥 그러면 염전 옆에다 그냥 짓는 거죠?

#1 아 그러죠. 바로.

@ 최대한 가깝게?

#1 최대한 가깝게.

@ 소금창고는 어떻게 지어야 돼요? 지을 때.

#1 소금창고는 인자 지을 때 나무로 그 전에는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뭐 판 걸로 짓는다 옛날엔 나무가 흔했기 때문에 나무로 지었고. 지금 육이오 후로 창고여 지금 전부, 소나무로.

@ 아 맞아. 어르신 그거 아까. 오정. 오정이 뭐예요?

#1 전부 일정 이정 정수를 따지는 거고. 평수를.

@ 평수를? 그답에 그래서 아까 어르신 한 배미 두 배미 했는데 배미는 뭐예요?

#1 배미는 인제 한 칸 두 칸. 그것을 한 배미. 두 배미.

@ 논 세는 거하고 똑같이.

#1 예예. 한 칸 두 칸. 일단 이 단 삼 단. 단수로 올라가고.

@ 단수로 올라가구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 두 단하고 정했어요? 그 답에 어르신 창고 지을 때 창고가 환풍이 잘 되야 돼요?

#1 아니 환풍이 잘 되는 것은 소용 없어요. 환풍 잘 되든 만약 바람이 불면 먼지가 들어가가지.

@ 그럼 어떻게.

#1 다 막아야 돼.

@ 비 안 들치게?

#1 비 안 들이치고 바람도 안 들어가게 막아버려야 된다니까.

@ 완전히?

#1 문지. 먼지가 들어가잖아, 바람에. 향사 같은 것이. 안 돼. 다 막아야 돼. 공기 안 들어가게. 물을 어드로 빠지나쁜 바닥에 구멍이 있어. 물 빠지는 구멍. 판자 깔아져갖고 물 하수도가 또 있어, 거가. 그 하수도 다 빠지는 거여. 그래 옆전에 들어와.

@ 그래 들어간다고?

#1 호스 타고.

@ 어르신 그 담에 아까 우리가 뒷물을 끌어올리잖아요. 인제 그 판으로 끌어올린다고? 뭘로 끌어올려요? 어디로 끌어올려요? 뒷물로 가뉘는 거 다시 빼야 되잖아요.

#1 아 수로가 또 있어요.

@ 그러니깐 그 수로로 해서 이게.

#1 수로 해서 각 칸마다 물꼬가 있잖아요. 물꼬 열은 디. 그리 다 인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 어르신 켈 끝에 건 소금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믐 앞에 있는 건 뭐라고 불러요?

#1 뒷물간.

@ 뒷물간? 그걸 뒷물간?

#1 소금 다음 뒷물간. 물 만드는 곳 증발지, 쉽게 말하면.

@ 어. 그렇지. 그리고 인제 어르신 이렇게 딱 했어요. 뒷물 딱 끌어올리는데 아까 어르신은 뭐 옛날에는 물레방아.

#1 옛날에 물레방아.

@ 물레방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1 수리차.

@ 수리차?

#1 예.

@ 물자새라고.

#1 물자새라고도 히고, 간단히 수차라고도 그려. 물 수차. 기차 차자.

@ 어르신 옛날에 많이 쓴 거 뭐예요?

#1 옛날에 그냥 수차라고 많이 썼죠. 수차.

@ 수차? 수차 다음에.

#1 수차랑 수리차가. 수리차나 수차나 간단히 수차라 해 버려.

@ 물자새란 표현은 안 쓰셨어요?

#1 들어와서 썼지만 옆전에는 물자새라고 안 해버려. 그냥 수차라 해버리지.

@ 수차라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수차고. 그 답에 인제 그 답에는 경운기?

#1 경운기.

@ 경운기 엔진으로 물을 끌어올렸어요?

#1 엔진으로.

@ 끌어올린다고?

#1 끌어 올리고.

@ 그답에 뒷물간은 그답에 인제 요즘은.

#1 요즘은 기계 모다.

@ 모다?

#1 수중모다.

@ 수중모다. 어르신 근데 뒷물 모이는 데 뒷물간이란대 그랬잖아요. 이 뒷물간은 그 어느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 뒷물 따라오는 데로 답아야죠.

@ 그러니깐 최대한 크게?

#1 최대한 마이. 마이 답아야 돼.

@ 마이 담아놔야 돼?

#1 마이 담아야 소금이 많이 내지. 뒷물이 짝까되믄 소금도 짝까 밖에 못 나지. 그래 뒷물이 많이 잡을수록 소금을 많이 내는 거여.

@ 뒷물을 잡는다 그래요? 그런 거는?

#1 잡는 거지. 해주에다 잡아 닐다 그러지. 반대로, 사투리 뒷물 잡는다 그러지. 언제 잡아 는는 거지. 물을 갖다 는는 거라 그래야지, 원칙은.

@ 어르신 그러면 여기 뒷물칸 있고 여기 증발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뒷물은 어디 어디서 잡아와요.

#1 위에서 내려온 것이 뒷물이 되죠.

@ 그러니깐 여기가 아까 증발지들 있고. 아까 한 단 두 단 있고 여기에 이렇게 뒷물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에 두는 거죠.

#1 소금판에다.

@ 소금판에다가. 그럼 이 뒷물을 어디서 오냐고.

#1 아 어서 또 내려와야지.

@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1 제 일 증발지. 거서 내려서 이 증발지 와가지고 이 증발지, 결정지로 오는 거여.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뒷물 모아는 데.

#1 해주. 해주.

@ 해주. 이게 해주 있는 물도 어디에서 오냐구요. 여기 증발지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1 아~ 아까 물 내렸잖아요. 내린 것이 인자 비가 온다면 해주로 바로 들어가 부러. 열면, 물꼬 열어서 해수에 들어가는 구멍이 또 있거든.

@ 그러니깐 해주로. 이렇게 여기 있는 물을 해주로?

#1 해주 잡아 뉘어 버려, 비 온다 허믄.

@ 그담에 인제 비가 그치면 다시 해주.

#1 다시 해서 퍼. 기계 돌려서 퍼서 올레.

@ 기계 돌려서 인제 이쪽으로 올려?

#1 올려서 싹 판으로 딱 퍼는 거여.

@ 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판. 그 담에 여기 인제 증발지. 여기 가에는 뭐라고 불러요?

#1 그냥 가늉이라고 그러죠.

@ 가늉?

#1 똑이라고 허고, 똑이고.

@ 똑이라고 그러고?

#1 여기 배수로. 배수로도 있고.

@ 그러니깐 똑 있고 배수로 있고.

#1 퇴수 나가는 배수.

@ 창고에서 아까 그 창고에서 물 빠지라고.

#1 호무때.

@ 호무때를 통해서.

#1 호무때를 통해서 바닥으로 구멍이 떨어져 있어요. 염전 염판까지. 염전 또랑까지. 쓱~ 타고 내려서 인제 이 도로 써먹는 거죠. 소금물 빠진 놈을. 것다 소금물 부으면은 거그서 물이 빠져가지고 호무때를 타고 인자 빠져 나오는 것이죠. 인자 소금이 고실고 실 말라요. 그러니깐 공기가 통하면 이런 먼지가 날라 덩기니깐 될 수 있는 대로 막아 버려야지, 창고를. 바람 안 들어가게.

@ 어르신 추어 올린다는 게 위쪽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1 예. 추어서 모은다고 위쪽으로.

@ 위쪽을 치켜올린다는 말이죠?

#1 치켜 올린다.

@ 그거 아까 염삽?

#1 염삽.

@ 염삽은?

#1 염삽은 도랑도 파고 가늬도 깎고 어디 흙 파다가 이런 디 벌리기도 하고 물꼬 그런 디 다 필요해. 또랑도 밀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절단 난 디 보수도 하고. 염전 일은 짜룬삽하든 허리가 많이 아프잖애. 잘 안 돼. 요즘은 쓱쓱 밀든 잘 들어가요. 찌깐하니깐. 즉 말하면 좁은 디, 가에 좁은 데 또랑도 깎고 그럴 때 필요한 거요. 염삽.

@ 다시요. 뭐라구요?

#1 염전 사는 사람은 염부라 그래. 염부. 그런데 농부 염부 그러데끼. 농부 염부 뭐 그러잖아요. 노가다보다 뭐 뭐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염부예요. 쉽게 말하면 일허는 소금일 허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걸 소금 낼 때 쓸었기 때문에 염삽. 염자를 여 가지고 염부삽 그래요. 안에다 못 박어가지고 치어가지고 때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철사를 쇠로 그냥 막 만들어 써버려. 오래 가고 좋아.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있기는. 몇 개 있어.

@ 있어요?

#1 창고에. 물꼬망치라 그러. 물까고리라 앓고 물꼬망치.

@ 앓를요?

#1 예.

5. 소금의 종류

@ 시작할게요. 어르신 여기서는 뭘 만듭니까?

#1 지금 식렴. 소금을 만들고 있죠.

@ 식렴이요? 식렴이라고 말씀하세요?

#1 소금이라고 하죠. 먹는 소금에다 식렴이라고 인자 하죠. 그니깐 소금을 만드는 곳 이죠. 염전.

@ 소금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소금 종류란 거는 천상. 여그는 한 가지죠. 우리 염전은.

@ 뭐예요?

#1 천일염.

@ 천일염. 그러면 천일염을 생산하신다.

#1 네. 천일염을 생산하고. 또 글안허믄 재제렴을 인자. 또 알랑가. 재제렴 있잖아요. 녹해서 다시 불을 때서 만드는 거. 재제렴이에요. 그것이.

@ 재제렴이요? 예. 그거는?

#1 지금도 우린 안 만들어도 만드는 곳이 있어요. 부안 가믄.

@ 부안 가면.

#1 부안서 계속 만들어. 재제렴. 꽃소금이란 것이 재제렴이여, 쉽게 말하면.

@ 재제렴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1 재제렴 이 소금을 갖다 녹해서.

@ 천일염을 갖다 녹해서.

#1 천일염을 갖다 녹해서. 다시 끓여서 그것을 건져야. 옛날처럼 화렴 자연 내듯기 그런 식이지 불 떼서 화렴으로 그런식으로 다시 해서 꽃소금이 나오는 거요. 그런게 바다에서 옛날에 이 거서부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 옛날 소금 그냥 나오든 화렴이라 그래갖고 불을 떼서 만드는 것이. 조금이 닥치면은 흠을 소로 갈아요. 뿔을 막 갈아. 여 얹어놔.

@ 어르신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여쭙보게요. 어르신 그러면 계절에 따라 바닷물 염도가 다를 거 같거든요.

#1 아 그러죠.

@ 염도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그럴 것 같은데요.

#1 예. 빛깔도 다르고.

@ 빛깔도 다르고. 그럼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별로 따로 명칭이.

#1 아, 아니죠. 천상 물이 싱거우면 싱건대로 갖다가 증발을 시켜야 되고. 도수가 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시키면 더 소금이 더 많이 오고. 비가 자주 오면 맹물이니깐 물이 약 한 도가 내려가면 영 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영 도잉. 바닷물이 싱거져 버리니깐 영도가 나오는데. 그놈 갖다 또 쫓여야 돼. 쫓이면은 정말 소금 바닷물이 평균 삼도를 잡어요. 쯤 아랫녘은 오도가 나오는데. 여 삼도뺀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산이 끼여서 맹물이 많이 내려와요. 여기 산골짜기 물이. 그니깐 싱거요. 싱겁기 때문에 여기서 그믂 미네랄 성분이 쯤 많다는 거요. 소금에서 미네랄 성분. 그래서 민물로 많이 섞어져서 여가 소나무가 많잖아요. 변산인데, 소나무로 억겨진 디. 바위도 많고 그래서 미네랄 성분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 그러면 뭐 그냥 여기서는 천일염 하든 계절에 따라 명칭을 따로 붙인다거나. 몇 월달 소금이 쯤 맞았다거나.

#1 인자 또 한 가지는 송화가루 소금. 솔잎에서 필 때 꽃 여 제방, 여러 가지로 피어나잖아요. 그러면 노란물이 날라들잖아요. 그때가 그것보다 송화가루 소금이라 그래요.

@ 그거 왜 그거 따로 송화가루 소금.

#1 아 그것이 계절에가 즉 말하자면 제일 많이 오는 때여, 소금이. 왕성하게 잘 오고

날이 그양 즉 말하든 젤로 건조허는 때여.

@ 몇 월이에요? 그때가?

#1 그때가 오월 말일부터 유월 초 사인데. 그때가 젤로 소금도 많이 오고 날이 건조하고 그러니까 송화가루 소금 올 때가 좋다고 말은 그러지. 그러나 분명히 송화가루 소금을 우리는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더 받어서 청구를 해요. 더 받아. 그놈만 모아서. 그 계절만 딱 모아서 더 받아요.

6. 영광 굴비

@ 언제부터 굴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4 저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⁴⁾

@ 예.

#4 그때는 경무대였죠? 거기에 납품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도 보내고. 그리고 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삼년간 납품했습니다.

@ 아. 정말이세요?

#4 예.

@ 정말 유명하신 굴비네요?

#4 굴비는 하나 그 우리가 항상 들 수 있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간이 잘 맞아 야 돼요. 이게 그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제일 첫째 신선한 것을 구입해야 돼. 조기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제 맛이 든 고기는 동지가 넘어서 산 고기가 제일 맛이 들어있습니다.

@ 동지 넘어서 산 고기요?

#4 그러죠. 그리고 어~ 소금을 한 이년에서 한 삼년 정도 어~ 묵혔다가 건수가 다 빠진 그 간수라 그러죠? 그래서 그 빠진 다음에 그 소금 가지고 간을 해야 됩니다. 그

4) #4는 김현웅의 발화 내용이다.

리고 간을 할 때는 그 크기별로 전부다 그 시간이 다 있습니다.

@ 음~ 어떻게?

#4 그러니까 아 적은 것은 한 세 시간 반에서 네 시간 정도 이렇게 놔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제일 큰 것은 열두 시간에서 열다섯 시간까지도 놔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맞춰야 아~ 제 맛이 납니다. 그래 세 가지 다 맞춰줘야 돼요.

@ 어르신. 그 굴비는요, 우리가 굴비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조기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다르더라구요.

#4 그러죠.

@ 어떻게 다릅니까, 종류가.

#4 아. 조기는.

@ 예.

#4 우리가 예를 들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빵이 되고 하듯이. 조기는 일단 그 생선입니다. 그 생선을 으~ 염을 해서 어~ 물을 한 칠십프로 빼가지고 어~ 냉동을 시킨 겁니다. 옛날에는 말렸거든요. 지금도 말린 굴비가 나옵니다. 인자 보리굴비 보리굴비 하는데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말려서 어 보리 속에다 저장을 했다가 먹었거든요.

@ 아~ 그게 보리굴비에요?

#4 그러죠. 근데 요즘은 냉동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보리굴비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 응~ 그러니깐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굴비.

#4 그러죠.

@ 굴비 그런 거는 냉동한 것이고.

#4 그러죠.

@ 인제 그 보리굴비 하면은 원래 근데 옛날에도 보리굴비라고 그랬어요?

#4 그렇진 않았죠, 옛날에는.

@ 그냥.

#4 왜냐하면 그~ 그냥 놔두면 부패가 되니깐. 에~ 보리 속에다가 이런 독에다가 차곡차곡 보리 넣고 굴비 말린 놈 넣고 해서 쟁여놨어요.

@ 아 보리를 너요?

#4 그러죠.

@ 보리를 왜 너요?

#4 왜 너면은 그것이 인자 그 수분을 빨아들이고 말려서 보리를 말려서 너면은 수분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해노면 또 염기. 굴비가 들어가면 염기가 있으니까 보리도 바게미도 안 나고.

@ 아~ 잠깐만요. 여기서.

#4 그래서 그 보리가 그 굴비가 부패되지 않게끔 변질이 안 되게끔 보리 속에다가 보리하고 같이 해서 독에다 너놔요. 그러믄 변질이 안 돼요.

@ 그게 인제.

#4 그래서 옛날에 선인들이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리에다 넌 거예요.

@ 어르신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이 조기라 그랬어요? 조구라 그랬어요?

#4 조기지요.

@ 옛날에도 조기라 그랬어요?

#4 예.

@ 응. 어르신 이거를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옛날에는 범성에서 칠산어장에서.

#4 그러죠. 옛날~에는 여기 범성포에서 바로 이 칠산에서 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에~ 극소수로 잡히고 요즘은 인자 제주도 근해에서 잡힙니다.

@ 응~ 제주도 근해에서요?

#4 그러죠.

@ 그담에 어르신 조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래면서요?

#4 여러 가지 아입니다.

@ 그럼 어떻게 다른데요?

#4 아까 제가 그~ 생김새는 다 같은데 그 날짜에 따르고 달에 따라서. 인자 지금 한 구월달부터 잡혀요. 그런데 그 조기는 어~ 아직 덜 영글어가지고 맛이 좀 덜 하죠.

@ 구월 조기를 그럼 뭐라고 따로 부르진 않구요?

#4 글 않습니다.

@ 구월에서 애는 좀 맛이 좀 덜 여물었다구요?

#4 예.

@ 그 다음에요?

#4 그러니깐 동지가 넘어서 그 다음 삼월 말까지 잡힌 조기는 알이 조금씩 배여요. 알이 조금씩 들어 있어가지고 그 조기가 제일 맛이 있지요.

@ 어르신 글고 크기를. 옛날에는요 크기에 따라서 명칭이 따로 있었을 거 같은데.

#4 아 그건 없심다. 지금 현재 인자 그 명칭이라는 게 아까 그 판매하는 가격. 우리가 인자 주는 거죠. 판매하기 위해서 뭐 장~줄이네, 오가네, 명품이네.

@ 장줄이 뭐예요?

#4 장줄이라는 거 인자 이십미 짜리를 장줄이라 그러죠. 여기 이십미.

@ 아~ 그리고 오가는.

#4 오가는 인자 한 줄에 다섯 마리씩 묶는다. 그래서 그거 합치면은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깐 그래서 열 마리죠. 그래서 여가 우리가 붙여는 거죠.

@ 예. 그러면 어르신 우리가 굴비 만드는 것은 참조기도 있고~ 수조기도 있고 뭐 보구치도 있고 조기가 종류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4 예. 조기과에 전부 그 보구치도 있고 백조기도 있고 반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인자 그런 것은 조기가 아니죠. 여 작업을 안 씁니다. 이 조기같이 작업을 안 해요, 그것을.

@ 그래요. 그럼 이 조기는 어떤 종류 조기만 쓰는 건가요?

#4 예. 우리가 예를 들면.

@ 응~ 어르신 그러면 우리가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조기 아까 말씀하신 반어도 있고 보구치도 있고 그런데 이 조기하고 보구치하고. 여기서 말하는 조기는 그러면 참조기만 얘기하는 거냐구요.

#4 그러죠. 뭐 참조기든 붙여서 그러지. 예~ 아까 말현대로 반어나 어~ 부서나 이런 것은 조기과. 예를 들면 고양이과 하면은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리러멧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자 사실은 참조기라 그러는데 참조기 말고 또 판 조기는 없거든요.

@ 아 그래요?

#4 예.

@ 그러니깐 어르신이 말하신 조기는 그냥 다 참조기.

#4 그러죠.

@ 어르신 참조기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은가요?

#4 그걸 인자 그냥 그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봐야 알지. 생김새를 봐야 설명을 하지.

@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못 보죠?

#4 그런 것은 없으니깐 못 보죠. 우리는 조기만. 굴비만 취급하니깐.

@ 그런데 그럼 딱 참조기 특징? 아 이건 조기구나. 딱 놈하고 좀 다르다.

#4 제일 첫째 그 모양새가 다르고.

@ 어떻게요?

#4 모양새~가 색깔도 다르고. 그 반어 같은 것은 무네가, 무늬가 있어요.

@ 무네가요? 무늬가 있어요?

#4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자 백조기라고 조기같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예요. 그래서.

@ 하예요?

#4 예. 그리고 인자 우리가 아 그 참조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금물을 들여놓딴기 노란 빛이 나죠.

@ 그리고 황시리랑 어떻게 달라요?

#4 황시리는 인자 조기같이 노란색은 가졌는데 모양새가 달라요. 머리가 크고 콩지가 아주 가느드란하구 그렇습니다.

@ 반어는?

#4 반어는 그 모양새는 비슷하면서도 색이 틀려요.

@ 어떻게요?

#4 색상이. 검정색도 있고 뭐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색 보면 다 알아요.

@ 보구치는요?

#4 거 보구치가 인자. 보구치를 백조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종류예요.

@ 그렇구나. 어르신 그러면 인제 조기를 이렇게 잡아왔어요.

#4 네.

@ 아 조기는 무슨 그물로 잡아와요?

#4 보통 인자 삼마이 그물이라고 그러죠.

@ 그게 어떤 그물이에요? 삼마이.

#4 거 인자 이렇게 그냥 그~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어~ 아구리를 벌려서 잡는 것이 있고. 또 인자 외줄로 쪽~ 늘어가지고 이백메타 오백메타 막 천메타 이려고 길게 빼 때 놔가지고 잡는 거 있고 그러죠. 근데 인자 아까 이백메타 삼백메타 이렇게 벌려놔 가지고 잡는 것이 조기 그물이에요.

@ 그러니깐 조기는 이렇게 배가 돌겠네요.

#4 아노 안 돌아요. 그물 쳐놓고 기둥고 있죠.

@ 아. 기다려요?

#4 예.

@ 그러면 양쪽에서 두 대가 잡아요?

#4 아노. 그냥 저~기다가 그~ 우끼를 스티로폼 우끼를 달아놓고 밑에는 돌을 달고 그러면 인자 우끼는 떠있고 밑에는 낚으로 된 추를 달아 노니까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러면 조기가 이렇게 당기다가 걸리는 거죠.

@ 무슨 그물이라 그런대구요?

#4 어~ 저는 잘 모른디 거~ 투망이라고 그러데요. 삼마이 그물이라고.

@ 어르신 인제 조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비 만들라면?

#4 인자 냉동을 시키죠. 일단은 우리가 인자 뭐 한 짝 두 짝 사는 거 아니고 한 번 사면은 수 백 짝씩 사니깐. 아~ 급냉을 시켜요. 영하 사십도 이하에 떨어지는 냉동 급냉시켜가지고 그것이 인자 내가 작업할~만치 해동을 시켜서 작업을 하죠.

@ 어떻게요?

#4 해동시켜서 인자 그 선별을 하죠. 크기 적게 해서 크기로 전부 선별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소금 염해서.

@ 어르신~ 소금 염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4 그대로 염한다고 그러죠.

@ 그래요? 염한다 그래요?

#4 예.

@ 여기 보니깐 섯간한다는 말도 있던데?

#4 섯간이라는 게 옛날에 그 독간 있고 섯간 있고 그러거든요?

@ 아 그래요?

#4 예. 그러면 독간이라는 것은 이~ 큰 구덩이, 거기다가 인자 그 소금 뿌리고 조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이 안 빠지게. 물이 빠질 수가 없이. 독이니까~ 거기다 넣고 간을 하는 거고.

@ 아까 보리 넣고 하는 거요?

#4 아니요. 거 인자 조기를 사다가 아~ 소금 뿌리면서 그 독에다가 자꾸 쟁어요. 그래서 인자 간을 하는 거 있고 또 섯간이라는 것은~ 인자 발을 넣고.

@ 발이요?

#4 예. 발을 밑에다 깔고~ 조기 한 두름 넣고 소금 허고 조기 한 두름 넣고 소금 허고 해서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인자 물이 쪽 간이 먹으면서 물이 빠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섯간이라 그래요.

@ 어르신 근데 어느 게 더 맛있어요?

#4 섯간을 해야죠. 요즘 그 독간 안 씁니다.

@ 어르신 그럼 아까 그 보리굴비 있잖아요.

#4 예.

@ 개는 보리 넣고 이렇게 쟁였잖아요.

#4 그러죠.

@ 소금 넣고 쟁였잖아요.

#4 그것은 인자 그~ 아~ 한 겨울에 예~ 십이월 달이 되면은 말려요.

@ 어디다요?

#4 인자 건조실에다가. 바깥에다 말리면은 그게 인자 눈이 오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저기 강원도에 황태 말리듯기 그렇게 말려요. 어~ 말리면은 인자 황태 같은 것은 바싹 마르든 기름이 안 납니다. 그러지만 조기는 기름이 나요.

@ 바싹 말려도?

#4 예. 빠싹 말려도 기름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아~주 고소와요. 그 기름이 안 나면 맛이 없어요. 그 기름이 나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옛날 선인들이.

@ 예. 말리신 거구요?

#4 그 보리 속에다 묻어서 독에다가 그렇게 현 거죠.

@ 어르신 그러면 요즘도 섯간을 하나요?

#4 요즘 다~ 섯간하죠.

@ 어르신도 섯간하세요?

#4 그러죠.

@ 응~ 섯간해 가지고 인제 그걸 어떻게요?

#4 시간이 되면 쥘어야죠.

@ 엮어요.

#4 예.

@ 그 엮는 걸 뭐 한다 그래요?

#4 엮걸이라 그래요.

@ 엮걸이라 그래요?

#4 인자 그 하시는 아줌마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와서 엮어줘요.

@ 엮어줘요?

#4 예. 우리는 샅 주고.

@ 응.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4 그걸 인자~ 한 두 번 세 번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서 걸대다 겁니다.

@ 걸대요?

#4 예~ 걸대에다 걸어서 어~ 물을 한 칠십 프로 정도 빼요.

@ 걸대. 근데 그것도 요즘은 걸대에다 건단 얘기죠?

#4 그러죠. 다 걸죠.

@ 실내예요?

#4 예. 인자 그 물을 다 빼기 위해서 실내에다 요즘 인자 그 파리나 뭐이 달라 드니
간 실내에다 놓고 에어컨 틀죠.

@ 아~ 그래가지고.

#4 물을 빼서 물을 한 칠십 프로 정도 빠진 후에 냉동을 시켜요.

@ 어르신 그러면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하구요. 그러면 이거 조기 말린다는 표현이 거기에 건조
실에서 그냥 말린다 그러나요?

#4 그러죠.

@ 그러면 조기 뭐하고 있어? 그럼 조기 말려 그래요? 안 그러면 조기 건조시켜 그래요?

#4 인자 그 두 가지를 찾는데 소비자들께서. 뭐 이렇게 냉동시킨 조기를 가지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마른 굴비를 가져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할 만큼 겨울에 말리죠.

@ 예. 어르신 굴비 가지고는 무슨 음식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가?

#4 그냥 인자 구워먹는 거.

@ 어. 구워먹는 거.

#4 어~ 그 다음 인자 찌개도 해먹고요.

@ 예.

#4 또 튀김도 해먹고.

@ 예.

#4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 부쳐 먹고.

@ 여기서 특별하게 독특하게 해먹는 거 없나요? 우리들이 상상 못하는 거? 이 동네에서만 잘 먹는 거.

#4 우리는 인자 그 전 부치는 거. 그걸 맛있게 잘 먹어.

@ 그 생조기로요?

#4 예.

@ 생조기로 전을 부쳐요?

#4 예. 전을 부쳐요.

@ 그 답에 어르신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게 보리굴비죠?

#4 그러죠.

@ 그래서~ 최근에 냉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쯤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굴비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4 한 이십년 좀 넘었죠?

@ 그 전엔 다 그냥 굴비였어요? 그 전엔 굴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4 그렇게 아까처럼 썰간도 하고 보리굴비도 만들고.

@ 보리굴비도 만들고.

#4 그~ 옛날에는 예~ 서울 그 한냉이나 중부시장 같은데. 그리 다 하루에 이십 대 삼십 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냥.

@ 저 생조기가요?

#4 생조구. 간 해가지고. 조기 만들어서. 냉동을 못 시키니까. 냉동 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날 다 판매해버려. 서울에서.

@ 그래 그냥 그렇게. 어르신 그러면 그 우리가 보리굴비~라는 게 사실 그럼 임금님한테 진상된 거예요?

#4 그렇죠.

@ 독간이나 썰간한 게.

#4 그것도 하고.

@ 하구요?

#4 예.

@ 그러구나. 어르신 제가 일단 아까 어르신 아까 손질해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보러 가도 될까요?

#4 예. 그러죠.

@ 와 이거 오징어 같은 데요? 어르신 이게 지금~ 뭐 하실려고 놔두신 거예요?

#4 작업할라고.

@ 냉동된 거를.

#4 냉동 돼야 있으니깐 해동을 시켜야 돼요.

@ 해동시키는 거예요?

#4 예.

@ 옛날에는 해동시킨단 말 안 쓰셨을 거 같은데.

#4 아~ 그러죠. 옛날에는.

@ 뭐라고 했을까요?

#4 옛날에 그냥 잡어다 그냥 했죠.

@ 그냥 작업한다 그랬어요?

#4 예.

@ 뭐 냉동 여기 놔둔다 그런 말 안했어요?

#4 예. 그러죠. 옛날에 냉동이 없을 때는.

@ 여 황금빛이 정말 많이 나네요잉~.

#4 예. 이렇게 나야 돼요. 그래야지.

@ 야. 이게 진짜 참조기구나. 어르신 말씀 들어보니 그 백조구라는 거 하고 차이가 확실히 알겠어요.

#4 예. 그러죠. 그건 하~얘요. 이게 지금 보문은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내가 말한 대로 십이 월달 넘어서 산 것이예요.

@ 예.

#4 예? 그래서 저렇게 놀놀해요. 요것은 시월 달에 산 거예요. 이 잔건데.

@ 아. 이게 동일한 조건데도. 이거는 십일 월달 넘어서 동지 넘어서 산 거고.

#4 예. 이것은 동지 닥치기 전에 산 거고. 그 물건 자체가 틀리잖아요?

@ 야! 그러네요.

#4 예. 그래서 그 맛 차이가 납니다.

제 4 장 조사된 어휘

1. 명칭과 행위자

1.1. 소금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이다. 염도가 25%가 되어야 소금 결정이 만들어진다. 소금은 제염하는 방법에 따라 자염과 천일염 등으로 구분한다. 자염은 자염법(전오제염법)으로 생산한 소금이다. 자염법은 바닷물을 구워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천일제염법으로 생산한 소금인데, 천일제염법은 바닷물을 염전에 모아서 막아 놓고, 햇볕에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다.

- ⇒ 먹는 {소금에다} 해서 식렴이라고 인자 하죠. 잘잘헌 놈이 더 식렴에는 최고 좋은 거여. 젓 담는데 열고. 굵은 썩글썩글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소금 같은 굵게는 잘 안나오. 진물로만 좋은 물만 난게. 뜯물이 물이 약한 놈이 들어가야 굵어지는 거여.

1.2. 염전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여 논처럼 만든 곳이다. 천일염의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따라 난치, 누테, 결정지라 부른다.

자염에서는 염전을 포함한 상위어로 ‘염장’이란 말을 쓴다. 염장은 소금을 채취하는 장소로 염전, 염막, 염정, 해수저장지 등으로 구성된다. 염장에는 염토(鹽土)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간서지 상의 염전을 비롯해 염토를 작은 둔덕의 형태로 쌓아 간수를 추출하는 섯등, 여과장치인 섯등에 주입할 바닷물을 저장하는 해수저장지, 여과된 간수가 흘러와 고이는 염정, 아궁이에 가마를 걸고 소금을 굽는 실내작업장으로서의 염막 등 다양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홍금수 2006, 142)

- ⇒ 그니깐 소금을 만드는 곳이죠, {염전}

1.3. 여맹이/염부

소금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는 ‘여맹이’라고 불렀으나 요즘은 ‘염부’라고 부른다.

그런데 자염법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염부의 명칭을 구분한다. ‘염한 또는 여맹이’는 염부(가마솥)를 만들고 손질하는 사람이나 가마솥에서 소금을 구워내는 사람, ‘두루치기’는 개흙을 써레로 밀고 번지로 분쇄하는 일을 하는 사람, ‘구덩이꾼·괘갱이꾼’은 샷일꾼, ‘무쟁이’는 자염 생산을 총관리하는 사람을 이른다.(김일기 2006, 19, 34)

⇒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역할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여맹이라} 그래. {염부라고도} 부르고.

1.4. 염부장

소금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이다.

⇒ 염부장이라고, 장있고. 총 책임자 {염부장}

2. 제염 설비

2.1. 자염의 설비

2.1.1. 셋등

자염을 만들 때, 염도가 높은 간수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김일기(2006, 29~30)에 의하면, 셋등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염전 내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 개흙을 쌓은 후에 2~3m 깊이의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 안쪽은 점토로 단단하게 다지고, 내부에 목판을 대거나 그냥 둔다. 셋등 위에는 나무 기둥을 걸쳐 놓은 다음 다시 그 위에 소나무 가지나 갈대(보릿대로 엮은 거적, 솔가지) 등을 두껍게 덮은 다음 그 위에 염분 함량이 많은 함사(鹹沙)를 덮는다. 셋등 위에 함사를 평평하게 하고 돌레를 쌓은 다음 그 위에다 바닷물을 부으면 해수가 함사에 침투되어 그 속에 함유된 염분을 여과시켜 농도가 높은 간수가 셋등 밑에 고여 흠통을 통해 흘러나온다. 나뭇가지나 갈대로 경그레를 하는 이유는 바닷물을 함사 위에 퍼부을 때 함사가 거적을 통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여 양질의 간수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경상도는 ‘섯’, 강원도는 ‘간수통’, 전라도는 ‘섯등’, 충청도 서산·태안 지역은 ‘간통’이라 부른다.(유승훈 2008, 76)

- ⇒ 바다 가에다 허거든요. 바다 가에 가서 조금이 닥치믄 물이 거까지 다 안 들어와요. 그 속에다 구멍, 이 통을 뚫어요. 바다 이 구멍을 파고, 땅을 잉~. 파고 그 데다가 나무를 이렇게 걸쳐서 다 해서 이 속에 움막을 만들었어요. 땅 속에가 굴이 들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인자 그것보다 {섯등이라} 그래요. 셋등. 조금 때 이렇게 뺨을, 저저 바다를 갈아 놔. 쟁기로 싹 갈아 놔다가 인자 물이 또 많이 들믄은 물 적실 거 아닌가요? 적시믄 흠에 소금 분발이 펴요. 흠에서. 그러믄 인자 그놈을 인자 또 조금이 닥치잖아요. 그믄 고놈 딱 몰랐을 때 그놈을 갖다가 셋등 우에다 올려놔. 구덩이 판 자리 우에다.

2.1.2. 염구덩이

자염을 만들기 위해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셋등 아래에 소금물을 모아 두는 곳은 물론, 셋등 위에 바닷물을 붓기 위해 바닷물을 모아두는 곳, 벌막에서 소금물을 굽기 전에 소금물을 두는 곳을 통틀어 이른다.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염구덩이를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셋등 아래의 염구덩이는 ‘짚물구덩이, 갈통’이라 부르고, 셋등 옆에 바닷물을 모아두는 구덩이는 ‘어여구덩이’라고 부른다. 갈통은 충남 서산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며, 어여구덩이는 남양과 임천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 ⇒ 여 짚 물이 이 흠에 먹었던 간수가 올로해서 빠지믄 여가 탱크가 있지. 요렇게 인자 깊이 파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에 있는 데를. {염구덩이지} 그 인자 여 간수 빠지는 데 염구덩이라 근디.

2.1.3. 해주

벗집에서 소금물을 줄이기 전에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를 이르기도 하며, 천일염에서는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를 뜻한다.

- ⇒ 옆에 가마솥 옆에 물이 구덩이가 또 있어요. 물 구덩이. 물 구덩이 그걸 뭐라 불렀어요? 해주. 물 모으는 자리. {해주}



[사진 6] 해주

2.1.4. 벌막/벗집

섯등에서 모은 소금물을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장소이다. 150~200여 개의 소나무 기둥을 이용해 축조한 벗집은 5m 남짓의 높이에 짚으로 지붕을 이었으며, 내부 면적은 50평 전후한 규모이다. 벗집은 별도로 굴뚝을 내지 않고 지붕 중앙을 개방해 작업할 때 발생하는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궁이와 솥의 위치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연기 구멍에 빗겨 위치시켰다. 벗집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 지붕을 갈아주기만 하면 10~15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 시설이었다.(홍금수 2006, 142) 벗집 안에는 염부, 염조, 굴출장, 염치장, 함수지 등이 있다.(김일기 2006, 30) 한말과 일제강점기 문헌에는 ‘부옥’이라 표현되어 있다.(유승훈 2008, 78 참고)

- ⇒ 그 간수를 질러다가 인자 밀지게로 쳐다가 벗집으로 가. {벗집} 탱크로 가서. 벗집 첩판 거그다 부서. 그라고 불 때. 밑에서 불 때서. 화목으로 때서 인자. 거 화렴. / 아깁 벗집이라면서요? 벗집이라도 허고 {벌막이라고도} 허고 그래요. 말리는 게.

2.1.5. 옷집

벗집 위에 이엉을 엮어서 만든 지붕을 이르는 말이다.

- ⇒ 가마가 여섯 평만한 놈에다가. 옥에는 {옷집을} 다 해 봤으니깐. 우측으로 이어서. 영으로 엮어서 이어서 나무도 다 걸쳐서잉~ 다 이어 봤어. 비 못 들어 가게.

2.1.6. 영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이기 위하여 짚이나 새 따위로 엮은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 ⇒ 옥에는 옷집을 다 해봤으니깐. 우측으로 이어서. {영으로} 엮어서 이어서 나무도 다 걸쳐서잉~ 다 이어 봤어. 비 못 들어가게.

2.1.7. 첩판

벗집에서 소금물을 졸일 때에 쓰는 가마솥이다. 조선시대에는 가마솥을 썼으나 1950년대에는 미군의 드럼통을 넓게 펴서 잘라서 만들었다고 한다. 크기는 약 6평 정도이며, 사방에 철근을 이어 솥을 걸었다고 한다. 소금을 만드는 판이라 해서 ‘소금판’이라 부르기도 한다.

옛날 간수를 가열하는 데에 쓰는 가마솥으로는 만드는 재질에 따라 토부와 철부, 석부가 있었다. 토부는 흙으로 만든 가마솥이다. 조개를 모아 구운 다음 빵아서 조개가루를 만들고, 조개가루를 간수로 반죽한 다음 나무 기둥을 걸쳐놓고 그 위에 짚(또는 대나무)을

깔고 그 위에 묽게 갠 조개회를 얇게 깔아 토부 바닥을 만든다. 조개회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가락(갈고리)을 만들어 굳기 시작한 조개회 사이에 넣고 끈을 만들어 위에 있는 기둥(걸침목)에 매어 단다. 이때 가마솥 밑으로 불을 서서히 지피면 조개회가 더욱 굳어진다. 또 나무를 제거하면 완전히 굳어진다. 그리고 끈(새끼나 갈피로 만듭)을 매어 가마솥을 고정시킨다. 토분은 연료 소모율이 적고 녹이 슬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 과정이 힘들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다.(김일기 2006, 18~23) 내구성은 40일에 불과하다.(홍금수 2006, 157) 철부는 철로 만든 가마솥이다. 철부는 여러 개의 철판 조각을 연결하여 만든다. 토부에 비해 수명이 오래가나 녹이 잘 슬고, 연료소모율이 높은 단점이 있다.(김일기 2006, 18) 석부는 평평한 산석 혹은 벼의 파편 등을 조개회로 칠한 뒤 굳혀서 만든 가마솥인데 제작 방법은 토부와 비슷하다.(유승훈 2008, 86)

- ⇒ 벌막인데 가마솥에 인제 만들어서 딱 걸어서 인자 딱 해서 {철판을} 해가지고 가마솥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물을 질러다 부서서 불을 때요. 불을 때면 인자 도수가 인자 이십오도가 되어야 그것도 소용하는 거여. 때 가지고 막 불 때면 이십오도 되고. 소금 앵개. 앙키게 되면 불 딱 꺼버려요. 꺼버리면 완전히 소금 되어 버려, 전부 물이.

2.1.8. 부석

솥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이다. 연료를 투입하여 연소시키는 시설로서 크기와 형태는 그 위에 걸리게 되는 소금가마솥에 준해서 정해진다.(홍금수 2006, 158) 벚집의 땅을 정방형으로 파낸 뒤 황토흙과 석회, 그리고 돌을 혼합하여 만들었다. 폭은 3척 4촌, 높이는 2척 8촌이다. 가마 아래와 접하는 부위 4곳에 구멍을 뚫어 불길이 여러 곳으로 퍼지게 하였다. 그리고 분구보다 아궁이 바닥을 낮게 하여 공기의 지나친 공급을 방지하였다.(유승훈 2008, 78~79)

제보자는 예전에 ‘아궁지’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 ⇒ {부석이라기도} 허고 막 그랬쥬. 우리는 인자 어려서부터 학교를 대냈기 때문에 표준말 많이 썼쥬. 옛날 어르신들 사투리 많이 쓰고 우리는 표준말 많이 썼고.

2.1.9. 기뚝

불을 땄 때에, 연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만든 구조물이다. 실제 벚집에는 굴뚝이 없고, 지붕의 가운데가 뚫려 있다. 연기가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지붕을 뚫어 둔 것이다. 염부들은 그것을 ‘기뚝’이라 불렀다.

- ⇒ 기뚝이지, 펜야. {기뚝} 연기 나간다고. 그 보면 알아. 소금 굽는데. 연기 나는데.

2.2. 천일염의 설비

2.2.1. 난치

천일염을 만들 때의 제1증발지를 이르는 말이다. 보통 바닷물을 저장해 두는 저수지 근처에 있으며, 염전 중에서 가장 넓다. 옛날에는 바닷물을 저장한 저수지 물을 수리차를 이용해서 난치로 올렸다. 난치의 배미는 600평 정도이며, 아랫단으로 내려갈수록 500평, 400평으로 배미의 평수가 줄어든다. 결정지에 이르면, 바닷물의 1/100만 소금으로 결정된다.

- ⇒ 물에다 딱 넣으면 거시게 수리차 사람 올라가서 뚫은 물레방아 질로 돌아가, 물이. 그것은 인자 {난치로} 올라가지. 거기다 깔아줘, 이도 물을.

2.2.2. 누테/느티

천일염을 생산할 때의 제2증발지를 이르는 말이다. 난치와 결정지 사이에 있으며, 난치가 6단이라면, 누테는 4단 정도의 크기이다. 그에 따라 배미의 평수도 300평, 200평, 100평으로 줄어든다.

- ⇒ 여섯 단은 제1증발지. 그 밑에 네 단은 {누테,} 제2증발지. 제1증발지는 뭐라고 불러요? 물 만드는 곳, 난치. 여그는 결정지. 난치, 누테, 결정지. / 여 제일 밑에는 난치. 그 담에가 {느티,} 그 담 소금 굽는 데가.



[사진 7] 난치



[사진 8] 누테

2.2.3. 결정지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며, 소금을 채취하는 장소이다. 누테의 작은 평수인 100평을 절반으로 나뉘어서 50평을 한 배미로 만든다. 결정지의 배미는 작은 것이 특징이다. 배미가 크면

소금 결정이 바람에 의해 한 곳으로 몰리기 쉽다. 소금물이 배미에 고르게 퍼져 있어야 소금결정이 잘 된다. 그래서 배미의 평수를 좁게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소금을 채취하기에 유리하다.

- ⇒ 소금을 결정시킨다 그래서 {결정지}, 이름이. 쉽게 말하면 물도 다 결정되고 헨다 해서 결정지로 되어 있어요.



[사진 9] 누테와 결정지

2.2.4. 물꼬

염전에서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이다. 물꼬는 보통 30cm 정도이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제보자는 옛날 방식인 모래주머니를 쓰지만, 요즘은 고무판을 쓰기도 한다.

- ⇒ 일단 이단 삼단이 물이 없잖아요. 사단에가 물이 있잖아요. 사단. 그것을 삼단으로 물을 내려주어야 돼요. 예. {물꼬를} 막고. 이거는 도랑 미는 거.



[사진 10] 물꼬(1)



[사진 11] 물꼬(2)

2.2.5. 또랑

염전의 배미와 배미 사이에 소금물이 흘러내리는 좁은 개울을 이르는 말이다. 염전에서 도랑의 구조는 복잡하다. 도랑에는 소금물을 모으는 해주로 가는 배수로와 못 쓰는 물을 버리는 배수로가 있다. 이 사이의 길은 물꼬의 모래주머니를 움직여서 만든다.

- ⇒ {또랑} 밀어 오잖아요, 저기서. 밀어 오면 저기 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은 내리는 건 요렇게 막고. 여기서 여기가 차이가 칠전낙차가 있어요. 칠전낙차. 예 그러니깐 여그서 열면 내려가 버려요. 낮게. 여그 다 뽀뽀한 거 같어도 다 그만치 차이 있는 거예요. 이 배미고, 이 배미고. 그렇게 이놈 열면 알로 내려가 버리죠.

2.2.6. 뚝

염전의 소금물이 밖으로 세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쌓은 언덕이다. 뚝은 바닥에서 보통 15cm 정도이며, 소금물은 보통 뚝의 70%~80% 정도 채운다.

- ⇒ 이 뒤에도 염전이 있다 해서 막어 갖고. 우리가 막어 갖고. 갯물을 못 들어오게 {뚝} 막어 갖고 딱 그 염전을 쥐서.



[사진 12] 또랑과 뚝

2.2.7. 판

염전의 바닥을 이르는 말이다. 염전의 판도 염도가 다르다. 난치, 누테, 결정지 순으로 짜며, 결정지의 판을 ‘짚판, 소금판’이라 부른다. 1950년대 자염에서는 가마솥 대신에 미군의 드럼통을 자른 철판을 이어 붙인 것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철판’이라 불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금을 생산하는 바닥을 ‘판’이라 부른 듯하다.

- ⇒ 또랑 밀어 오잖아요, 저기서. 밀어오면 저기 {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인자 이 높은 삼단에서 이단. 비었으니깐 내려줘야죠. 짜지 짚판이라 벌써 소금이 일렀잖아요. 그렇게 이놈 인자

내리면은 증발이 되죠. 짜지죠 물이. 증발이 되어 갖고. 그래서 내려주는 거예요. 물 증발시키기 위해서 이거 물을 내려요.

2.2.8. 가녁

염전 판의 가장자리를 이르는 말이다. 염전의 가장자리는 바닥 중에서 먼지가 끼기 쉽다. 그래서 염전의 판을 닦을 때에는 대파와 모양은 비슷하나 크기가 작은 ‘가녁솔’을 사용한다.

⇒ 판 닦는 대파. 또 가녁하는 {가녁솔} 가녁솔? 찌간해갖고 가녁 깨끗이 몰아내야 허니깐, 딱 맞게.



[사진 13] 판과 가녁

2.2.9. 배미

염전의 구획진 부분을 세는 단위이다. 대개 염전은 바둑판 모양으로 생겼는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을 이룬다. 배미의 가장자리에는 바닷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둑과 도랑이 둘러져 있다. 염전 배미의 크기는 난치, 누테, 결정지가 각각 다르다. 난치의 배미는 600평에서 400평 정도이며, 누테의 배미는 300평에서 100평 정도이며, 결정지의 배미는 50평 정도이다.

그런데 서해안의 자연에서는 염전을 따로 조성하지 않고 갯벌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미는 천일염 염전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다.

⇒ 그런게 이 {배미} 마다 도수가 다 틀려요. 씻겨가. 오늘 내론 놈, 널 내론 놈, 예를 들은 어저께 내론 놈 다 도수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요?

2.2.10. 단

염전의 구획진 부분을 세는 단위이다. 대개 염전은 네모난 모양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한 줄을 ‘단’이라 한다. 보통 난치와 누테, 결정지는 4단까지 있다. 결정지 쪽으로 단이 내려올수록 소금물의 염도가 올라간다.

- ⇒ 일단 이단 삼단이 물이 없잖아요. 사단에가 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삼단으로} 물을 내려주어야 돼요. 예. 물꼬를 막고.

2.2.11. 칠전낙차

염전의 배미마다 높이가 칠전씩 낮아지는 차이를 이르는 말이다. 난치에서 누테로, 누테에서 결정지로 소금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배미마다 높이가 낮아져야 한다. 대개 배미의 단마다 칠전씩 낮게 만든다고 하여 ‘칠전낙차’라 말한다. 제보자는 이러한 염전의 조성 방식을 ‘루아식’이라 불렀다.

- ⇒ 밀어오면 저기 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은 내리는 건 요렇게 막고. 여기서 여기가 차이가 {칠전낙차} 있어요. 칠전낙차. 예 그러니깐 여그서 열면 내려가 버려요. 여그 다 뺀듯한 거 같어도 다 그만치 차이 있는 거예요.

2.2.12. 염전머리

저수지와 가까이 있는 난치의 첫 단(끝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염전의 시작이라 하여 ‘머리’라 부른다. 그러나 ‘머리’에 상대되는 말로 결정지를 ‘꼬리’라 부르지는 않는다.

- ⇒ 끌어서 올려, 양수 해가지고 썬~ 송수로라고 인자 송수로 물 버리는 곳. 그래가지고 송수로 보내 가지고 뒤에 가서 {염전머리} 머리 가서 예비 저수지가 있어. 저기 이빠이 채어 노면은 여기서 필요한만치 끌어내리는 거여.

2.2.13. 소금해주

소금 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25% 정도의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이다. 비가 와서 소금 결정을 만들 수 없거나 결정지가 비어 있지 않아서 소금 결정을 만들 수 없을 때에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이다. 대개 소금해주는 결정지 바로 옆에 있으며,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지붕이 있다.

- ⇒ 그 밑에 치는 {소금해주} 이건 뒷물해주. 쉽게 말하면. 그 담 뒷물. 그 담 물 그 담 물.

2.2.14. 뒷물해주

소금물이 되기 전의 물, 곧 뒷물을 저장해 두는 구덩이이다. 대부분 누테 옆에 있다.

제보자는 ‘뒷물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 그 밑에 치는 소금해주. 이걸 {뒷물해주} 쉽게 말하면. 그 담 뒷물. 그 담 물 그 담 물.

2.2.15. 수리차/수차

바닷물을 저장해 둔 저수지에서 염전의 난치로 물을 끌어 올릴 때에 쓰는 물레방아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물레방아 위에 올라가 한 발 한 발을 디디면, 물이 따라 올라온다.

전라도에서는 물레방아를 ‘물자세’라고 하는데, 염전에서 쓰는 물레방아만 ‘수리차, 수차’라고 부른다.

⇒ 옛날에 {수리차여} 그것이. 물자세라 그러고. 이쪽 염전에서는 수리차라고. 저 농터에서 쓸 때는 물자세라고 그랬어. 물에다 딱 넣으면 거시게 수리차 사람 올라가서 뚝뚝은 물레방아질로 돌아가, 물이. 그것은 인자 난치로 올라가지.

2.2.16. 소금창고

결정된 소금의 물기를 빼고, 말려서 저장하는 장소이다. 바람이나 비가 세지 않게 판자로 막아져 있으며, 창고 바닥은 가운데가 더 낮게 경사져 있다. 그 아래로 소금물이 내려가는 호무때가 있다. 소금에서 물이 빠지면 그 뒷물은 소금창고의 가운데로 흘러서 호무때로 간다. 한자어로 ‘염창’이라 부르기도 한다.

⇒ {소금창고는} 인자 지을 때 나무로 그 전에는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뭐 딱 걸로 짓는다 옛날엔 나무가 흔했기 때문에 나무로 지었고. 지금 육이오 후로 창고여 지금 전부, 소나무로.



[사진 14] 소금창고-내부(1)



[사진 15] 소금창고-내부(1)



[사진 16] 소금창고-외부(1)



[사진 17] 소금창고-외부(2)

2.2.17. 호무때

소금창고 바닥 밑 부분의 배수로를 이르는 말이다. 호무때에 모아진 소금물은 다시 결정지로 흘러가도록 배수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모아서 두부를 만드는 공장에 간수로 팔기도 한다.

⇒ {호무때를} 통해서 바닥으로 구멍이 떨어져 있어요, 염전 염판까지. 염전 또랑까지. 쓱~ 타고 내려서 인제 이 도로 써먹는 거죠. 소금물 빠진 놈을. 것다 소금물 부으면은 거그서 물이 빠져가지고 호무때를 타고 인자 빠져 나오는 것이죠. 인자 소금이 고실고실 말라요.



[사진 18] 호무때

이상으로 염전의 제염 설비에 관한 조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염 설비
자염	섯등, 염구텅이, 벗집/벌막, 철판, 해주, 옷집, 영, 술을 걸다, 부삭, 기뚝
천일염	난치, 누테/느티, 결정지, 물꼬, 또랑, 뚝, 판, 가녁, 배미, 단, 칠전낙차, 염전머리, 소금해주, 뒷물해주, 수리차, 소금창고, 호무때

3. 제염 도구

3.1. 자염의 제염 도구

3.1.1. 쟁기

바닷물을 머금은 갯벌의 흙을 가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 소에게 멩에를 씌우고, 쟁기질을 한다. 조금 때는 바닷물이 적어, 높은 쪽 갯벌에 물이 닿지 않는다. 그 개흙을 쟁기로 간다.

쟁기는 논밭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햇볕에 굳어진 염밭을 갈아서 뒤집어엮는데 이용한다. 쟁기를 끄는 소의 마리 수에 따라 ‘호리쟁기’와 ‘겨리쟁기’로 나눈다. 호리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로, 중부 이남 지역에 분포한다. 반면 겨리쟁기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로, 북부와 강원도 산간 지방에 분포한다.(유승훈 2008, 88)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자염에서 갯벌을 갈 때에는 쟁기, 씨레, 번지 등을 사용했다. 씨레는 쟁기로 일군 염전의 흙을 분쇄하는 도구로, 개흙이 태양열에 노출되는 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흙을 분쇄한다.(홍금수 2006, 162) 씨레는 참나무와 소나무로 만들며, 발 부위가 단단하도록 해야 땅이 잘 뒤집어진다.(유승훈 2008, 88) 번지는 씨레가 토사를 긁고 지난간 뒤 염전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함토 덩어리를 부수는 도구로, 장방형의 나무 판자 양쪽에 구멍을 뚫고 줄을 메단 형태이다.(유승훈 2008, 89) 충남 서산 지역에서는 번지를 ‘댕이판’이라 부른다.(김일기 2006, 25)

⇒ {쟁기로} 갈아노면은 물이 들랑날랑 도로 함산해서 이래 민들해져 버려. 쉽게 말해 염분 끼면서. 인자 그러믄 인자 고놈을 갖다 올리는 거지. 갈아 났으니 떠 갖고 있으니깐.

3.1.2. 씨레

바닷물을 머금고, 표면에 염분이 낀 개흙을 셋등 위로 올리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 씨레에 긴 판자를 붙여서 사용한다.

문헌에 의하면, 자염에서 개흙을 셋등으로 올릴 때에는 ‘미래, 나레/나래’를 사용했다. 미래는 말린 개흙을 모으는 도구이다. 그리고 나레(나래)는 소가 끄는 도구로, 개흙을 셋등으로 긁어 올릴 때에 쓰거나 셋등의 흙을 염전 면에 살포하는 데도 쓴다. 나레는 두세 개의 긴 나무판을 이어서 만들거나 한 개의 나무판 위에 잔나무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나무판 양쪽에 구멍을 내고 줄을 꿰서 소에 메달 수 있게 하였다.(유승훈 2008, 89)

- ⇒ 쟁기로 싹 갈아놨다가 인자 물이 또 많이 들은은 물 적실 거 아닌가요? 적시든 흠에 소금 분말이 퍼요, 흠에서. 그러든 인자 그놈을 인자 또 조금이 닥치잖아요. 그든 고놈 딱 몰랐을 때 그놈을 갖다가 셋등 우에다 올려놔. 구덩이 판 자리 우에다. 여 딱 싸 노든은. {써레로} 그냥 긁어모으는 거죠.

3.1.3. 밀지게

셋등 아래에 모인 소금물을 벌막으로 옮길 때에 쓰는 도구이다. 넓은 등판에 긴 나무를 대고 양쪽에 갈고리를 메달아서 물통을 걸 수 있도록 하였다.(유승훈 2008, 90)

- ⇒ 그 간수 담은 통이. 그면 그 간수를 질러다가 인자 {밀지게로} 쳐다가 벗집으로 가. 벗집 탱크로 가서. 소금판이죠. 철판으로 그때 만들어. 그래 거기 다 갖다 부어.

3.1.4. 질통

소금물을 벗집으로 옮기는 도구이다. 물지게에 걸어서 사용하였다. 물통이라 부르기도 한다.

- ⇒ 바가지로 퍼야지. {질통에다} 그래가 담어.

3.1.5. 바가지

셋등에 모인 소금물을 퍼낼 때에 쓰는 도구이다. 바가지에 긴 막대를 이어 붙인 형태이며, 셋등 아래 구덩이에 모인 소금물을 퍼 올린다.

- ⇒ 바가지 인자 지드란허게 저걸 담어. 나무 자루를 달아가지고 바가지에다, 짙은 데서 꺼내는 거예요. 구멍 열고 담어다가 붓고. 또 여그 솔에다 부술 때도 그 {바가지} 글로 떠서 부서, 담아서 찾고 증발시키는 거여, 그래야 많이 남아.



[사진 19] 바가지

3.1.6. 당그래

가마솥에서 결정된 소금을 굽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 긴 나무 자루 끝에 나무 판자를 대서 '⊥'자 형태로 만든다.

문헌에 의하면, 당그래는 크기에 따라 두 가지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마솥에서 결정된 소금을 모아들일 때에 쓰기도 하지만, 염토를 모아서 셋등 위에 올린 다음, 흠을 고르고 다질 때에 쓰기도 하였다.(유승훈 2008, 63, 91)

⇒ 오늘부터 때른 내일 아침. 아침에 와서 불을 꺼요. 끄서 물이 식으면 굵는 거 있어. 당그래. {당 그래로} 굵어서 그 놈을 담아서 한 테다 봐요. 물 빠지라고 싸놔.

3.1.7. 주벽

소금물의 수분을 증발시킬 때에 젖거나, 거품이 일면 거품을 떠내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 또는 가마솥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한 곳에 모아서 담는 데에 쓰기도 한다.

주걱은 밥주걱처럼 끝이 둥그런 형태가 있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형태도 있다. 소금을 많이 풀 수 있도록 나무의 속을 파내어 쓰레받기처럼 만든 후에 자루를 연결한 형태도 있다.(유승훈 2008, 91)

⇒ 젖는거 있잖아요. {주벽} 같이 젖는 거. 가마솥 젖는 거. 젖어줘야 허니깐. 천상 물을 흔들흔들 주벽날로 져야죠. 늘어 버링께. 언능 소금 다 될 때는 자꾸 젖어서, 뜨면 글로 떠서 내비리면 되지.

3.1.8. 뽀메

소금물의 염도를 측정하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 한말 이후에 들어온 뽀메는 유리관으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수은이 들어 있다. 대통을 가지고 간수를 푼 뒤에 이 안에 염도계의 하단을 집어넣는다. 염도가 높을수록 수은이 위로 올라간다.(유승훈 2008, 92)

뽀메가 들어오기 전에는 송진, 황랍, 밥풀 등을 이용하였다. 나무 자루에 송진과 황랍을 섞어서 둥그란 덩어리로 만들어 줄을 메단 형태이다. 서산·태안에서는 ‘대름’이라 하는데, 대름을 간수에 담갔을 때 빨리 솟아오르면 염도가 높고, 천천히 뜨면 염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뽀메는 일본어 보메(ぼめ)에서 온 말로 판단된다.

⇒ 그 물이 몇 돈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뭘로 알아요? 우리가 봐도 알지만, {뽀메로} 비중기로 달아 봐요. 옛날에는 진짜 없을 때는 밥풀로, 밥풀 말려 가지고 딱 묶어서 노른 몇 돈지 알 수 있어. 딱 떠요, 깔안지를 안 해.



[사진 20] 뽀메

3.2. 천일염의 제염 도구

3.2.1. 대파/대패

염전의 판에 결정된 소금을 긁어서 모으거나 판을 닦는 데에 쓰는 도구이다. 가로로 놓인 긴 판자에 세로로 손잡이 막대가 달려 있어 ‘⊥’자 형태이며, 긴 판자의 아래 쪽에 고무가 달려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대파’라 부르고,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대패’라 부른다.

- ⇒ 소금판에서 거둬가지고. 그때 발 넘어갔을 때 {대파} 있잖아. 고무 대파가. 한 번 넘어갔고 걷어 갔잖아. 글로 밀면 모아져. / {대패로} 다 소금 오문 글로 모으지.



[사진 21] 대파

3.2.2. 가녁술

염전 판(바닥)의 가장자리를 닦는 데 쓰는 술이다. 대파와 형태가 비슷하나, 염전 판의 가장자리를 닦기 쉽게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 ⇒ 또 가녁하는 {가녁술} 찌깐해 갖고 가녁 깨끗이 몰아내야 허니깐, 딱 맞게.



[사진 22] 가녁술

3.2.3. 엽삽

엽전 판의 가장자리를 파거나 막힌 도랑을 뚫을 때에 쓰는 삽이다. 도랑의 크기에 맞게 보통 삽보다 1/2 정도 작으며, 삽자루가 긴 것이 특징이다.

- ⇒ {엽삽은} 도랑도 파고 가늉도 깎고 어디 흙 파다가 이런 디 벌리기도 하고 물꼬. 그런 디 다 필요해. 또랑도 밀고 여러 가지가 필요허쥬. 절단 난 디 보수도 허고. 엽전 일은 짜룬삽 하든 허리가 많이 아프잖애. 잘 안 돼. 요놈은 쓱쓱 밀든 잘 들어가요. 찌깐하니깐. 즉 말하면 좁은 디. 가에 좁은 데 또랑도 깎고 그럴 때 필요한 거요.



[사진 23] 엽삽

3.2.3. 물꼬망치

물꼬를 여는 데에 쓰는 갈고리를 이르는 말이다. 형태는 갈고리이나 제보자는 망치라고 부른다. 이러한 명칭은 형태는 변하는데 말은 변하지 않은 언어의 특징을 반영한다. 물꼬를 막는 도구의 형태가 변하면서 물꼬를 여는 데에 쓰는 도구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전에는 물꼬가 돌덩리와 같은 것으로 망치를 사용했다. 다만 지금은 모래주머니를 사용하고 있어서 갈고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명칭만은 변하지 않고 ‘물꼬망치’로 사용한다.

- ⇒ 물꼬망치라 그러. 물까고리라 앓고 {물꼬망치}



[사진 24] 물꼬망치

이상으로 엽전의 제염 도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염 도구
자염	쟁기, 씨레, 밀지계, 질통, 바가지, 당그래, 주벽, 뽀메
천일염	대파/대패, 가늉술, 엽삽, 물꼬망치

4. 제염 과정

4.1. 자연의 제염 과정

4.1.1. 갯벌

바닷물이 드나 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을 이르는 말이다.

갯벌은 토성(土性)에 따라 찰판과 메판으로 나눈다. 찰판은 모래 입자가 미세하여 매우 차진 개흙이다. 메판은 모래 입자가 적절히 배합되어 찰지지 않은 메진 개흙이다. 모래 입자가 미세하면 염분이 개흙 속에 충분히 스며들지 않아 채합 과정에서 염분 농도를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염전은 대부분 메판에 조성한다.(김일기 2006, 17~21)

- ⇒ 아~ 그것은 어쭈게 하나믄 음력 조수가 한 달이믄 거시기 두 번씩 바까져. 보름 여섯물 그믐 여섯물. 그럼 조금 때는 그거 {갯벌을} 모아서 놓을 데가 조금에는 물이 안 들어. 그런게 그때 갈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화렴을 만들어. 그거 갖고.

4.1.2. 개흙

갯벌의 흙을 이르는 말이다. 갯벌의 흙은 바닷물을 머금고 있다가 조금 때 물이 들어 오지 않으면 마른다. 그 흙 표면에 하얗게 소금기가 생기는데 그것을 ‘소금꽃’이라 부른다.

- ⇒ 흙을 인자. {개흙을} 갯벌이라고 쉽게 말하믄. 갯벌을 갖다가 놔두면은 조금 닥치믄 흐커게 분이 퍼, 인제 조금 때 물이 안 들어오니까, 높으니까 지형이.

4.1.3. 갯물

바닷물을 이르는 말이다. 바닷물의 염도는 보통 2~3도 정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 흐르는 물’이라 하는데, 제보자는 바닷물을 ‘갯물’이라고 한다.

- ⇒ 이 뒤에도 염전이 있다 해서 막어 갖고. 우리가 막어 갖고. {갯물을} 못 들어오게 똑 막어 갖고 딱 그 염전을 줘서.

4.1.4. 소금물

소금을 결정시킬 때에 쓰는 바닷물을 이르는 말이다. 대개 염도가 25%가 되어야 소금 물이 된다. 자연에서는 쉯등을 이용해 염도를 높이고, 천일염에서는 햇빛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염도를 높인다. 제보자들은 ‘간수’라 부르기도 한다.

- ⇒ 다 증발 되어 버리고 백 대 일 백이. 백 대 일만 소금물이 되어 있어. 그것만 남은 거여. 쉽게 말하면 {소금물은} 거서 소금 오는 거지. 즉 말허자면 석도가 증발되고 되고 되고 내롬서, 자꾸 올라갔고, 십오도, 십육도, 이십도, 이십사도까지 석고가 떨어져요. 그 놈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오면은 이십오도 딱 되든 거서부터 없어요, 그것이. 완전히 인자 소금. 소금만 뽀뽀뽀뽀뽀 그 거이 소금 뜨는 거여.

1) 뒷물

염도가 25% 이하의 소금물을 이르는 말이다. 천일염에서는 염도가 25%인 소금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데, 염도가 25%가 되지 않아서 더 증발시켜야 하는 소금물을 ‘뒷물’이라 부른다.

- ⇒ 뒷물이라는 것은 소금물이 인자. 이십도면 소금물이 된다고. 그 뒤에 따른 물이 십도, 십오도면 {뒷물이라고} 그래. 뒤에 따른 물잉게.

2) 진물

염도가 25%인 소금물을 이르는 말이다. 소금을 결정시킬 때, 염도가 25%인 소금물을 써야 소금 결정이 작게 나온다. 결정이 작은 소금이 좋은 소금이다. ‘뜬물’에 상대되는 말이다. 제보자는 ‘진물 뒤에 뒷물이 따라 온다’는 표현을 쓴다.

- ⇒ 잘잘한 놈이 더 식렴에는 최고 좋은 거여. 젓 담는데 열고. 굵은 썩글썩글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소금 같은 굵게는 잘 안나요. {진물로만} 좋은 물만 낸게.

3) 뜬물

염도가 이십오도 이하인 소금물을 이르는 말이다. 소금을 결정시킬 때, 염도가 이십오도 이하인 소금물을 쓰면, 소금 결정이 크게 나온다. 결정이 작은 소금이 좋은 소금이다. ‘진물’에 상대되는 말이다.

- ⇒ {뜬물이} 물이 약한 놈이 들어가야 굵어지는 거여. 그것이 전라남도 소금을 보면 굵어진 놈 많죠잉~. 손 딱 비비면 부서져요. 부서져부러. 우리 안 부서져요. 딱그르르 허지, 부스르르 안 부서져. 물이 안 들었어. 그 놈은 뜬물질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있어요, 소금알에가.

4.1.4. 조금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이다. 자염에서는 조금 때 개흙을 모아 섯등을 만들어, 소금물을 채취한다.

- ⇒ 아~ 그것은 어쭈게 하나면 음력 조수가 한 달이든 거시기 두 번씩 바까져. 보름 여섯물 그믐 여섯물. 그럼 조금 때는 그거 갯벌을 모아서 놓을 데가 {조금에는} 물이 안 들어. 그런게 그때 갈아가지고 모아가지고 화렴을 만들어. 그거 갖고.

4.1.5. 산짐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이다. 자염에서는 갯벌에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추출하기 위한 구덩이(섯등)를 만드는데, 사리 때에는 바닷물이 높기 때문에 섯등 근처 갯벌까지 물이 찬다. 그리고 물이 적은 조금 때에는 섯등 근처 갯벌까지 물이 들지 않아서, 갯벌이 마른다.

- ⇒ 밀물이라고 허쵸. 물 들어온다 허쵸. 물 들어온다 그러믄 되쵸, 조금 인자 산짐. 산짐 조금 그랬어요. 물이 많이 들 때는 {산짐} 조금 때는 조금. 옛날말로 지금은 그렇게 안 쓰지만.

4.1.6. 사릿발

사리 즈음의 때를 이르는 말이다.

- ⇒ 그럼 {사릿발은} 이 바다가 등이 높은 데라. 제일 높은 데라 사릿발은 물이 갯물이 다 떠요. 이 뻐 뻐바다에. 물이 다 썸. 조금에는 물이 안 썸. 물이 적게 드니께.

4.1.7. 감이 나다

조금이 되어서, 바닷물이 섯등 근처의 갯벌까지 들어오지 않아 개흙이 마르다. 개흙이 마르면 개흙의 표면에 하얗게 소금기가 서린다.

- ⇒ 계속 들랑 달랑 들랑 달랑 허다가 조금 때는 못 들어오니깐 그것을 인자 {감이 나쵸} 개흙이 말랐단 소리지. 감이 났다는 소리.

4.1.8. 분이 피다

바닷물을 머금은 개흙이 마르면서, 흙 표면에 소금기가 하얗게 결정되다. 제보자는 ‘분발이 피다, 성애가 찌다’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 ⇒ 흙을 인자. 개흙을, 갯벌이라고 쉽게 말하믄. 갯벌을 갖다가 놔두면은 조금 닥치믄 흐커게 {분이 퍼,} 인제 조금 때 물이 안 들어오니까, 높으니까 지형이. 물 많이 들 때만 들어오지. 덮어지. 조금 때는 여까지 못 덮어. 분이 퍼. 하얗게.

4.1.9. 섯등갈다

조금 때 섯등 주위의 개흙을 쟁기로 갈고, 씨레를 이용해 섯등 위로 올린다. 분이 핀 개흙을 섯등 위에 올려두면, 밑의 구덩이에 소금물이 고인다. 염전일이 가능한 기간은 음

력 8일에서 12일까지, 23일부터 27일까지로 각각 5일 정도이다.

문헌에 의하면, 자연의 작업 과정은 ‘염밭갈이’로 표현되어 있다. 염밭갈이는 염전면을 쟁기로 뒤집고, 씨레로 끌고 다녀서 햇빛을 골고루 받게 하는 일이다.(홍금수 2006, 168) 염전을 갈면 하부의 흙이 뒤집어지면서, 염분의 농도가 올라간다.(김일기 2006, 22)

그리고 염밭갈이는 세부적으로 ‘씨레질, 쟁기질, 나래질, 섯등 진압, 가설 두르기’로 나뉜다. ‘씨레질’은 씨레를 이용해 염전의 개흙을 분쇄하는 일이다. 쟁기질과 씨레질로 염전면은 이완되고 강렬한 태양에 자연 건조된다. 모세관 인력의 작용으로 하부의 염기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염분의 농도는 짙어진다. 초벌갈이, 두벌갈이로 행해지는 씨레질은 3~5일간 지속된다.(홍금수 2006, 168) ‘쟁기질’은 쟁기를 이용해 굳어진 염전면을 가는 일이며, ‘나래질’은 나래를 이용해 소금기 있는 개흙을 섯등으로 모아들이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섯등에 올리고, 다지는 일은 ‘섯등 진압’이라 한다. 또한 섯등의 가장자리는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점토로 테를 두르는데, 그것을 ‘가선 두르다’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섯등 위에 바닷물을 부어 주면, 섯등의 염구덩이에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모인다.

⇒ 그거 참 소 가지고 어드 가냐 허믄은 소금 내는 디 간다 하던가 바다 {섯등갈러} 간다 그러던가. 그러믄 말 나오기 쉽죠. 섯등이라 소금 내는 자린지 아니깐, 옛날 사람들은.

1) 선일하다

소에 멩에를 씌워 쟁기로 밧을 갈다. 논이나 염전에서 소로 쟁기질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옛날 말로 논 가는 것도, 논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일한다 그래요 천양 논도 소로 갈았잖아요. 그러니 못 해? {선일했어} 그러지. 사투리말로 허는 거죠, 그거는. 쟁기질이라 앓고 선일한다 그러지.

4.1.10. 면을 잡다

섯등 위에 올린 흙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다듬다. 문헌에서는 ‘가선 두르다’라고 표현한다.

⇒ 인자 그때는 씨레로 전부다 삼으로 요리저리 옮겨서 {면만 잡지.} 잘 안 들어가. 안 들어갈라 그래. 왜냐하면 흙을 보실보실 만들어놨는디 거 가서 사람이 다져 붙은 물이 안 빠지잖아, 물이.

4.1.11. 간수가 빠지다

섯등 위에 올린 흙에 바닷물을 부으면, 섯등 밑의 구덩이로 소금물이 빠지다.

⇒ 여 밑에 있고 여 짤 물이 이 흠에 먹었던 {간수가 올로해서 빠지믄} 여가 탱크가 있지. 요렇게 인자 깊이 파서.

4.1.12. 간수(물) 지르다

셋등 밑의 구멍이에서 바가지를 이용해 소금물을 퍼서, 별막의 해주로 옮기다.

⇒ 그 담에 인제 구멍에서 이렇게 물을 올렸잖아요. 그거 뭐 한다 그랬어요? {간수 질러온다} 그래야 돼. / 천상 셋등 속~에서 {물 질러} 오니깐 그까이 백에 몰라요, 우리는. 천상 셋등에서 이렇게 등에서 지금 등 속~에서 물 빼오니깐.

4.1.13. 불을 때다

별막의 철판 위에 소금물을 붓고, 소금물을 줄이기 위해 불을 지피다.

⇒ 이 옛날 소금 그냥 나오믄 화렴이라 그래갖고 {불을 때서} 만드는 것이. 조금이 닥치믄은 흠을. 소로 흠을 갈아요. 뽕을 막 갈아. 여 얹어놔.

4.1.14. 등 나다

① 가마솥에 소금물을 줄일 때에, 소금 결정이 소금물 위로 보이다. 등이 보이면, 그 소금은 쓴맛이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소금물을 소금 위에 부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덧물 주다’라고 한다.

② 천일염에서 소금이 결정될 때에 소금 결정이 소금물 위로 보이다. 등이 보이면, 그 소금은 쓴맛이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소금물을 소금 위에 부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덧물 주다’라고 한다.

⇒ 소금판이 소금이 보일 때 {등 나서} 물이 없어졌을 때 그때 막 뉘여 줘야 돼요. 물 등 안 나겄꼬롬. 그러면 물 주는 대로 소금이 오고 있어요.

4.1.15. 덧물 주다

소금 결정을 만들 때, 소금 결정이 소금물 위로 보이지 않도록 소금물을 더 부어 주다.

⇒ 고놈 떠서 차꾸 {덧물을 줘야} 혀, 또 끓을 때 요놈만 끓으믄 써서 못 먹잖아요. 이 물을 써가, 자꾸 줘, 물이 닳아지는 족족.

4.1.16. 물 뉘어주다

① 철판에 소금물을 더 붓다. 소금의 등이 나면 소금물 덧물을 주는데, 그것을 ‘뉘어주다’라고 한다. ② 염전의 판에 소금물을 더 붓다.

⇒ 여그도 덧물 줘야 험다 안 해? 여그 소금 내는 것도 덧물 줘야 돼. 등 나면 바로 좋은 {물 뉘어줘야} 돼.

4.1.17. 버큘

액체가 기체를 머금고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을 이르는 말이다.

⇒ 거품이라. 천상 거품이죠. 버큘이라도 그러기도 하고. 저기 {버큘} 있네.

4.1.18. 소금 앙키다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소금 결정은 염전의 판이나 가마솥 바닥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소금이 물 위로 뜨는 경우에는 대파나 주걱으로 가라앉힌다.

⇒ 벌막인데 가마솥에 인제 만들어서 딱 걸어서 인자 딱 해서 철판을 해가지고 가마솥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물을 질러다 부서서 불을 때요. 불을 때면 인자 도수가 인자 이십오도가 되어야 그것도 소용허는 거여. 때 가지고 막 불 때면 이십오도 되고. {소금 앙캐.} 앙키게 되면 불 딱 꺼버려요. 꺼버리면 완전히 소금 되어 버려, 전부 물이.

4.1.19. 물 빠지다

결정된 소금에서 물기를 빼다. 철판에서 소금을 결정시킨 후에, 주걱으로 철판의 소금을 긁어 옆의 삼태기 위에 올려 둔다. 그러면 결정된 소금에서 물기가 빠진다. 소금 결정에서 빠진 소금물은 다시 벗집에 있는 염구덩이에 부어서 재사용하기도 한다. 천일염에서는 채취한 소금을 소금창고에 두는데, 그곳의 가운데 아래에 호무때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기가 빠진다.

⇒ 땅에다 기냥 땅에다 싸 놔요. 소금 모으는 곳이죠. 거다 인자 싸노면 {물이 빠지면} 거기서 파는 거죠. 벌막 한 테 옆에. 바로 옆에 가있지. 그 바로 끄내놔다가 물이 빠지면 파는 거죠.



[사진 25] 물 빠지다

4.2. 천일염의 제염 과정

4.2.1. 물 내리다

염전에서 소금물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기 위해 난치에서 누테, 결정지로 바닷물이 옮겨간다. 염전 각 배미의 높이가 칠전씩 낮차가 있기 때문에, 배미의 물꼬만 열어주면 물이 아랫 배미로 내려간다.

⇒ 누테, 난치 몇 발 가서 {물 내려라} 몇 단이. 누테 몇 단 물을 내려라. 결정지 몇 단에 가서 물을 내려라 이렇게 시킬 때 쓰는 용어여.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진 26] 물 내리다(1)



[사진 27] 물 내리다(2)

4.2.2. 깔깔이

바닷물을 염전에 가두어 염도를 25%까지 올릴 때, 15%에서 24% 사이의 소금물에서 떨어지는 돌가루를 이르는 말이다. '석고, 석회, 독가루'라 부르기도 한다.

⇒ 바닷물에게 마흔 몇 가진가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이 흙 같은 뽕이 떨어져요. 뽕흙. 흙을 처음

에 맹물에서 즉 말하면 도수 약한 뽕이 떨어져갓고 여 오다가, 십오도가 딱 되면은 석고가 생겨, 인자. 거서부터는 석고가 떨어져야 돼. 석고가 석회가 떨어. 석고가 떨어져가 석고잉. 즉 말해 고집이라 석고여. 석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그다 깔아도 되야. 깔깔이.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깔깔이라고} 그래. 우리가 쉽게잉~ 깔깔이 자꾸 보고 깔깔이 몰아내고 깔깔이가 떨어졌다 그래.



[사진 28] 깔깔이(1)



[사진 29] 깔깔이(2)

4.2.3. 소금 뜨다

소금 결정이 만들어져서, 소금물 위에 뜰까 가라앉지 않다. 이렇게 물 위에 뜬 소금을 ‘소금꽃’이라 부른다.

- ⇒ 석회. 저렇게~ 찌갓고 있는 거여. 그 놈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오면은 이십오도 딱 되믄 거서부터 없어요, 그것이. 완전히 인자 소금. 소금만 뽐뽐뽐뽐뽐 그거이 {소금 뜨는} 거여. 그놈 물을 써 소금을 내야 깨끗헌 거고.



[사진 30] 소금 뜨다(1)



[사진 31] 소금 뜨다(2)

4.2.4. 소금이 오다

염도가 25%의 소금물이 햇빛이나 열에 증발되어 소금으로 결정되다. 천일염은 음력 5월에서 6월 사이에 결정이 잘 된다. 이때의 소금은 크기도 잘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손으로 눌러 보았을 때에 소금 알갱이가 깨지지 않는다.

- ⇒ 이십오도부터서 {소금이 오거든} 그러니깐 그마만큼 인자 짜진께 덜 짠 이십오도부텀 이십칠팔도부터 모든 소금은 짠 기운에 온 소금은 들 짠 그런 이십오도에 온 소금은 틀려. 소금발이 굵고 잘고 그러니. 봄, 가을 소금은 소금발이 적고.

4.2.5. 소금발

소금 결정의 크기를 이르는 말이다. 소금 결정은 일기와 바람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흐린 날은 맑은 날에 비해 소금 굵기가 작고, 소금이 잘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서풍이 불 때에는 소금 굵기가 굵어진다. 그리고 동풍이 불면 날이 추우니까 소금의 굵기가 가늘어진다. 그리고 북풍이 불면 날이 좋으니까 소금의 굵기는 굵어지고, 그 양도 많아진다.

- ⇒ 우리가 칠팔월 소금은 {소금발이} 굵어요. 인자 지대로 인자 밑에서 올라온 지열하고 인자 짠 거로 해서 그 도수가 이십오도부터도 소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소금발이 굵어. 그러니깐 이게 맛을 봐도 입에 넣고 맛을 봐도 그때 소금은 간질간질한 맛이 나고 봄 가을은 쓴 맛이 나고 느낌에 그냥. 도수가 높기 때문에. 염도수가 높어서 나오기 때문에.

4.2.6. (물을) 잡아 넣다

만들어 놓은 소금물을 뒷물해주나 소금해주로 넣다. 비가 와서 소금을 결정시킬 수 없거나 소금을 결정시킬 결정지의 소금판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해주에 저장해 둔다. 그때 소금물을 해주에 저장하는 것을 ‘잡아 넣다’라고 말한다.

- ⇒ 해수 이거 {잡아 낸다는} 거죠, 도수 맞아서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다 이인 거여. 빗물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건 뒷물. 뒷물을 갖다가 다 났은게 비 끝나면 기계로 돌려서 인자 이렇게 푸는 거여.

4.2.7. 소금 걷다

결정지에서 결정되어 소금판에 붙은 소금을 대파로 긁어내어 가운데로 모으고, 염삼으로 퍼서 거두다.

- ⇒ 예. 걷어요. 소금을 모은다 아니고 걷는다고 사투리여. 모은다는 것은 저그지. {소금을 걷어라} 그래야죠. 모아라 그래 안 해. 걸어가지고 인자 모으는 거지. 모으는 것이 똥글게 싸는 것이 오는 거고.



[사진 32] 소금 걷다(1)



[사진 33] 소금 걷다(2)

이상으로 염전의 제염 과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염 과정
자염	개흙, 갯물, 소금물, 뒷물, 진물, 뜬물, 조금, 산짐, 사릿발, 감이 나다, 분이 피다, 섯등갈다, 선일하다, 면을 잡다, 간수가 빠지다, 간수(물) 지르다, 불을 때다, 등 나다, 뒷물 주다, 물 뉘어주다, 버쿰, 소금이 앙키다, 물 빠지다
천일염	물 내리다, 깔깔이, 소금 뜨다, 소금이 오다, 소금발, (물을)잡아 넣다, 소금 걷다

5. 소금의 종류

5.1. 식렴

식용할 수 있는 소금이다. 자염과 천일염, 꽃소금 등을 통틀어 이른다. 한자어 ‘식염(食鹽)’에서 온 말인데, 제보자들은 모두 ‘염(鹽)’의 발음을 ‘렴’으로 한다.

⇒ 먹는 소금이다 해서 {식렴이라고} 인자 하죠. 그니깐 소금을 만드는 곳이죠. 염전.

5.2. 화렴

바닷물을 졸여서 만든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염전조성 단계, 채함 단계, 전오 단계를 거쳐 소금을 생산한다. 채함 단계를 위해서는 염전을 조성해야 하는데, 서남해안 지방에서는 갯벌을 이용하였다. 염분 함량이 높은 개흙을 얻기 위해 조금 때를 이용하여 소가 끄는 썰레를 이용하여 갯벌을 몇 차례 간다. 그 다음에 번지로 개흙 덩어리를 분쇄한 다음 해수를 뿌린다. 이 같은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여 개흙의 염분 함량을 높인다. 염분 함량이 높아진 개흙을 섯등으로 운반하여 소금물(간수)을 뽑아내어, 벗집으로 옮긴다. 벗집 속

에 장치된 소금가마솥에 간수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소금이 응결된다.

화렴은 자연의 전라방언이며, 한자어 ‘화염(火鹽)’에서 온 말이다.

- ⇒ 옛날 소금 그냥 나오면 {화렴이라} 그래갖고 불을 때서 만드는 것이. 조금이 닥치면은 흠을. 소로 흠을 갈아요. 빨을 막 갈아. 천상 물이 싱거면 싱건 대로 갖다가 증발을 시켜야 되고, 도수가 짙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시키는 소금 좀 많이 오고.

5.3. 육렴

자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뜻하는 ‘청염’에 상대되는 말이다.

- ⇒ 막 불 때면 이십오 되고. 소금 옹개. 영키게 되면 불 딱 꺼버려요. 꺼버리면 완전히 소금되어야 버려, 전부 물이. 그래서 {육렴이} 되야. 육렴이라고도 그러고. 육렴. 쉽게 육렴이라고 옛날엔. 화렴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놈이 인자 먹을 때 육렴이라해. 우리 한국말로 처음 말로는 전라도말로 육렴 그래. 육렴.

5.4. 빨소금

조금 때에 소금기가 핀 개흙을 씨레로 쓸어다가 개흙을 털어내고 만든 소금이다. 소금기가 핀 개흙을 물에 담가 개흙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 뜬 소금물을 먹었다. 가장 원시적인 소금 채취 방법으로, 자연이 발달하기 전에는 빨소금을 먹었다고 한다. 제보자들도 어렸을 때 자연이 깨끗하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서 빨소금을 먹었다고 한다.

- ⇒ {빨소금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뼈끔뼈끔 그 염기가 올라오는 것이 있어. 하해. 그놈 이거 밀었다고 이렇게. 그거 빗자루로 싹싹 쓸면 그것이 모터져요. 그럼 그걸 갖다 소금 나기 전에는 옛날엔 그걸 소금 비싸니까 화렴은 비싸니까 그걸 쓸어다가.

5.5.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바닷물을 염전의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結晶池)로 차례차례 옮겨서 태양열로 수분을 증발·결정시켜 만든다. 1907년 인천 주안에 천일제염법이 처음 소개되면서 자연법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다른 말로 청염이라 부르기도 한다.

- ⇒ 천일염 요새 {천일염이라} 그래. 요새 나는 펜야 염판에 나는 것은 천일염이여.

5.6. 재제렴

거칠게 만든 천일염을 물에 녹여서 다시 곧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천일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빛깔이 희고 맛이 약간 쓰다. 제보자는 ‘꽃소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 ⇒ 꽃소금이란 것이 {재제렴이여,} 쉽게 말하면, 재제렴 이 소금을 갖다 녹해서, 천일염을 갖다 녹해서, 다시 끓여서 그것을 건져야. 옛날처럼 화렴. 자연 내뿜기 그런 식이지 불 때서 화렴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해서 꽃소금이 나오는 거요.

5.7. 사렴

먹을 수 없는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바닷물을 증발시킬 때에 덧물을 주지 않아서 소금에 쓴맛이 강해진 것을 이른다.

- ⇒ 등 나 불른 소금도 안 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이 나쁘면 {사렴이} 와요. 못 먹는 사렴, 그것은. 일본말로 니가리. 우리는 사렴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와요. 물 나쁠 때, 등 나쁜. 전라남도 는 그냥 와서 못 먹어. 미역 공장으로나 들어 가지. 미역 공장 그거 있어야 좋다 험디다. 사렴 은 있어야, 쓰니깐.

5.8. 송화가루 소금

송화가루가 날리는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생산한 소금을 이르는 말이다. 일 년 중 날이 가장 건조하여서 질 좋은 소금을 얻을 수 있다.

- ⇒ 인자 또 한 가지는 그 송화가루 소금. 솔잎에서 필 때 꽃 여 제방. 여러 가지로 피어 나잖아요. 그러든 노란 물이 날라 들잖아요. 그때가 그것보다 {송화가루 소금이라} 그래요. 그것이 계절에 가 즉 말하자면 제일 많이 오는 때여, 소금이. 왕성하게 잘 오고 날이 그양 즉 말하든 젤로 건조하는 때여.

이상으로 소금의 종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소금의 종류
자염/천일염	식렴, 화렴, 육렴, 빨소금, 천일염, 재제렴, 사렴, 송화가루소금

6.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 영광 굴비

6.1. 재료

6.1.1. (참)조기

① 민어과의 보구치, 수조기, 참조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② 참조기와 동의어이다. 참조기는 보통 9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잡히며, 동짓날 전에 잡힌 고기는 알이 없고 등이 흰 반면에, 동짓날 이후에 잡힌 고기는 알이 차고 등이 누런 것이 특징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참조기만을 조기라 부른다.

⇒ 예~ 아까 말한 대로 반어나 어~ 부서나 이런 것은 조기과. 예를 들면 고양이고 하면은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고 이러댓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인자 사실은 {참조기라} 그러는데 참조기 말고 또 짠 조기는 없거든요. / 인자 우리가 아 그 참조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금물을 들여놓댓기 노란빛이 나죠.



[사진 34] 참조기(1)



[사진 35] 참조기(2)

6.1.2. 반어

민어과의 물고기로, 조기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40cm 정도이며, 누런빛을 띤 적색이다.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모양새~가 색깔도 다르고. 그 {반어} 같은 것은 무늬가, 무늬가 있어요.

6.1.3. 백조기

민어과의 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30cm 정도로 참조기와 비슷하나 몸이 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백조기'라 부른다.

⇒ 그리고 또 인자 {백조기라고} 조기같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하예요. 보구치를 백조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종류예요.

6.1.4. 황시리

민어과의 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30cm 정도로 참조기와 비슷하나 머리가 크고, 꼬리가 가는 것이 특징이다. ‘황강달이’의 전라방언이다.

⇒ {황시리는} 인자 조기같이 노란색은 가졌는데 모양새가 달라요. 머리가 크고 꼬지가 아주 가는 드란하구 그래요.

6.2. 어로장소 및 도구

6.2.1. 칠산어장

전라남도 영광군 칠산면 앞바다에 있는 어장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3대 어장 중 하나로, 옛날에는 참조기가 많이 잡혔다. 그리고 근처 법성포에서는 칠산어장에서 잡힌 참조기로 굴비를 만들었다.

⇒ 옛날~에는 여기 법성포에서 바로 이 칠산에서 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에~ 극소수로 잡히고 요즘은 인자 제주도 근해에서 잡힙니다.

6.2.2. 삼마이 그물

조기를 잡는데 쓰는 그물을 이르는 말이다. 200m에서 1000m의 그물을 넓게 펼쳐서, 그 사이에 걸리는 물고기를 잡는다. 그물을 넓게 펼치기 위해서 위에는 스티로폼의 우끼를 달고, 아래에는 돌이나 납으로 된 추를 단다.

삼마이 그물의 ‘삼마이’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 그 {삼마이 그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그~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 아구리를 벌려서 잡는 것이 있고, 또 인자 외줄로 쪽~ 늘어가지고 이백메타 오백메타 막 천메타 이려고 길게 빼 때 뇌가지고 잡는 거 있고 그러죠. 근데 인자 아까 이백메타 삼백메타 이렇게 벌려놔 가지고 잡는 것이 조기 그물이에요.

1) 우끼

삼마이 그물의 위쪽이 바다에 뜨게 하기 위하여 그물 위에 붙인 스티로폼을 이르는 말이다.

⇒ 그냥 저~기다가 그~ 우끼를 스티로폴 {우끼를} 달아놓고 밑에는 돌을 달고 그러면 인자 우게는 떠있고 밑에는 납으로 된 추를 달아 노니까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러면 조기가 이렇게 당기다가 걸리는 거죠.

2) 추

삼마이 그물의 아래쪽이 바다에 가라앉게 하기 위하여 그물 아래에 붙인 돌이나 납을 이르는 말이다.

⇒ 그냥 저~기다가 그~ 우끼를 스티로폴 우끼를 달아놓고 밑에는 돌을 달고 그러면 인자 우게는 떠있고 밑에는 납으로 된 {추를} 달아 노니까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러면 조기가 이렇게 당기다가 걸리는 거죠.

6.3. 제작 과정

6.3.1. 선별을 하다

굴비를 만들기 위해 조기의 크기를 구별하다. 조기의 크기에 따라 소금의 양과 간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조기의 크기를 구별한다.

⇒ 해동시켜서 인자 그 {선별을 하죠} 크기 적게 해서 크기로 전부 선별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소금 염해서.

6.3.2. 염하다

조기를 소금에 절이다. 조기는 크기에 따라 세 시간부터 열다섯 시간까지 절인다.

⇒ 해동시켜서 인자 그 선별을 하죠. 크기 적게 해서 크기로 전부 선별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소금 {염해서} 소금 염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그대로 염한다고 그러죠.

6.3.3. 섯간

조기를 절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먼저 발을 놓고 그 위에 조기 한 두름을 올리고, 소금을 적당량 뿌린 다음 그 위에 다시 발을 올리는 방식으로 절인다. 독간에 비해서 섯간이 간이 고르게 배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섯간을 한다.

⇒ 거 인자 조기를 사다가 아~ 소금 뿌리면서 그 독에다가 자꾸 쟁어요. 그래서 인자 간을 하는 거 있고 또 {섯간이라는} 것은~ 인자 발을 놓고 발을 밑에다 깔고~ 조기 한 두름 넣고 소금 허고 조기 한 두름 넣고 소금 허고 해서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인자 물이 쪽 간이 먹으면서 물이 빠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섯간이라 그래요.

6.3.4. 독간

조기를 절이는 방법의 하나이다. 독 안에 조기를 넣고, 소금을 적당량 뿌린 다음 다시 그 위에 조기를 넣는 방식으로 절인다.

⇒ 옛날에 그 독간 있고 섯간 있고 그러거든요. {독간이라는} 것은 큰 구덩이, 거기다가 인자 그 소금 뿌리고 조기 넣고 이렇거 해가지고 그 물이 안 빠지게. 물이 빠질 수가 없이. 독이니까~ 거기다 넣고 간을 하는 거고.

6.3.5. 엮걸이

① 조기를 새끼줄로 열 마리, 스무 마리씩 묶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② 열 마리, 스무 마리씩 묶여져 있는 굴비를 이르는 말이다.

⇒ 시간이 되면 엮어야죠. 그 엮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엮걸이라} 그래요. 인자 그 하시는 아줌마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와서 엮어 줘요.

6.3.6. 걸대에 걸다

조기 엮걸이를 말리기 위해서 건조장 걸대에 매달아 놓다. 이때 걸대는 그늘지고 바람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하며, 날파리 등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옛날에는 해풍에 말렸다고 한다.

⇒ 인자~ 한 두 번 세 번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서 {걸대다 겁니다.} 걸대에도 걸어서 어~ 물을 한 칠십 프로 정도 빼요.

6.4. 굴비의 종류

6.4.1. 굴비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를 이르는 말이다. 『문화원형사전』에 의하면, 조기는 여러 가지로 가공되어 소비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굴비가 가장 유명하였고 한다. 『증보산림경제』에 의하면 소금에 절여 통째로 말린 것이 배를 갈라 말린 것보다 맛이 낫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굴비이다. 고려시대의 척신 이자겸(李資謙)이 왕을 모해하려다가 탄로되어 1126년(인종 4) 정주(靜州 지금의 영광)로 유배되었는데 그 곳에서 굴비를 먹어 보고는 그 맛을 모르고 개경(開京)에 살았던 것을 후회하였다는 일화도 전한다. 정주굴비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영광굴비가 이미 고려시대부터 유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곡우 때 잡힌 산란 직전의 조기는 ‘곡우살 조기’ 또는 ‘오사리 조기’라 하여 가장 좋은 일품(逸品)으

로 치고 있으며 이것으로 만든 굴비는 ‘곡우살 굴비’ 또는 ‘오가재비 굴비’라 하여 특품으로 취급된다.

- ⇒ {굴비는} 하나 그 우리가 항상 들 수 있는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간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그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제일 첫째 신선한 것을 구입해야 돼. 조기를 구입을 해야 되고 어 그 다음 제 맛이 든 고기는 동지가 넘어서 산 고기가 제일 맛이 들어있습니다.

6.4.2. 보리굴비

보리 사이에 넣어서 절인 조기를 이르는 말이다. 옛날에는 냉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독 안에 보리를 깔고 조기를 얹고 소금을 뿌리고, 다시 보리를 까는 방식으로 조기를 절였다. 보리를 넣어서 말리면, 보리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좀이 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황태처럼 겨우내 해풍에 말렸다고 한다. 옛날에는 그냥 ‘굴비’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냉동굴비와 구별하기 위해 ‘보리굴비’라 부른다.

- ⇒ 인자 보리굴비 {보리굴비} 하는데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말려서 어 보리 속에다 저장을 했다가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냥 놔두면 부패가 되니깐. 에~ 보리 속에다가 이런 독에다가 차곡차곡 보리 넣고 굴비 말린 놈 넣고 해서 쟁여놔어요. 왜 너면은 그것이 인자 그 수분을 빨아들이고 말려서 보리를 말려서 너면은 수분도 빨아들이고. 그렇게 해 노면 또 염기. 굴비가 들어가면 염기가 있으니까 보리도 바게미도 안 나고.



[사진 36] 보리굴비

6.4.3. 장줄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굴비를 판매할 때 쓰는 용어이다.

- ⇒ {장줄이}라는 거 인자 이십미 짜리를 장줄이라 그러죠. 여기 이십미.

6.4.4. 오가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다섯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조기가 큰 경우에는 다섯 마리씩 엮는다. 굴비를 판매할 때에 쓰는 용어이다.

⇒ {오가는} 인자 한 줄에 다섯 마리씩 묶는다. 그래서 그거 합하면은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깐 그래서 열 마리죠. 그래서 여가 우리가 붙여 놓 거죠, 상품명을.

이상으로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인 굴비에 관한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 영광 굴비
재료	(참)조기, 반어, 백조기, 황시리
어로 도구	칠산어장, 삼마이 그물, 우끼, 추
제작 과정	선별을 하다, 염하다, 삶간, 독간, 엮걸이, 걸대에 걸다
종류	굴비, 보리굴비, 장줄, 오가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서해안 어촌 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염전과 관련한 어휘를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서는 자염과 천일염을 생산한 경험을 가진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소금을 생산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어를 조사하였다. 우선 염전과 행위자의 명칭을 살펴보고, 자염과 천일염의 제염 설비, 제염 도구, 제염 과정 등을 각각 고찰하였다. 그리고 소금의 종류와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인 영광 굴비에 관한 어휘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금은 짠 맛이 나는 백색 결정체로, 제염하는 방법에 따라 자염과 천일염으로 구분한다. 자염은 바닷물을 구워서 만든 소금이고,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모아서 막아 놓고, 햇볕에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이다. 그리고 염전은 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여 논처럼 만든 곳이다. 자염에서는 염전을 조성하지 않았으나 천일염에서는 염전을 조성하여 소금을 만든다. 천일염의 염전은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따라 난치, 누테, 결정지로 나뉜다. 염전 배미의 크기는 난치, 누테, 결정지가 각각 다르다. 난치의 배미는 600평에서 400평 정도이며, 누테의 배미는 300평에서 100평 정도이며, 결정지의 배미는 50평 정도이다. 그리고 소금을 생산하는 사람을 여맹이라 부르고, 그 중의 우두머리를 염부장이라 한다.
- 2) 자염의 제염 설비는 섯등, 염구덩이(해주), 벌막(웃집, 영, 철판, 부석, 기뚝)으로 구성된다. 섯등은 염도가 높은 간수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높은 지대의 갯벌에 2~3m의 구덩이를 파고, 위에 소나무로 경그레를 한 후에 염분 함량이 높은 개흙을 올려서 다진다. 그 위에 조금 때 마른 개흙을 올리고, 바닷물을 부으면 갯벌의 염구덩이(구덩이)에 염도가 높은 소금물이 모인다. 이 물을 벌막으로 길어가서 철판(소금가마솥)에 붓고 불을 댄다.

천일염의 제염 설비는 난치, 누테, 결정지, 물꼬, 포랑, 푹, 판, 가녁, 배미, 단, 염전머리, 소금해주, 뒷물해주, 수리차, 소금창고, 호무때 등으로 구성된다. 천일염은 저수지에 모아 놓은 바닷물을 제1증발지인 난치, 제2증발지인 누테, 결정지로 옮기면서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다. 각각의 염전은 바닥인 판과 가녁, 푹, 포랑, 물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소금물을 저장해 두는 소금해주, 뒷물해주가 있으며, 결정된 소금을 저장하는 소금창고가 있다.

- 3) 자염의 제염 도구로는 쟁기, 씨레, 밀지게, 질통, 당그래, 주벽, 뽀메 등이 있다. 쟁기는 바닷물을 머금은 개흙을 갈 때에 쓰며, 씨레는 표면에 염분이 핀 개흙을 셋등 위로 올릴 때에 쓴다. 그리고 밀지게와 질통은 셋등의 염구덩이에 모인 소금물을 별막으로 옮길 때 쓰며, 당그래와 주벽은 소금물을 철판에 구울 때에 쓰는 도구이다. 그리고 뽀메는 염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일본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천일염의 제염 도구로는 대파, 가녁술, 염삽, 물꼬망치 등이 있다. 대파는 염전 판에 결정된 소금을 긁어서 모으거나 판을 닦는 데 쓰며, 가녁술은 판의 가장자리를 닦는 데에 쓴다. 그리고 염삽은 염전 판의 가장자리를 파거나 도랑을 뚫을 때에 쓰며, 물꼬망치는 물꼬를 열거나 닫을 때에 쓴다.

- 4) 자염의 제염 과정은 셋등을 갈아서 갯물(바닷물)을 염도가 25%인 소금물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금에 지대가 높은 갯벌을 쟁기로 갈아 두면, 사리에 바닷물이 그 위로 넘친다. 그러다가 다시 조금이 되면 감이 나서, 분이 핀다. 분이 핀 개흙을 씨레로 셋등에 올려 염도 25%의 소금물을 추출한다. 추출한 소금물을 철판에 붓고 불을 때서 굽는다. 그러면 소금이 앙키계(결정)되는데, 등이 나면(소금물보다 높게 소금 결정이 생기면) 덧물을 준다. 그리고 결정된 소금을 철판에서 긁어 삼태기 위에 두면 물이 빠진다.

천일염의 제염 과정은 수리차를 이용해 저수지에 있던 물을 난치로 올리고, 햇볕에 증발시키면서 누테, 결정지로 물을 내린다. 그러면 소금이 결정되는데 그것을 소금이 온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소금이 오면, 대파로 소금을 걷는다.

- 5) 소금의 종류에는 식염, 화염, 육염, 천일염, 뽀소금, 송화가루 소금 등이 있다. 식염은 식용할 수 있는 소금이고, 화염은 바닷물을 졸여서 만든 소금이다. 그리고 육염은 자염의 또 다른 이름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천일염을 뜻하는 청염에 상대되는 말이다. 뽀소금은 조금 때에 소금기가 핀 개흙을 씨레로 쓸어다가 개흙을 털어내고 만든 소금이다. 소금기가 핀 개흙을 물에 담가 개흙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 뜬 소금물을 먹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며, 그 중에서 송화가루가 날리는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생산한 송화가루 소금을 최고로 간주한다.

이러한 염전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문헌 자료가 가진 현장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문헌 자료는 대부분 한자어 등의 전문어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현장의 생활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2) 조사가 제보자의 구술발화로 진행된 덕분에, 미세하고 다양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사 지역과 대상이 전북과 전남의 염전이어서 방언이 반영된 어휘를 다수 고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자료는 방언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 3) 염전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어휘 수집을 수행해 봄으로써 염전의 어휘망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4) 조사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5)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염전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방언에서 유래한 전문 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휘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이 반영된 전문 용어의 어원과 변화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민족생활어 Web DB를 구축하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모든 데이터를 주제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의 검색 기능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짧은 이유로 동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2) 『우리배·고기잡이』,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8) 『만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9) 『우이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김의환(2004) 「조선후기 충청도의 소금생산과 생산방식」, 『조선시대사학보』 28.
- 김일기(1991) 「곰소염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3.
- 김일기(1998)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일기(2006) 「선시대 자염 생산방식」, 『조선시대의 소금 생산방식』, 신서원.
- 김천중(1988) 「조선후기의 염업경영실태」, 『역사교육논집』 12.
- 안옥규(1996)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 유승훈(2008) 『우리나라 소금제염업과 소금 민속』, 민속원.
- 최창렬(1993) 『어원산책』, 한신문화사.
- 홍금수(2006) 「호남지방의 자염법」, 『조선시대의 소금 생산방식』, 신서원.
- 홍금주(1993) 「18·19세기 줄포만의 자염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부 록

찾아보기

ㄱ

가늑	127
가늑술	134
간수(물) 지르다	19
간수가 빠지다	19
감이 나다	138
개흙	136
갯물	136
갯벌	136
걸대에 걸다	11
결정지	124
굴비	151
기뚝	123
갈갈이	142

ㄴ

난치	124
누테	124
느티	124

ㄷ

단	127
당그래	132
대과	134
대패	134
덧물 주다	10
독간	151
덧물	137
덧물해주	18
등 나다	140
또랑	126
뚝	126
뜯물	137

ㄹ

먼을 잡다	139
물 내리다	142
물 뉘어주다	141
물 빠지다	141
물꼬	125
물꼬망치	135
밀지게	132

ㅁ

바가지	132
반어	148
배미	127
백조기	148
버쿰	141
벌막	122
벗집	122
보리굴비	152
부석	123
분이 피다	138
불을 때다	140
빨소금	146
뽕메	133

ㅂ

사렴	147
사럿발	138
산짐	138
삼마이 그물	149
선별을 하다	10
선일하다	139
섯등	120
섯등갈다	138

설간	150
소금	119
소금 건다	144
소금 뜨다	143
소금 앵키다	14
소금물	136
소금밭	144
소금이 오다	143
소금창고	129
소금해주	128
송화가루 소금	17
수리차	129
수차	129
식렴	145
씨레	131

○

여맹이	120
엮결이	151
염구텅이	121
염부	120
염부장	120
염삽	135
염전	119
염하다	130
영	122
오가	153
우끼	149
웃집	122
육렴	146
을 잡다	139

ㅈ

잡아 넣다	144
장줄	152
재제렴	147
쟁기	131
조금	137
주벽	133
진물	137
질통	132

ㅊ

(참)조기	18
천일염	146
철판	122
추	150
칠산어장	149
칠전낙차	128

ㅊ

판	126
---	-----

ㅎ

해주	121
호무때	130
화렴	145
황시리	149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위 진(전남대학교)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3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0년 11월 20일

발행일 2010년 11월 25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